

코바야시 코세이

新

혈통

Thoroughbred New BLOOD MAP

MAP

일본 & 세계의 사이어라인

[부록]

우수한 암말 계보에  
꿈을 실어서

-명마(名馬)는 어미의 피에서

## 머 리 말

“책 또 안 쓰세요?” “후속 편은 언제 나와요?” 라는 말을 주위에서 들곤 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말이지요. 3번째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쓴다고 한 들~ 마무리는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동시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러브렛 혈통맵 '94」라는 책은, 선데이사일런스(Sunday Silence)의 자마(仔馬)가 데뷔하던 였으니깐 그로부터 9년~ 길고도 긴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의 씨수말 멤버들을 보면 예전의 멤버들은 온데간데없이 새로운 말들로 확 바뀌어서 전혀 다른 세상의 느낌까지 듭니다. 눈 깜짝하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되어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니 아쉽습니다.

전서(前序)를 발간했을 당시부터 더비스타게임(경마 시뮬레이션 게임)이 붐을 일으켰고 “새삼스럽게 혈통책이라니요~”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으로 혈통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하고도 많은 혈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트북 세상이라고 한들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홈페이지를 열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혈통 서적이 절대적입니다. 가볍게 꺼내 볼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상황에 맞게 재빨리 찾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입니다만, TPO에 걸맞게 디지털의 장점과 아날로그의 장점, 이 모두를 잘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현 시대의 “책”이란 게 지금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에 없는 장점을 “책”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재도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2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제작한 전서(前著) 두 권「혈통맵93·94」가 있습니다만, 이번 책 역시 수많은 수정과 보충의 작업을 거듭해서 제작한 터라 다소 완성도가 높고, 한층 버전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혈통에 관한 간단한 입문서」라는 마음으로 도전한 책이므로 독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의 기본 골자는 대체로 전서와 같지만, 다른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더비」의 우승마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중앙과 지방경마의 격차도 크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의 어느 경주를 언급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NAR(지방경마전국협회)의 「도쿄 더비」의 우승마들도 이번 맵에 수록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암말(모계) 혈통」의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느냐 라는 주목도(注目度)에 있어서는 부계 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모계의 혈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자들이 중요시 하는 배합(配合) 포인트는 부계보다 오히려 모계 쪽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말(모계) 혈통」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생산자와 마주들을 3년간 취재하여 정리한 것, 즉 이번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모계 혈통의 이야기는 일본경종마협회의 월간지 「JBBA」에 재미거리로 뭔가 쓸게 없을까 해서 조사한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대상경주(大賞競走)의 연간 우승마를 우연히 조사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1907년, 코이와이 목장(小岩井牧場)이 수입한 암말들의 혈통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 뿌리깊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서 2001년의 있었던 그레이드 경주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평지와 장애물코스를 합한 그레이드 경주는 128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메이지시대에 수입된 암말의 혈통을 이어 받은 말이 25승, 그 25승중에 코이와이 목장이 20승으로 눈에 띄는 성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다이쇼시대(大正時代;1912-26년)에서 1935년 까지 수입된 암말까지 포함하면 6두가 가산됩니다. 총 31승 중 GI을 4승, 2002년에는 128경주 중 24승, GI는 2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내용처럼 JRA 모든 그레이드 경주의 1/5 이 일본의 기후풍토에 적응된 모계의 혈통이 만들어 낸 우승 성적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일본 더비에 출주했던 18두 중, Precious Song , TM Southper, 마이넬 라이트 3두가 Florrie's Cup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Scan Boy는 Bonny Nancy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외 옛 선대 수입씨암말로 연결되는 활약마는 카치도키류가 히다카종마목장(日高種馬牧場)의 실버벨튼(1911년), 키타산찬네루가 시모후사고료(下総御料)목장의 타네미치(種道, 1928년)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Oaks에는 오이스타티켓이 Florrie's Cup, TM Ocean은 Beautiful Dreamer, 그리고 아테레도시치는 북해도청 종축장(北海道廳種畜場) 수입의 칩톱(1903년)의 혈통을, 포인트브랙도 수입마의 피를 이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메이지·다이쇼시대를 걸쳐 쇼와시대(1926년~)에 접어들자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더러브렛을 포함한 경종마 생산의 많은 고초를 겪고, 패전한 이듬해(1946년)에는 541두까지 줄어듭니다. 패전하기 5년 전, 진주만 공격에서 대동아 전쟁에 돌입한 해(1941년)에는 2,722두이었으므로 확연히 줄어든 셈입니다.

저는 일본 더러브렛의 선구자로서,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내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그들의 매력에 끌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신 분들을 만나 많은 조언을 구하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외국산 암말(Azurine 계)이 있습니다만, 그의 대한 정보도 찾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의 질문능력과 집필능력에 한계가 있어 그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생생하게 전부 기록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주신 생산자나 마주 분들의 뜨거운 열정만은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2003년 2월

코바야시 코세이

# CONTENTS

---

- 머리말 ..... 02
- 이 책의 이용방법 ..... 08
- 씨수말 맵 ..... 08
- [씨수말 맵] 개략도 ..... 12

## 씨수말 MAP

1. 도미노(Domino) 계 ..... 16
2. 햄프톤(Hampton) 계 ..... 20
3. 햄프톤(Hampton) 에르바제(Herbager) 계 ..... 23
4. 햄프톤(Hampton) 하이페리온(Hyperion) 계 ..... 26
5. 하이페리온(Hyperion) 스타킹덤(Star Kingdom) 계 ..... 28
6. 하이페리온(Hyperion) 오웬튜더(Owen Tudor) 계 ..... 30
7. 하이페리온(Hyperion) 록펠라(Rockefella) 계 ..... 32
8. 하이페리온(Hyperion) 칼리드(Khaled) 계 ..... 34
9. 하이페리온(Hyperion) 오레올(Aureole) 계 ..... 34
10. 테디(Teddy) 계 ..... 36
11. 나스룰라(Nasrullah) 계 ..... 38
12. Nasrullah 그레이소버린(Grey sovereign) 계 ..... 40
13. Nasrullah 프린스리기프트(Princely Gift) 계 ..... 46
14. Nasrullah 볼드룰러(Bold Ruler) 계 ..... 50
15. Nasrullah 레드골드(Red God) 계 ..... 56
16. Nasrullah 네버벤드(Never Bend) 계 ..... 60

17. 단테(Dante) 계	66
18. 턴투(Turn-to) 계	68
19. 헤일투리즌(Hail to Reason)헤일로(Halo) 계	72
20. 헤일투리즌(Hail to Reason)로베르토(Roberto) 계	76
21. 니아크틱(Nearctic) 계	78
22. 노던댄서(Northern Dancer) 계	80
23. 노던댄서(Northern Dancer) 니진스키(Nijinsky) 계	88
24. 노던댄서(Northern Dancer) 리파드(Lyphard) 계	92
25. 노던댄서(Northern Dancer) 노던테이스트(Northern Taste) 계	96
26. 노던댄서(Northern Dancer) 댄지그(Danzig) 계	98
27. 노던댄서(Northern Dancer) 누레예프(Nureyev) 계	100
28. 노던댄서(Northern Dancer) 스톰버드(Storm Bird) 계	102
29. 노던댄서(Northern Dancer) 새들러스웰스(Sadler's Wells) 계	104
30. 파라리스(Pharis) 계	106
31. 네이티브댄서(Native Dancer) 계	108
32. Native Dancer 미스터프로스펙터(Mr. Prospector) 계	114
33. Native Dancer 알리다(Alydar) 계	118
34. 페어웨이(Fairway) 계	120
35. 벅패서(Buckpasser) 계	124
36. 블랜드포드(Blandford) 계	126
37. 세인트사이먼(St. Simon) 계	130
38. St. Simon 프린스로즈(Prince Rose) 계	132
39. St. Simon 부아루셀(Bois Roussel) 계	136
40. St. Simon 리보(Ribot) 계	138
41. 투어빌론(Tourbillon)k 계	142
42. Tourbillon 루띠에(Luthier)	144
43. Tourbillon 파소롱(Partholon) 계	146
44. 맨오워(Man O' War) 계1	148

**[부록] 우수한 암말 계보에 꿈을 실어서**

명마(名馬)는 어미의 피에서

1. 플로리스컵(Florrie's Cup) 계 (F.No3) .....	155
시스토토우쇼 목장과 토우쇼(藤正)목장	
2. 칩 톱 계 (F.No4) .....	162
타카세(高瀬)목장과 로지타 패밀리	
3. 아즈린(Azurine) 계 (F.No4) .....	166
타이키셔틀(Taiki Shuttle)과 타이키목장(Taiki Farm)	
4. 에스더디(Esther Dee) 계 (F.No6) .....	168
토싱블리자드(Tohshin Blizzard)와 무라나카 카즈에(村中一英)씨	
5. 어스터니시먼트(Astonishment) 계 (F.No7) .....	172
(1)트롯스타(Trot Star)와 오기후시미요시(荻伏三好)목장	
(2)오프사이드트랩(Offside Trap), 엘콘도르파사(El Condor Pasa)와 마주- 와타나베 류(渡邊隆)씨	
6. 크레이다로치(Craigdarroch) 계 (F.No11) .....	180
위닝티켓과 후지하라(藤原)목장	
7. 뷰티풀드림러(Beautiful Dreamer) 계 (F.No12) .....	184
(1)빅토리아크라운과 치요다(千代田)목장	
(2)티엠오션(TM Ocean)과 카와고에(川越)목장	
8. 헬렌서프(Helen Serf) 계 (F.No416) .....	192
히시미라클의 마주 아베 마사이치로(阿部雅一郎)씨	
9. 호시토모(星友,Alzada) (F.No19) .....	198
토카이테이오(Tokai Teio)와 남아하마(長浜)목장	
맺음말 .....	200

## ● 이책의 이용방법

더러브렛의 3대 조상부터 나뉘기 시작하며, 현 일본 「터프」에서 활약하고 있는 씨수말의 흐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전편의 「씨수말 Map」을 바탕으로 근간 씨수말 계통별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후편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있고 있는 「일본의 암말 계통」을 소개하였습니다. 흔히 경마를 「혈통의 대서사시」라고들 합니다. 이번 「일본의 암말 계통」으로 「혈연의 대서사시」를 맘껏 체험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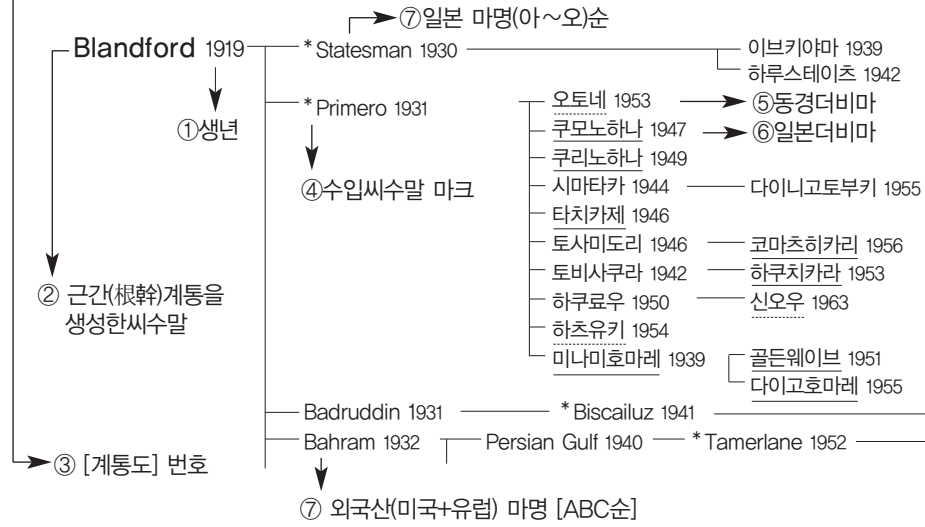
## ● [씨수말 Map]을 보는 방법

이 책의 (씨수말 Map)에서는 현 일본 경마계에서 활약마를 많이 배출함과 동시에 현저하게 번영하고 있는 씨수말을 근간계통(根幹系統)으로 취급, 총 44개의 계통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각 계통을 근간 부계(父子) 라인으로서 자마→손자→증손 ... 으로 표시하여 부계의 계통(가로·세로)을 알 수 있게 배열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마명(馬名) 뒤의 연도표시는 그 말이 태어난 해.
- ② 근간계통의 주 씨수말명. 아비와 아들의 관계는 왼쪽 → 오른쪽으로 표시(가로), 자마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로 표시하였음.  
\* 근간계통씨수말의 설명은 저자의 실제 경주관찰로 판단한 주관적 의견임을 참고.
- ③ [씨수말 Map] 1~44의 계통 번호는 [계통도]의 번호와 같습니다.
- ④ \*마크는 일본수입씨수말.
- ⑤ 밑줄 점선이 그어져 있는 마명(馬名)은 도쿄 더비마입니다.
- ⑥ 밑줄 선이 그어져 있는 마명(馬名)은 일본더비마입니다. ▲은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씨수말이 되지 못한 명마(名馬)입니다.
- ⑦ [씨수말 Map]의 마명 배열순은, 마명을 찾기 쉬운 순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년별순이 아닌 일본 마명을 배열하고, 그 다음에 영문표기를 <ABC>순으로 하였습니다.

36 블랜드포드(Blandford)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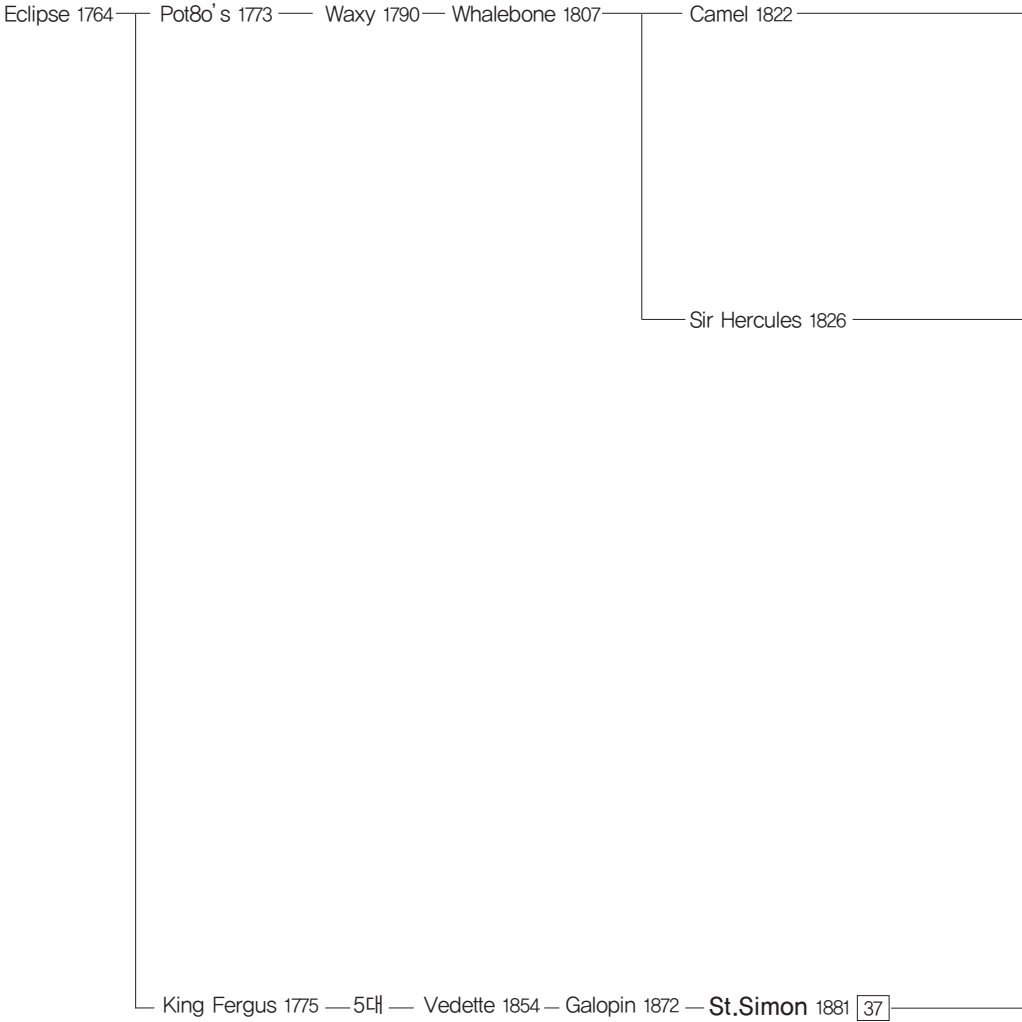


# 씨 수 말 MAP

## 씨수말 MAP 개략도(概略圖)

Darley Arabian 1764

3대



Byerley Turk 1680 — 3대 — Herod 1758 — 12대 — Ksar 1918 — Tourbillon 1928 41

Godolphin Arabian 1724 — 1대 — Matchem 1748 — 10대 — Fair Play 1905 — Man o' War 1917 44

Touchstone 1831 — Orlando 1841 — Eclipse 1855 — 2대 — **Domino** 1891 [1]  
 — Newminster 1848 — Lord Clifden 1860 — **Hampton** 187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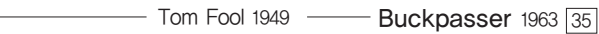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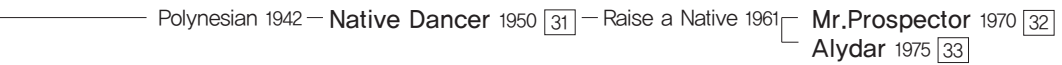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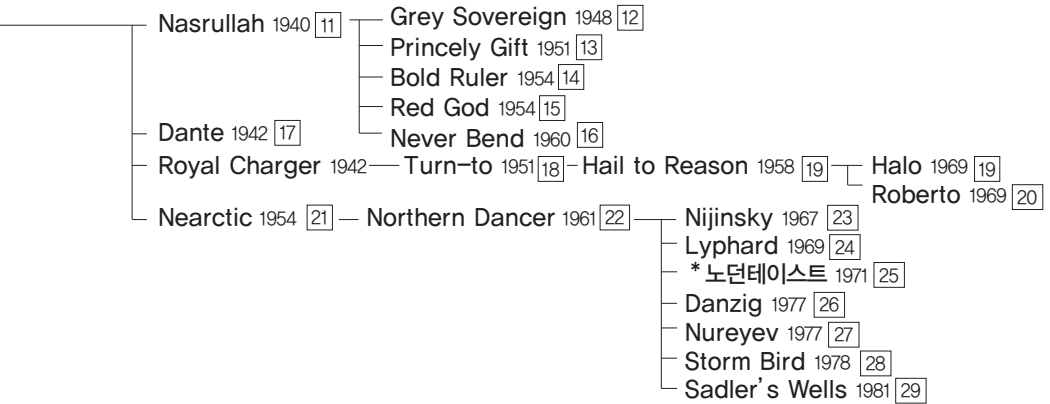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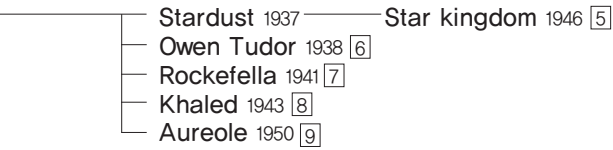
Birdcatcher 1833 — The Baron 1842 — Stockwell 1849 — Doncaster 1870 — Bend Or 1877  
 — Oxford 1857 — Sterling 1868 — 3대 — Swynford 1907 — **Blandford** 1919 [36]

Persimmon 1893 — 1대 — Rose Prince 1919 — **Prince Rose** 1928 [38]  
 — Chaucer 1900 — 1대 — Vatout 1926 — **Bois Roussel** 1935 [39]  
 — Rabelais 1900 — 3대 — Tenerani 1944 — **Ribot** 1952 [40]

Djebel 1937 — Clarion 1944 — Klairon 1952 — **Luthier** 1965 [42]  
 — My Babu 1945 — Milesian 1953 — \* **파소롱** 1960 [43]

Bay Ronald 1893 — Dark Ronald 1905 — 3대 — Vandale 1943 — **Herbager** 1956 [3]  
 Bayardo 1906 — Gainsborough 1915 — **Hyperion** 1930 [4]

Bend Or 1877 — Ormonde 1883 — 2대 — Ajax 1901 — **Teddy** 1913 [10]  
 Bona Vista 1889 — 2대 — Phalaris 1913 — Pharos 1920 — Nearco 1935  
 — **Pharis** 1939 [30]  
 — Sickle 1924 — Unbreakable 1935  
 — **Fairway** 1925 [34]  
 — Pharamond 1925 — Menow 1935





## 1 도미노(Domino) 계

Domino 1891—Commando 1898—Colin 1905—Neddie 1926—2대—Armageddon 1949

최근에는 북미의 혈통이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세계 제패를 꿈꾸던 더러브렛 산업이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orthern Dancer도 캐나다 출신이며, Bold Ruler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馬」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이티브댄서(Native Dancer) 계를 생각하실 겁니다.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더러브렛이 세계를 석권하기까지는 실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780년 제1회 영국 더비경주에서 승리한 Diomedes는 20살이 지나서야 미국에서 수입된 말입니다. 씨수말로써는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로부터 4대째에 태어난 렉싱턴(Lexington, 1850년)이 미국 경마 역사에 기록되는 대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경주 성적은 7전 6승. 게다가 미국 3관경주가 정비되기 이전이었습니다.(참고로, 켄터키 더비경주(Kentucky Derby)가 1875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Preakness Stakes)가 1873년, 벨몬트 스테이크스(Belmont Stakes)가 1867년에 창설).

씨수말이 된 해가 남북전쟁(1861~1865년)이 있던 시기였으나, 수십 번에 걸쳐 리딩 사이어(Leading Sire)가 됩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그 직계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직계는 아니지만 그 혈통을 이어받아 1901년 호주에서 일본에 수입된 미러가 와카타카(제1회 일본 더비 馬)등을 배출합니다. 미러를 수입했을 당시에 분명히 혈통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서가 도중에 분실되어 양친불명(兩親不明)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미러는 더러브렛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Battled Joined 1956 — Ack Ack 1966 — Broad Brush 1983 — Concern 1991  
 Truce Maker 1973  
 Youth 1973 — Teenoso 1980

와카타카 (수말, 1929년생)

투어네솔 (Tournesol) 1922 갈색	Gainsborough 1915 갈색	Bayardo	Bay Ronald Galicia
		Rosedrop	St. Frusquin Rosaline
	Soliste 1910	Prince William	Bill of Portland La Vierge
		Sees	Chesterfield La Goulue
			Hackler
		Ebor 1905 흑갈색	Lady Gough
제 2 미러 1911	제 2 Spooney		Spooney 제 3 월댄스베리
	미러		불명 불명

다이 3 월댄스베리 — 부 브래들리 — 부 War Dance — 부 Lexington  
 모 월댄스베리 — 모 Revenne Mare — 모 Reel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도미노(Domino) 계를 재조명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 있던 수입말 노보톨과 브로드어필이 단거리 노선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것이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재조명하여 혈통 Map에 추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고로 아버말은 Broad Brush입니다. 또 2002년 미국 켄터키 오크스(Oaks)에서 승리한 Farda Amiga 도 같은 아버말이며, 또한 Domino, Ack Ack(엑크엑크)의 라인입니다.

먼저 이 Domino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891년산으로, 父 Himyar와 母 Mannie Grag 계로 Lexington의 3×4의 배합입니다.

경주생활 3년에 25전 19승. 사망 시기는 1897년 6월이었으니깐 씨수말로서의 생명이 2년 남짓하던 때였습니다. 자마(仔馬:자식말)로서는, Jockey ClubStakes에서 1900년 영국 3관마 Diamond Jubilee를 물리친 Disguis(영국 터비 3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Cap and Bells는 영국 오크스마가 됩니다.

Domino를 씨수말로서 평가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은, 1901년 Belmont Stakes를 제패한 Commando를 들 수 있다. Commando는 2세 챔피언이 되며, 1901년 Belmont Stakes에서 승리합니다. 15전 15승을 한 코린 등도 있습니다만, 자마는 아버말 Domino의 20두보다도 조금 많은 27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통 Ack Ack(엑크엑크)의 자마 Youth는 1976년에 일본말인 후지노 파시아가 참전했던 워싱턴D.C. 인터내셔널 경주(당시 인기 있던 국제경주)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팬이셨던 분은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당시 후지노파시아를 탔던 오사키 쇼이치 기수가「귀국 후 파시아의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방목장에 있을 때부터 갑자기 불안해하며 흥분하기 시작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등장한 게 줌……」라고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후지노파시아는 갑자기 등장한 미인에게 정신이 팔려서 아무생각 없이 달렸던 게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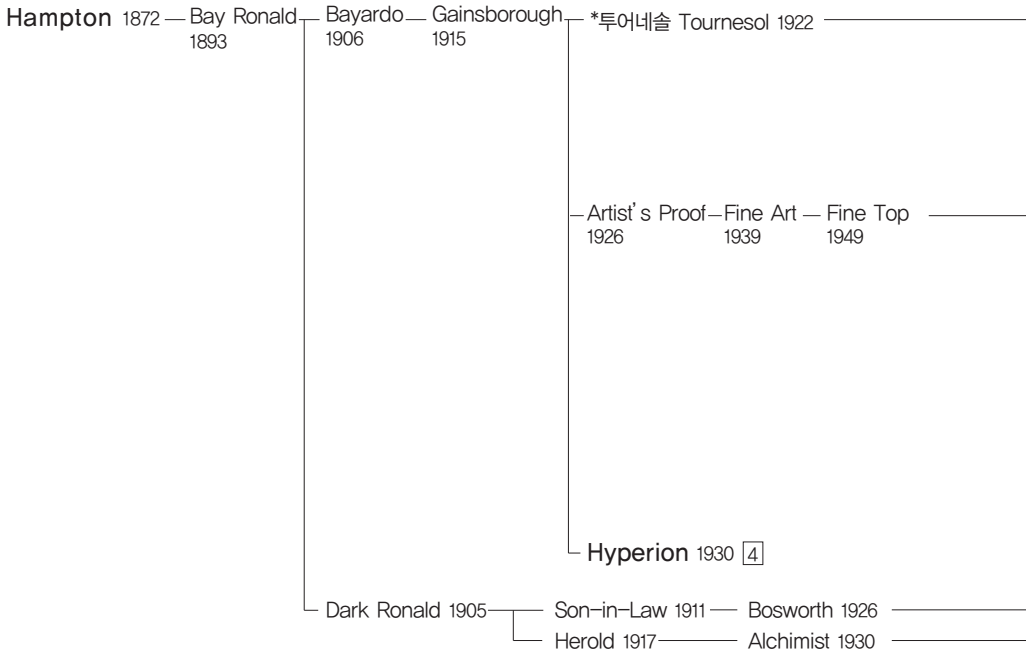
도미노 (수말, 1891년생)

Himyar 1869	Alarm 1869	Eclipse 1855	Orlando Gaze
		Maud 1859	Stockwell Countess of Albemarle
	Hira 1864	Lexington 1850	Boston
			Alice Carneal
		Hegira 1846	Ambassador Flight
	Mannie Gray 1874	Enquirer 1867	Leamington 1853
Lida 1858			
Lizzie G. 1867			War Dance 1859
		Lecomte Mare 1859	Lecomte
			Edith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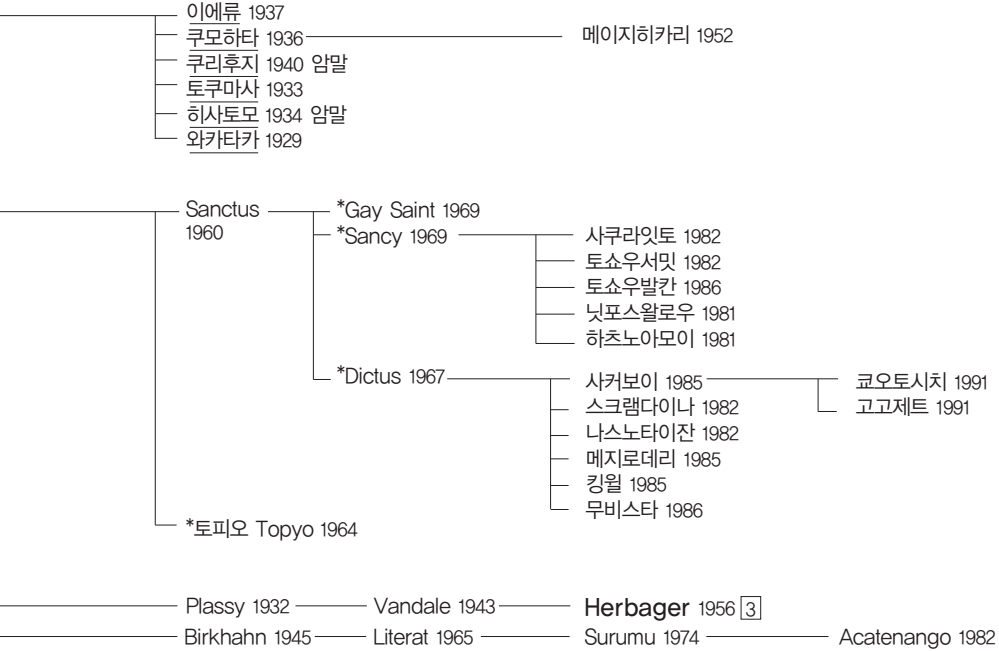
## 햄프톤(Hampton) 계



일본의 더러브렛을 말할 때 주목해야 할 계통 중 하나입니다. 제 1회의 와카타카 (Wakataka)를 시작으로 총 6두의 일본 더비마를 배출하였습니다. 그 중 1두는 쿠모 하타(Kumohata)라는 씨수말로, 태평양 전쟁 후 일본 더러브렛 계(界)의 견인마(牽引馬)로 이름을 떨치면서, 1958년 라이징플레임(Rising Flame)으로 바뀌기 전 5년 동안이나 사이어 톱 자리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비, 옥스, 기까쇼(菊花賞)등 11전 11승의 어스트니시먼트 (Astonishment)계 쿠리후지도 이와 비슷한 성적을 낸 야마이치 등을 배출하며, 이

주: 밑줄선은 일본 더비마입니다.



후에도 코다마, 메이즈이, 신잔(Shinzan) 등의 스타가 등장할 때까지 일본 경마계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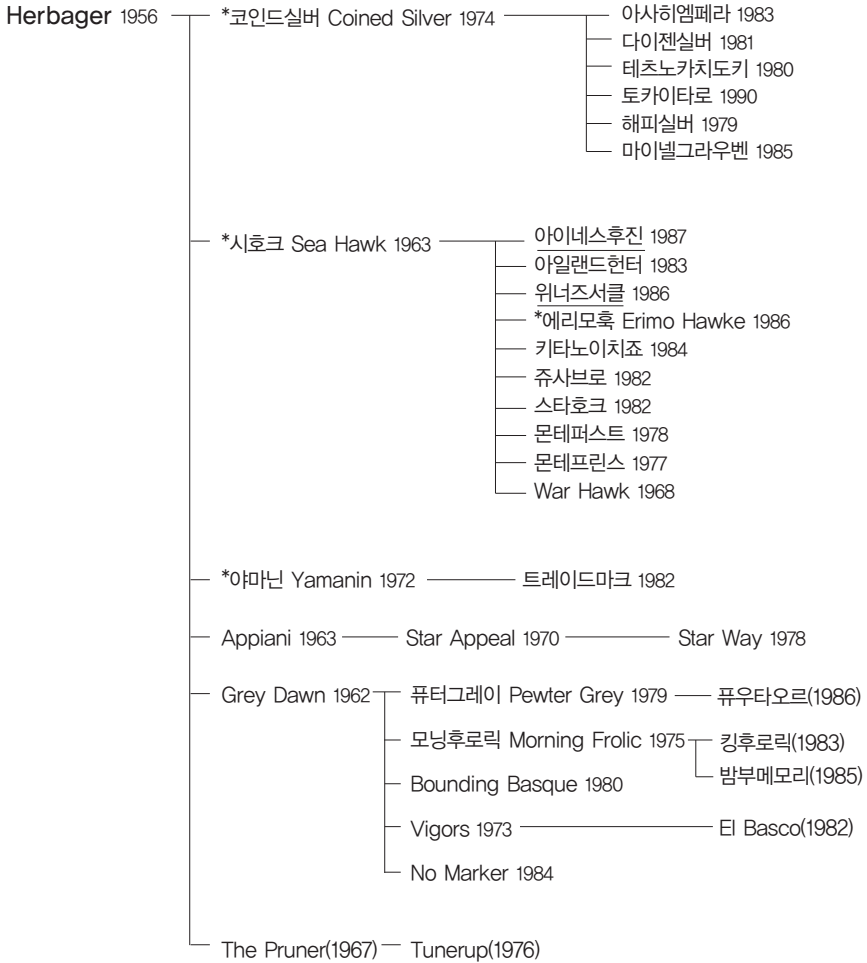
이 2두는 일본 경마계로부터 크나큰 공헌을 인정받아, 동경경마장「경마박물관」의 현창마(顯彰馬)라는 코너에서 그의 실적을 기리는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통은 단지「이야~ 옛날에는 정말 대단했었는데!」라는 감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99년 기까쇼의 나리타롭로드, 00년 아키바쇼(秋華賞)의 티코티코타크(TicoTicoTac), 그리고 02년 기까 쇼의 히시미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NAR(지방경마전국협회) 소속의 캣츠미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인 카미 소리(剃刀)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마일러 왕자라고 불리던 사커보이(Soccer Boy)입니다. 이후 씨수말이 되어서도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다. 또, 「시바 GI호스」이외에도 더트경주(dirt: 모래주로)에 강한 교토시치, 장거리에 강한 고고제트, 사운드베리어, 츠루마루걸, 치어폴도터, 링거스보이 등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계통에는 NAR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모리아키, 요시노메모리 등이 있으며, 「도쿄 경마장은 빠르고 견고한 주로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마이클 로버트 기수의 조언으로 재팬컵에 도전한 결과, 멋진 결과를 낳은 독일 더비말인 란도(lando, 父 Acatenango)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3

햄프톤(Hampton) - 에르바제(Herbager) 계



이 계통이 대 선풍을 일으킨 지 약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일본 첫 회색 더비마 워너즈서클의 기수인 교하라 히로유키(郷原 洋行, 現 조교사)씨는 「훈련을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었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하라(郷原)씨와 회색마는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첫 회색 클래식 말(馬)인 동시에 기가쇼(菊花賞)를 차지한 프레스트코우와도 콤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의 제 57회 더비, 도쿄경마장에 나카노(中野)씨를 부르는 응원소리가 메아리를 칩니다. 바로 도주극(逃走劇)을 펼쳐 더비마가 된 아이네스후진(Ines Fujin)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함께 수입된 에르바제의 아들 시호크(Sea Hawk)의 자마들입니다. 다만, 父 시호크라는 말에「왜 느닷없이 이제 와서」라고 생각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워너즈서클의 10년전, 자마인 몬테프린스, 몬테퍼스트 형제가 텐노쇼(天皇賞) 제패(制覇)라는 위업을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에는 회색 활약마(活躍馬)로서 교쿠샤스다호크, 지방의 스타호스, 주사브로 등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유럽에서 활동한 일본인 마주의 에리모훅(Erimo Hawk)입니다. 에리모훅은 1972년에 유럽에서 유명한 장거리경주, 20펄롱[1펄롱=1마일의 8분의 1, 약 200m]인 에스콧 골드컵(Ascot Gold Cup), 21펄롱인 굿우드컵(Goodwood Cup)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지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엄청난 빅뉴스가 되었겠죠.

에르바제계가 시호크의 전부인 것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확실히 강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레이다운(Grey Dawn) 라인에 있는 모닝후로릭(Morning Frolic), 밤부메모리가 그렇습니다. 후자(後者)가 씨수말 되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후계를 이을 만한 자마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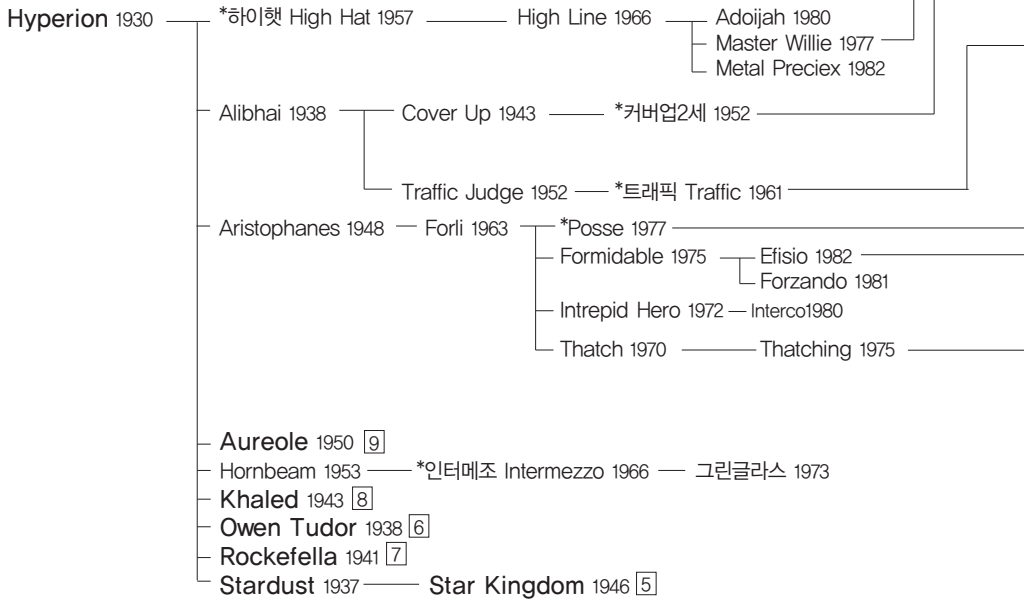
또한, 2001년까지 NAR의 대상(重賞) 및 더트에서 활동한 퍼스트프렌드(First Friend)도 여기에 속하는 암말입니다.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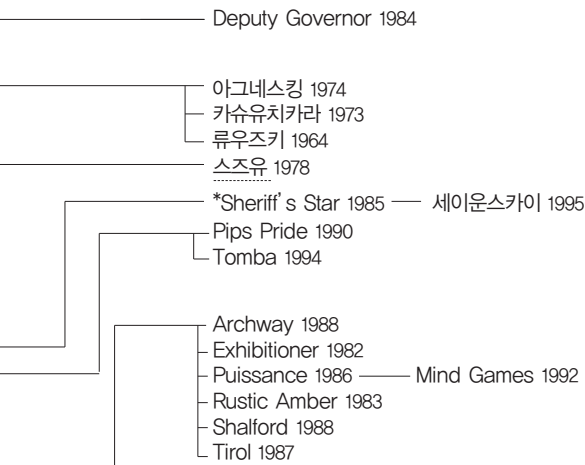
#### 햄프톤(Hampton) - 하이페리온(Hyperion) 계



10년 연하의 나스룰라(Nasrullah), 그리고 24살 아래인 니어크틱(Nearctic)의 선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자마들이 작은 줄기에서 각각의 본 가치를 만들어 간 거죠.

하이페리온은 세인트사이먼(St. Simon)의 직계는 아니지만, 3×4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더비에서 승리했을 당시의 체고(體高)는 155cm이하였습니다.

참고로 선데이사일런스는 163cm, 3살 봄이 되던 해부터 갑자기 강해진 브라이언 스타임(Brian's Time)이 161cm, 빠르면서 지속적인 스피드를 가졌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토니빈(Tony Bin)이 167cm, 일본의 위대한 리딩 사이어 노던테이스트(Northern Taste)가 161cm, 그럼, 옛날 말들은 어떠하였을까? 역사에 남을 만한 더러브렛 초기의 명마(名馬)들을 다음과 같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매침(Matchem)	154,9cm
헤롯(Herod)	160,0cm
이클립스(Eclipse)	157,5cm
세인트사이먼(St.simon)	163,9cm

여러분도 다른 명마들과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작은 체고였던 하이페리온…….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인데, 그 매운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정도였으니깐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시리라 봅니다. 당시 하이페리온(Hyperion)은 더러브렛 생산자들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 매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신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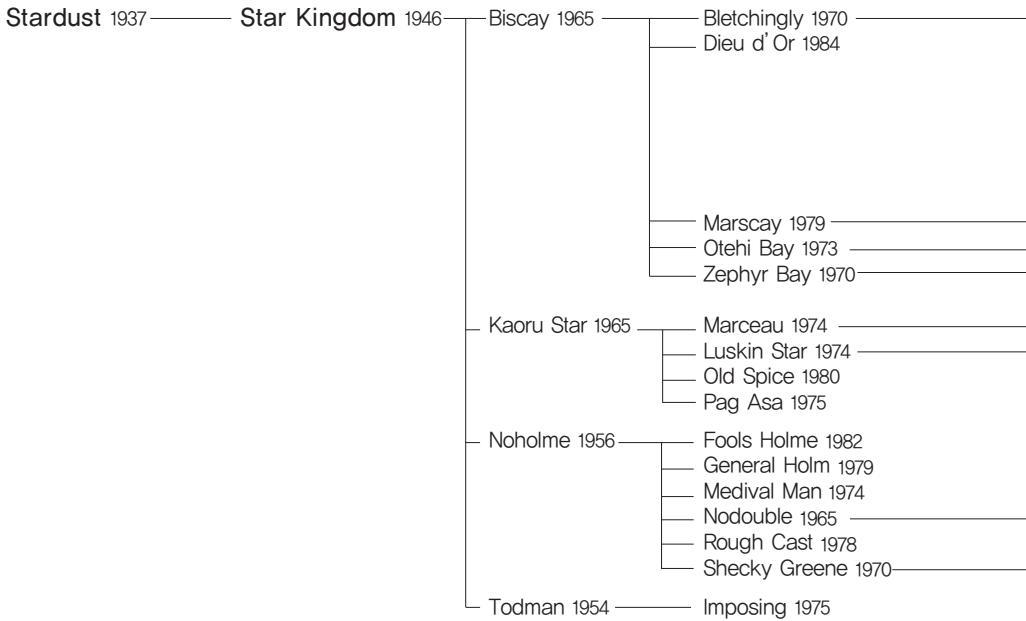
경주 성적은 2세 때 5전 3승, 3세 때 4전 4승, 4세 때 4전 2승으로 모두 총 13전 9승. 더비, 세인트레저(St. Leger Stakes), 프린스오브웨일스(prince of wales) 등의 G1을 제패하였습니다.

최근 2001년에 현역 은퇴한 2관왕 세이운스카이가 재기(再起)한다는 소식에 많은 시선이 주목되었으며, 하이페리온의 막강한 유전력(遺傳力)을 다시 한 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5

하이퍼리온(Hyperion) - 스타킹덤(Star Kingdom) 계



지금처럼 북반구 말이 남반구에 가서 교배하는 서들이 시작되기 전의 오세아니아, 당연 오랜 시간동안 지역 내에서 길러진 혈통이 있고, 현재까지도 상당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반부 더러브렛은 얼마나 되는가요? 일단 3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26년 뉴질랜드산 파렙(Phar Lap), 전설적인 명마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반구에서는 그 어떤 말보다도 유명하며, 지금까지도 영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생애(生涯) 성적은 51전 31승. 6살이 되던 해에 미국을 정복하며, 대륙에서의 첫 레이스였던 아과스칼리엔테스H(Aguascalientes H: 멕시코, 더트 1800m, 생애 유일의 더트경주) 경기에서 신기록을 수립하며 압승(壓勝)하지만, 그 직후, 수수께끼와 같은 죽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살충제로 사용되는 비소가 몸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강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독살당한

- Best Western 1978
- Bletchencore 1981
- Canny Lad 1987
- Cossack Warrior 1983 — Brave Warrior 1991
- Lord Ballina 1979
- Native Kingdom 1979
- Take Your Partner 1982
  
- Maizcay 1984
- Kingdom Bay 1981
- Broad Reach 1983 — Yachtie 1989
- Elounda Bay 1977
- Hula Chief 1982
- Covetous 1979 — St Covet 1991
- Fiesta Star 1979
  
- Semipalatinsk 1978
  
- Green Forest 1979 — Forest Wind 1990
- Zabaleta 1983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퍼지면서 오세아니아와 미국의 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집니다. 또한, 블러드 호스(The Blood-Horse)지에서 선정한「20세기의 명마」에서 22위로도 선정됩니다.

두 번째는, 카빈(Carbine)입니다. 1885년 뉴질랜드산 카빈의 용맹한 자태가 담긴 사진은, 더러브렛의 이상적인 체형의 표본으로서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애 성적은 43전 33승이며, 2위 6회, 3위 3회, 4착 1회. 씨수말이 되어 호주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영국에 수출된 후에는 영국 더비마 스피어민트(spearmint)

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카빈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발꿈치로 잉크 향아리(단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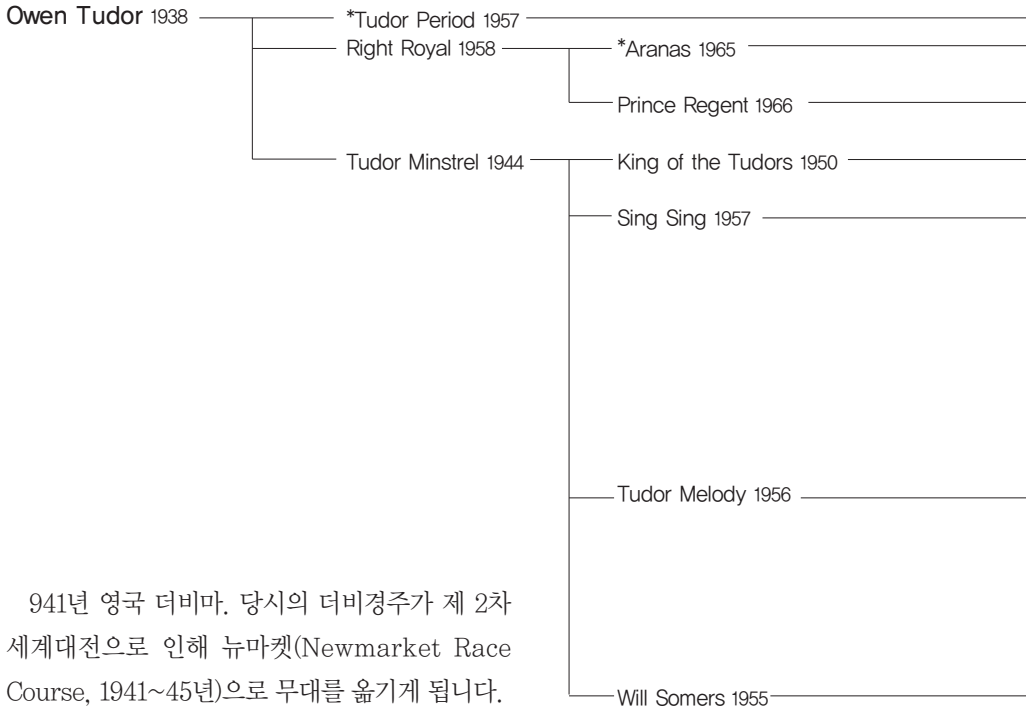
그리고, 세 번째인 스타킹덤(Star Kingdom). 아일랜드 출신이며, 경주생활을 끝낸 후 호주로 수입됩니다. 경주 성적은 16전 9승이며, 호주에서 씨수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리딩 사이어를 다섯 번 차지하며, 많은 자마들이 후계(後繼) 씨수말로써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출생 시기에 따른 능력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JRA 경마시행규정」에서는, 남반구에서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말이 평지경주(平地競走)에 출주할 경우[단, 핸디캡에 의해 부담중량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2kg감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

하이퍼리온(Hyperion) - 오웬튜더(Owen Tudor)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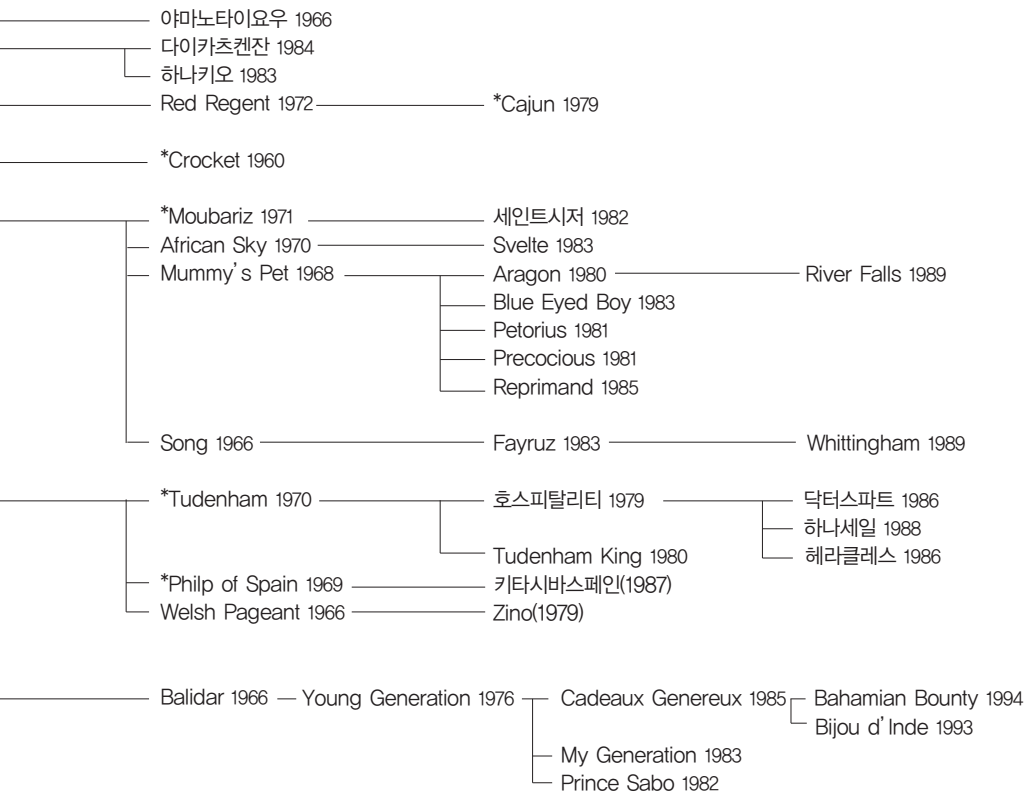


941년 영국 더비마. 당시의 더비경주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뉴마켓(Newmarket Race Course, 1941~45년)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씨수말이 된 후, 영국 클래식을 획득하는 말이 배출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혈통을 남기는 일에는 상당 부분 성공을 이룹니다.

스태미나의 결정체와 같은 라이트로얄(Right Royal)계. 그 중에는 더비경(卿) 챈린지 트로피 2회와 네기시스테이크스에서 우승한 토모에리젠트(Tomoe Regent), 1600m에서 멋진 기록을 보여준 요시노에덴(Yoshino Eden) 등이 있습니다.

튜더민스트렐(Tudor Minstrel)계는 스피드를 주력으로 한 자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본에서는 씨수말인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NAR 불패행진에서 JRA 입성」. 센트라이트(GⅢ, 나카야마 잔디 2200m)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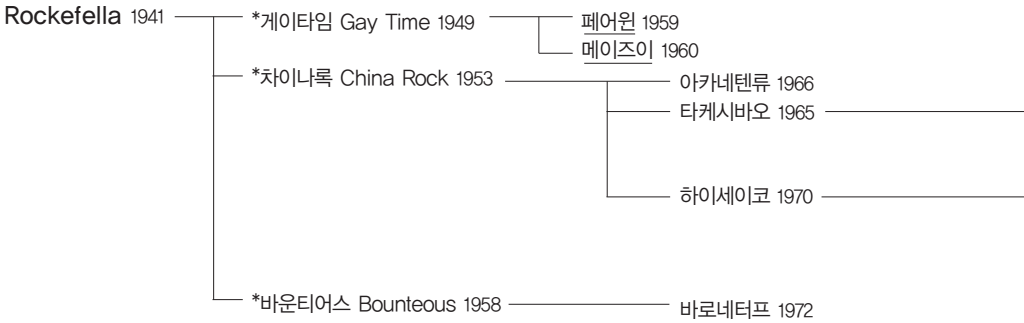
넘에서 사츠키쇼(皐月賞) 우승마인 아즈마헌터를 몸 3배 차이로 누르고 쾌승(快勝)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당시 재팬컵(Japan Cup) 트라이얼이던 후지스테이크스(Huji Stakes)에서 프로스트킹(Frost King)이 2위.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1패(敗)였습니다. 당시 「그래도 일본 말에게는 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호스피탈리티의 자마는 핸드리포포, 아이비토코, 아미사이클론, 사코테스코, NAR 에 리워드론드, 헤라클레스 그리고 세인트시저와 세인트미사일.



7

하이퍼리온(Hyperion) - 록펠라(Rockefella) 계



이 계통에서 처음으로 일본과 인연이 맺어진 것은 게이타임(Gay Time)입니다. 일본으로 수입되고 나서 4년째 되던 해, 페어윈이라는 자마가 더비마가 됩니다. 01년 7월에 세상을 떠난 노히라 유지(野平祐二, 1928-2001) 기수. 더비경주 전(前)까지는 페어윈을 기승(騎乘)하지만, 더비경주에서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마방의 말을 기승합니다. 노히라 기수가 제게 묻더군요. 「제가 페어윈을 탔어도 더비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라고요. 저는 「글쎄요. 당시의 현란한 작전은 타카하시 히데오(高橋英夫) 씨 만이 할 수 있는 작전이었기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 낼 수 없는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노히라 씨였다고 해도 이겼을지는 저도 잘...」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기수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더비 우승을 꿈꾸지만, 노히라 씨는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상상을 초월하는 스피드의 2관마(冠馬)가 탄생합니다. 바로 메이즈이입니다. 3관왕이 걸린 기까쇼 때는 도쿄경마장에 「메이즈이,3관을 축하합니

- 이이데세존 1988
- 도오칸야시마 1980
- 하츠시바오 1975
- 아웃런세이코 1987
- 카츠라노하이세이코 1976
- 킹하이세이코 1981
- 하쿠타이세이 1987
- 라이프타테아마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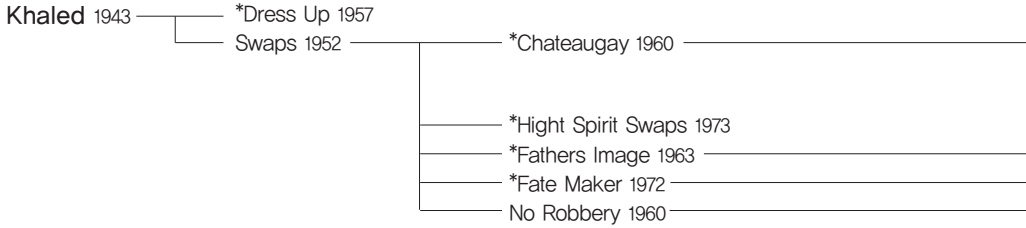
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곤 했습니다. 당시 제가 실황중계를 하기 위해 교토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아침에 마방을 방문, 혼자 의자에 앉아 먹다만 사과를 한 손에 쥐고 있던 모리야마 시게카츠(森安重勝,1937-1984) 기수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게임타임(Gay Time)은 2두의 더비마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록펠라 계의 으름에 서지 못합니다 [일본 내에서]. 바로 차이나록(China Rock)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차이나록은 더비마를 1두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자마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타케시바오(Takeshiba O), 아카네텐류, 하이세이코가 있으며, 타케시바오(Takeshiba O)는 잔디·더트·거리·경마장 등 주로 조건도 대응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의 멤버를 보면 NAR에서의 활약이 어느 정도였는가 짐작이 되시리라 봅니다.



8

하이페리온(Hyperion) - 칼리드(Khaled) 계



더트의 달인을 말할 것 같으면, 최근에는 어쥬디케이팅(Adjudicating), 포티나이 너(Forty Niner) 등 미스터프로스펙터(Mr. Prospector)계가 많지만, 예전의 더트·불량주로 말할 것 같으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칼리드(Khaled)라는 계통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칼리드라는 이름을 듣기가 영 힘드네요.

칼리드(Khaled)는 하이페리온의 자마로, 미들파크 스테이크스(Middle Park Stakes)의 우승마이기도 합니다. 켄터키 더비마인 스왑스(Swaps)를 배출하고, 그의 자마인 샤토게이(Chateaugay)는 프리크니스 스테이런(Preakness Stakes)에서 2위로 안타깝게 3관을 놓치고 맙니다. 게다가 일본으로 수입된 그 샤토게이가 아직 대를 잇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맵에 있는 파더스이미지(Fathers Image)는 헤일로(Halo)의 형(兄)이며, 하와이안이미지의 아버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트메이커(Fate Maker)입니다만, 이 페이트메이커가 카운테스업(Countess Up)으로 흐르는 라인을 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토우쇼게이트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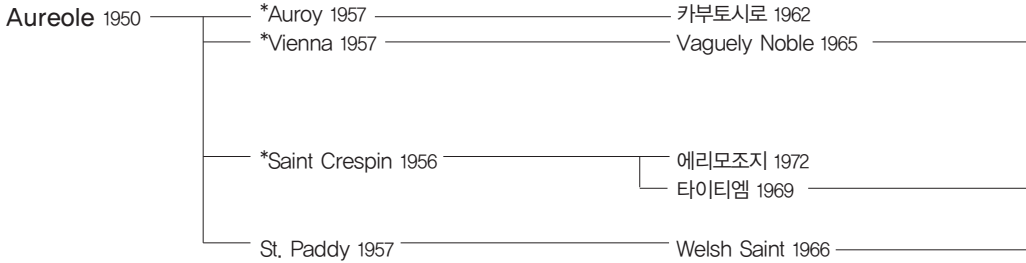
토우쇼레오 1982

호쿠토플라그 1979

하와이안이미지 1977

카운텐스업 1981

Wind and Wuthering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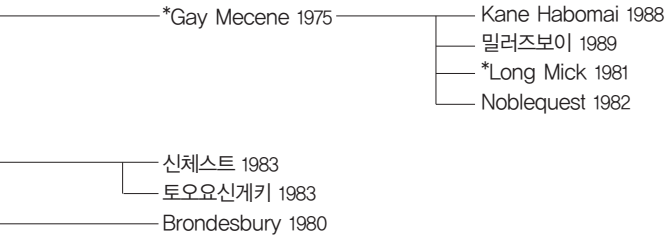
한 부모로부터 개성이 강한 망아지가 나오면 「유전자」라는 단어가 강하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카부토시로와 에리모조지가 그렇습니다.

아직 경마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나, 주위에 베테랑 선배라도 있는 분이시라면 꼭 이 말을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옛날에 말이지~ 카부토시로라는 말이 있었는데, 개는 어떨 때는 엄청 센데 또 어떨 때는 정~ 반대야. 뛰고 싶다는 의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경기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스타일이거든~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말(馬)이란 말이야~」

게다가 「근데 나는 그 경주를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지~」라는 말을 덧붙이며 마치 자기 자랑을 하듯 말이죠.

카부토시로의 텐노쇼(天皇賞, 1967년 11월 나카야마 경기장), 당시 선두로부터 5초 이상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코스에서 한 번에 추월하여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쿠보타 히데지로(久保田秀次郎) 기수의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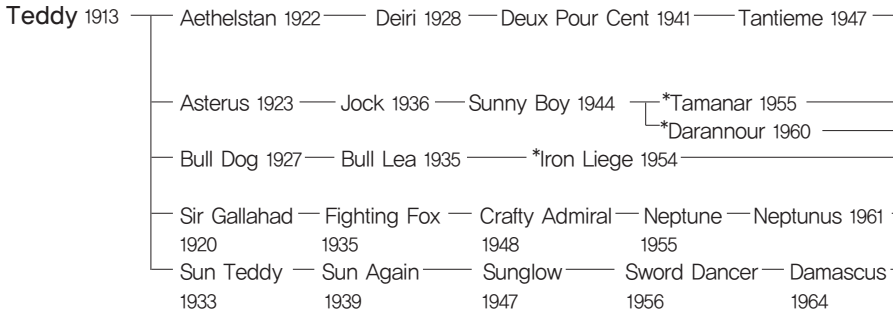
다음달, 오오사키 쇼이치(大崎昭一)가 대신 기승(騎乘)했던 아리마(有馬)기념에서는 한 번에 선두로 나서더니, 그 상태를 경기 마지막까지 유지하며 멋지게 끝인



하는 그랑프리 호스가 됩니다. 결국, 1967년 11전 중 고작 2승으로 상금 랭킹 1위가 됩니다.

한편, 번덕스러운 에리모조지도 토우쇼보이, 텐포인트(Ten Point)가 뜨겁게 달궜 놓은 클래식에서(3세 봄, 1976년) 교토 경마장 3200m를 도주로 전개하여 신선함을 보여줍니다. 혈통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선보인 첫 개선문상(凱旋門賞, Prix de l'Arc de Triomphe)말이라는 평판을 얻은 세인트크레스핀(Saint Crespin)이 아버지입니다. 기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 혼자 바람처럼 확~ 달려가 1등으로 골인해 버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당시 에리모조지를 타고 있던 기수가 천재 리딩자키(Riding jockey)인 후쿠나가 요이치(福永洋一)씨였습니다. 그러니 말 덕분이라고만은 볼 수 없겠죠. 당시 그는 독주(獨走)하고 있던 무서운 리딩자키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던 기수였습니다.

또한,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나 귀공자라고 불리던 사백유성(四白流星, 4개의 다리 끝이 하얗고 색이 없으며, 이마부분의 성(星)이 하얗고 색이 없는 것이 특징. 명마의 특징이라고 불림)의 타이티엠은 클래식(더비 3위, 기까쇼 2위)에서 주목을 받고, 이듬해인 1973년 텐노쇼(天皇賞) 봄 우승마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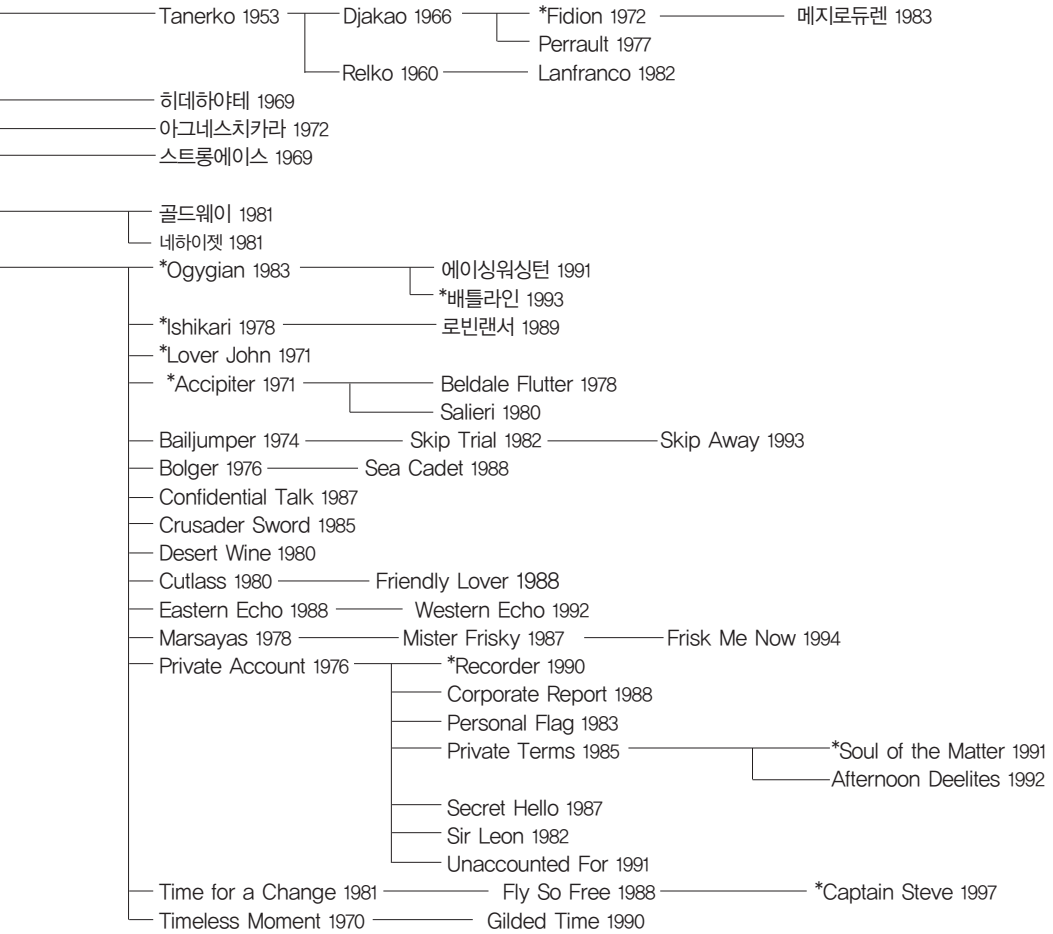


미국 씨수말계(界)의 주역이 될 것이라 모두가 믿었던 불독(Bull Dog), 불리(Bull Lea), 사이테이션(Citation)……. 하지만 우리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대목장(大牧場)의 하나였던 칼루멧(Calumet)목장으로서는 큰 타격이었죠.

지금은 사이테이션(Citation)이 아닌 선테디(Sun Teddy)의 계통이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디(Teddy)는 두 시즌에서 8전 6승. 스페인에서 경주생활을 시작한 후에 프랑스로 넘어가지만, 때마침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프랑스 더비경주가 중단 됩니다.

올드팬들에게 있어 이 계통은 상당히 그리운 면이 있습니다. 1973년의 아리마(有馬)기념에서 질주하던 스트롱에이트(Strong Eight), 기까쇼에서 승리하고 이듬해인 1962년에 아리마기념도 제패했던 메지로듀렌(Mejiro Duren)등이 생각나실 겁니다. 2두 모두 큰 상금이 걸린 레이스에서 승리하여 강한 인상을 남겼었죠. 지금은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여 앞으로 큰 활약을 하리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NAR에서는 오지 지안(Ogygian)의 자마인 후지노콘도가 그 대상이죠.

켄터키 더비마인 선더걸치(Thunder Gulch)의 동생 배틀라인, 타이키다이어의 실 적만으로 더트경주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에이싱워싱턴은 오히려 잔디에서의 성적이 뛰어납니다. 젊은 고오카이킹이 그 뒤를 잇고 있어 기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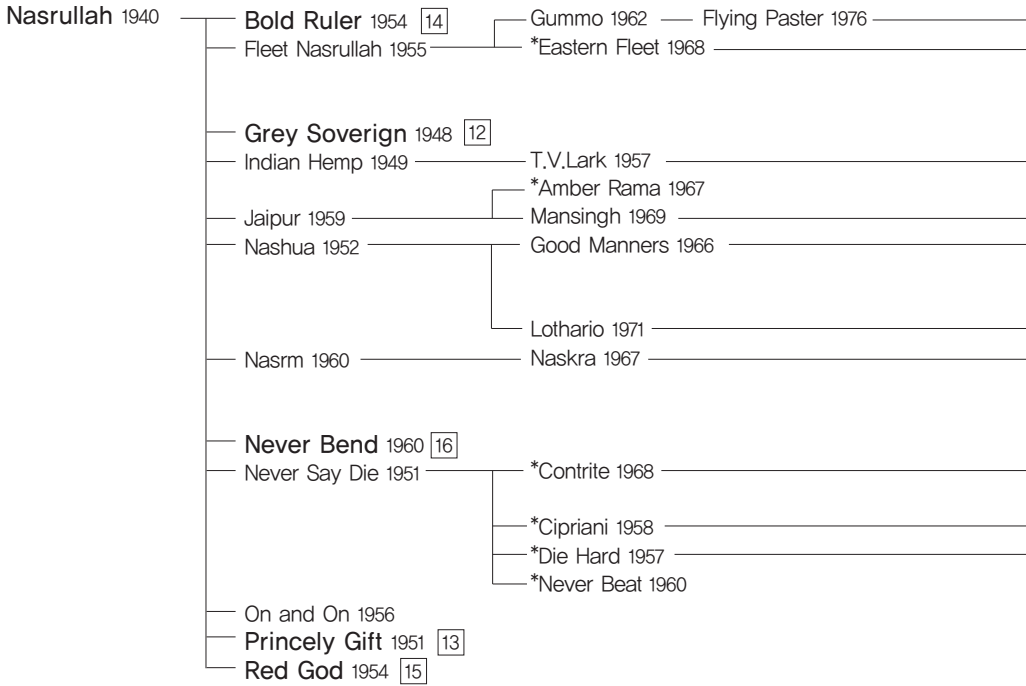


됩니다.

미국에서 8연승을 하고, 최우수 4세 수말이 된 스킵어웨이(Skip Away)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 11 나스룰라(Nasrullah) 계



각각의 독립적인 그룹으로 형성된 볼드룰러(Bold Ruler), 그레이소버린(Grey Sovereign), 네버벤드(Never Bend), 프린스리기프트(Princely Gift), 레드갓(Red God)이 있으며, 이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상당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네버세이다이(Never Say Die)도 하나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혈통 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외의 유력한 생산자로부터도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영국이 이 혈통을 독점하기 위해서 더비경(卿) 목장에서만 번식 작업을 실시했고, 이후 국립씨수말목장이 번식을 담당하게 됩니다. 레스터 피갓(Lester Keith Piggott) 기수와 함께 영국 더비 컷 제패를 이룩한 이 말은 현역에서 12전 3승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선수가 반드시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훌륭한 경주마가 반드시 훌륭한 씨수말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한 번 리딩 사

Flying Continental 1986  
 다이코가든 1985  
 토오케이플리트 1983  
 토오케이호프 1976 ——— 토오케이니세이 1987

T.V.Commercial 1965 ——— It's Freezing 1972

Petong 1980 ——— Petardia 1990  
 Ahmad 1975 ——— Potrillazo 1982  
 Farnesio 1974  
 Moccito Guapo 1972 ——— Malek 1993  
 Lot o' Gold 1976  
 Nasty and Bold 1975  
 Olympio 1988  
 Star de Naskra 1975 ——— Carr de Naskra 1981

▲텐포인트 1973  
 타카후지미노루 1977  
 히카루이마이 1968  
 기타노다이오 1965  
 인터굿 1971

이어가 되기는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때문에 주위에서는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절묘했던 걸까요? 마침 일본이 네버세이다이 혈통의 집합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1967년에 2관마(冠馬) 히카루이마이가 해외원정의 꿈을, 1980년 1월 눈보라가 치는 닛케이신춘(日經新春)배에서 사라진 텐포인트 등이 탄생합니다. 네버세이다이의 손자 텐포인트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당시, 유럽은 물론이고 영국 사람들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맵에서는 스타 호스의 이름이 배 열되어 있는 한편,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 하나의 혈통이라도 이어갈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경마 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계통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 경마 계에 처음으로 뛰어 들었을 당시, 마츠야마 키치사부로(松山吉三朗) 마방에서 빨간 색상에 하얀 무늬가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레테라스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암말은 상당히 예뻐기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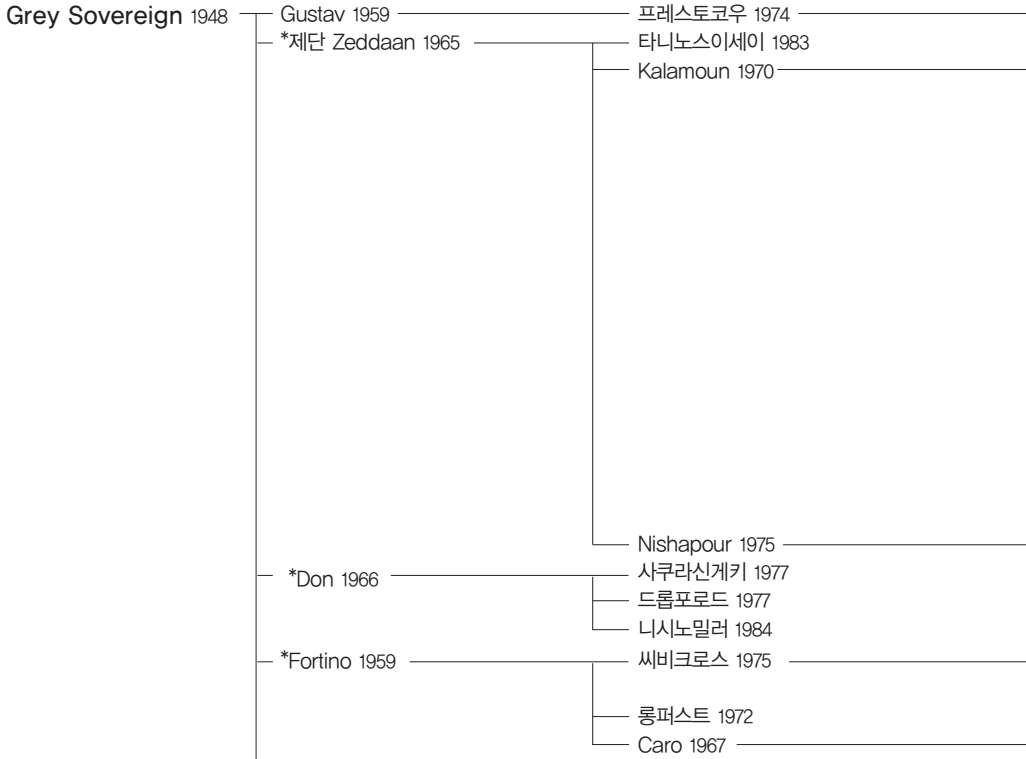
팬의 입장에서는, 경마장에 등장하는 말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말 생산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말에 대한 추억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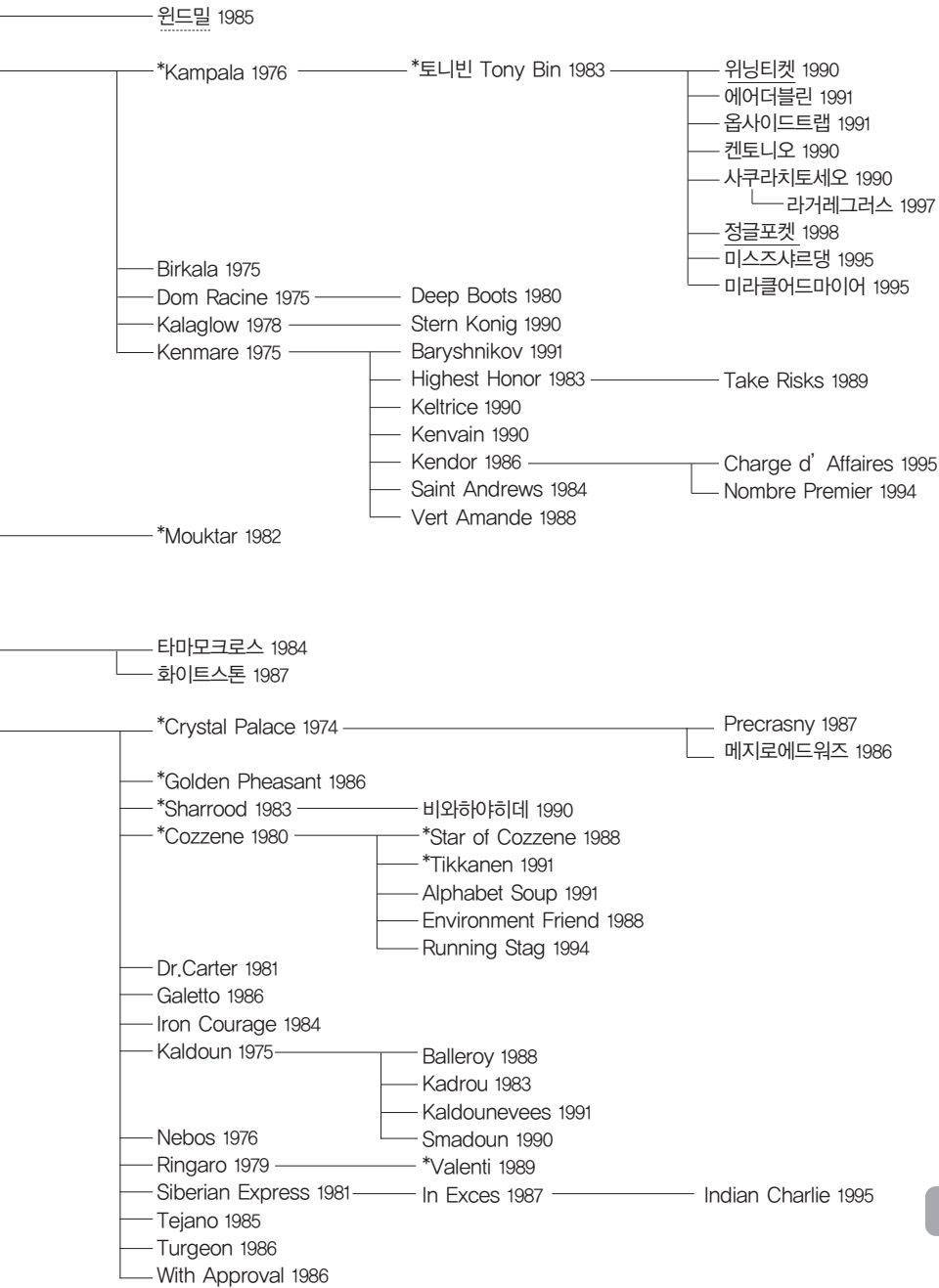
이 계통에 있는 토오케이호프, 토오케이니세이 그리고 그의 망이자들. 즉 NAR에서 활약한 히메카미, 후지에스니세이, 토오케이베스트, 쉘터 등이 전형적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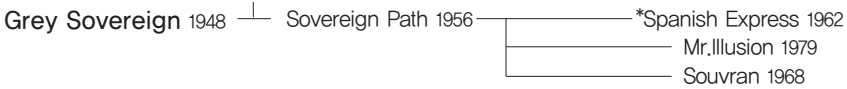


12

나스룰라(Nasrullah) - 그레이소버린(Grey Sovereign) 계







이 계통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은 애로익스프레스(Arrow Express)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 애로익스프레스(Arrow Express)를 둘러싼 수많은 드라마들이 있었죠. 「이제 모든 경마인들이 애로의 팬이 되었다. 그러니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수(騎手)를 태울 것이다!」라는 스승 타카마츠 산타(高松 三太) 조교사의 결단으로 제자인 시바타 마사토(柴田政人) 기수가 눈물을 머금고 물러났습니다. 그 일은 마사토 기수에게 있어서 더비를 향한 강한 집착이 됐고, 같은 그레이소버린계의 워닝티켓(父 토니빈)과 함께 승리의 과실을 맺습니다.

경주마로서의 애로익스프레스는, 거리라는 벽과 싸우면서 스피드를 무기로 타니노 무티에(Tanino Moutiers)에 맞서 많은 팬들을 확보합니다. 이후 씨수말이 되어 암말 2관의 테이타니아를 비롯해, 내국산인데도 장기간동안 리딩의 상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망아지인 리드윈더, 좋은 경주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시요노로만, 상킹하야테, 아라타마운더 등의 비말로서, 애로의 능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토니빈(Tony Bin)이 남긴 자마들, 01년 오크스(레디파스텔)와 더비, 재팬컵(정글포켓, Jungle Pocket)의 활약은 대단했었죠. 이 계통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단(Zedda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단은 70년대 활동이 가장 많고, 씨수말로서의 번창과 캐러문(Kalamoun)의 비말이 된 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캄팔라(Kampala), 토니빈(Tony Bin)과 그의 혈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탈리아 더비마와 프랑스 더비마가 배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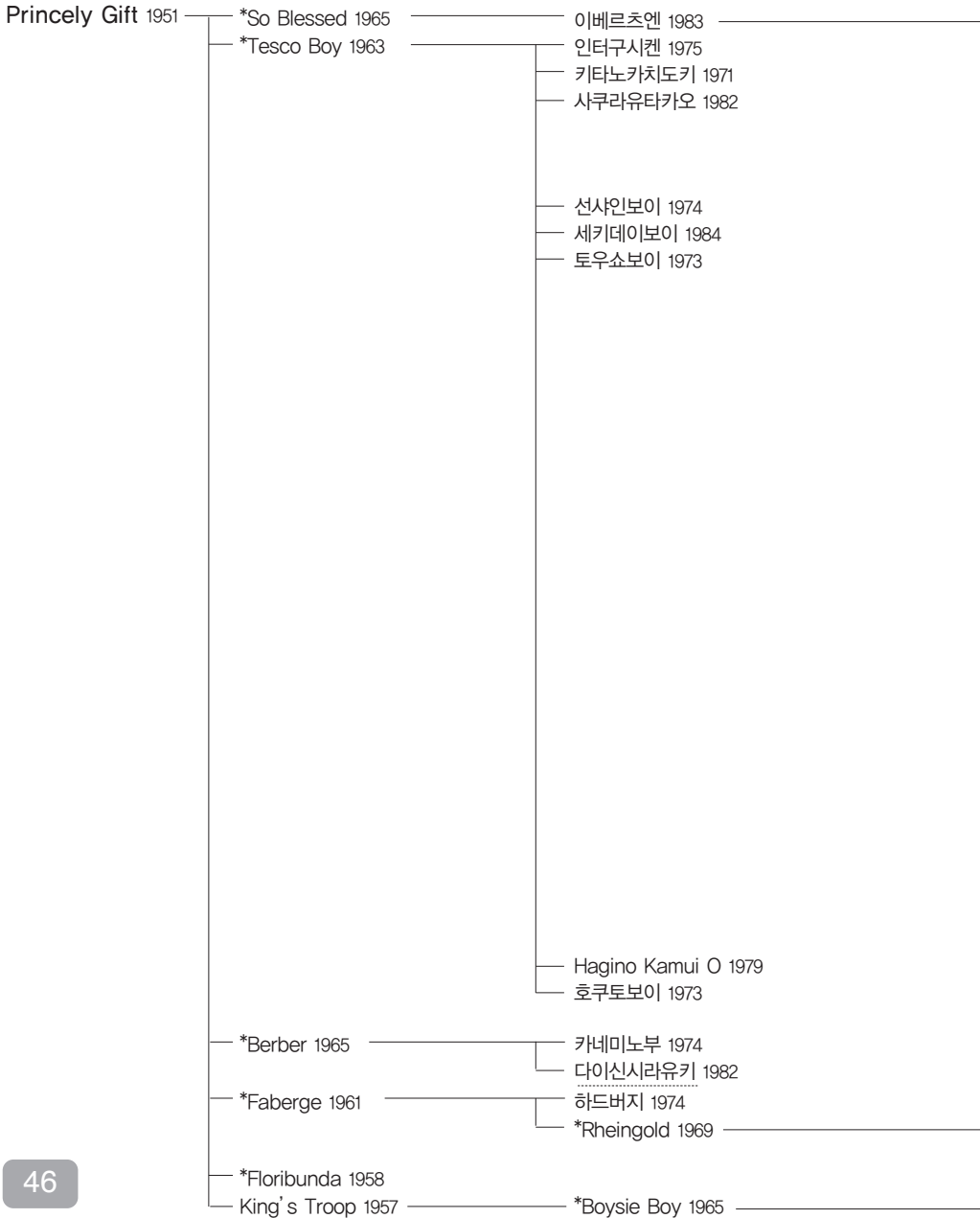
제단과 같은 패턴이 포르티노(Fortino). 이 포르티노가 먼저 일본에 들어오지만,

카로(Cano)를 생산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타마모크로스(Tamamo Cross), 화이트스톤(White Stone)의父 씨비크로스(C.B Cross)를 생산합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큰 주목과 동시에 독일에서 더비마를 배출, 캐나다(북아메리카와 미국과 비슷한 경마 수준)에서 2세 챔피언 등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과 대조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돈(Don)이죠. 특별하게 자랑 할 만한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불량주로, 단거리, 더트에 강함……. 그다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습니다만, 자마인 드롭포로드, 사쿠라신게키가 마일드 전후에서 활약합니다. 또한, 코진(Cozzene)의 자마 에이징코진(02년의 야스마기넵)등도 있습니다.

토니빈(Tony Bin)이 2000년에 사망하는데요, 그 가족의 교배두수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03년에는 정글포켓(BMS: Nureyev)도 추가됩니다.

	(BMS: Broodmare Sire)	00년	01년	02년
토니빈 Tony Bin		9	-	-
위닝티켓	(마르젠스키 Maruzensky)	61	63	96
에어더블린 Air dublin	(Nijinsky)	144	108	16
옵사이드트랩	(호스피탈리티 Hospitality)	42	40	12
켄토니오	(돈 Don)	12	11	3
사쿠라치토세오	(노던테이스트 Northren Taste)	89	65	60
미스즈샤르댕 Misuzu_chardin	(브레이브스트로만 Bravest Roman)	-	10	2
미라클어드마이어 Miracle Admire	(Sadler's Wells)	39	26	11



- 쇼우리텐코우 1984
- 카이라스아몬 1984
- Air Jihad 1995
- 사쿠라바쿠신오 1989 — 쇼난컵 1998
- 신코유타카 1997
- 다이나마이트대디 1988
- 스타선사인 1986
- 스테이트재규어 1981
- 아라비아아몬 1985
- 원도우스토스 1983
- 오구리토우쇼 1990
- 퀘스트포베스트 1990
- 사쿠라호쿠토오 1986
- 사쿠라로터리 1984 — 마이넬스마일 1991  
— 로치퀵 1992
- 산제우스 1988
- 세키테이류우오 1989
- 다이이치코우야 1987
- 다이이치보이 1984
- 다이젠킹 1980
- 토우쇼오리온 1993
- 토키오엘리먼트 1986
- 토키오단디 1988
- 노스토우쇼 1984
- 맥심보이 1987
- 미스터씨비 1980
- 마나가와빅토리 1980 — 아마닌글로벌 1987
- 모가미서전트 1985
- 모가미쇼운 1986
- 모가미챔피온 1985
- 아에노다이아 1985
- 런포에버 1986
- 류우즈이쇼우 1981
- 와이즈롤러 1984

- 후지노후우운 1981
- Noir et Or 1975

- 카츠라기에이스 1980 — 아플로핑크 1989

프린스리기프트(Princely Gift)계라면 「틀림없이 일본 경마에 적합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된 것은 테스코보이(Tesco Boy) 자마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1967년이 저물 때쯤에 수입되어, 씨수말 데뷔 첫 해부터 사츠키쇼(皐月賞) 우승마인 란도프린스를 배출하는 한편, 2년 후에는 기타노카치도키의 등장으로 리딩 사이어가 됩니다.

1975년에는 오까쇼(桜花賞)와 오크스의 2관을 차지하던 테스코가비(Tesco gaby), 그리고 천마(天馬) 토우쇼보이(Tosho Boy)가 사츠키쇼(皐月賞), 아리마기념에서 승리합니다. 때문에, 1976년에도 틀림없이 리딩 사이어 톱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벤처(Venture)의 자마인 크라이카이저(Climb Kaiser)가 더비를, 애로익스프레스(Arrow Express)의 딸 테이타니아가 오까쇼와 오크스를, 인터멧조(Intermezzo)의 아들 그린글라스가 기까쇼, 게다가 봄에 열린 텐노쇼(天皇賞)는 세인트크레스핀(Saint Crespin)의 자마인 에리모조지, 가을의 텐노쇼는 세단의 자마인 아이후루로, 한 해가 백화요란(百花?亂)의 시기(時期)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Constant에서 성적을 올린 파소롱(Partholon)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연 인기의 토우쇼보이(Tosho Boy)가 더비에서 패한 다음 날, 고삐를 잡았던 이케가미 마사히로(池上昌弘) 기수의 자택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자택에는 언론으로부터 길러온 전화로 북새통이었고, 대부분의 질문이「골인하기 전의 크라이카이저와의 교착(交錯)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자세한 내용은 출처(拙著)의「코바야시 코세이(小林皓正)의 경마 원더랜드」(코스모힐즈 발행)에 수록되어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선두로 달리고 있던 토우쇼보이(Tosho Boy)……. 4코너 직전에서 크라이카이저가 폭풍 같은 속도로 언덕을 질주합니다. 언덕 위에서 혼신의 채찍을 당하던 안쪽의 토우쇼보이! 순간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그 기회를 놓칠소냐! 바깥쪽 크라이카이저가 재빨리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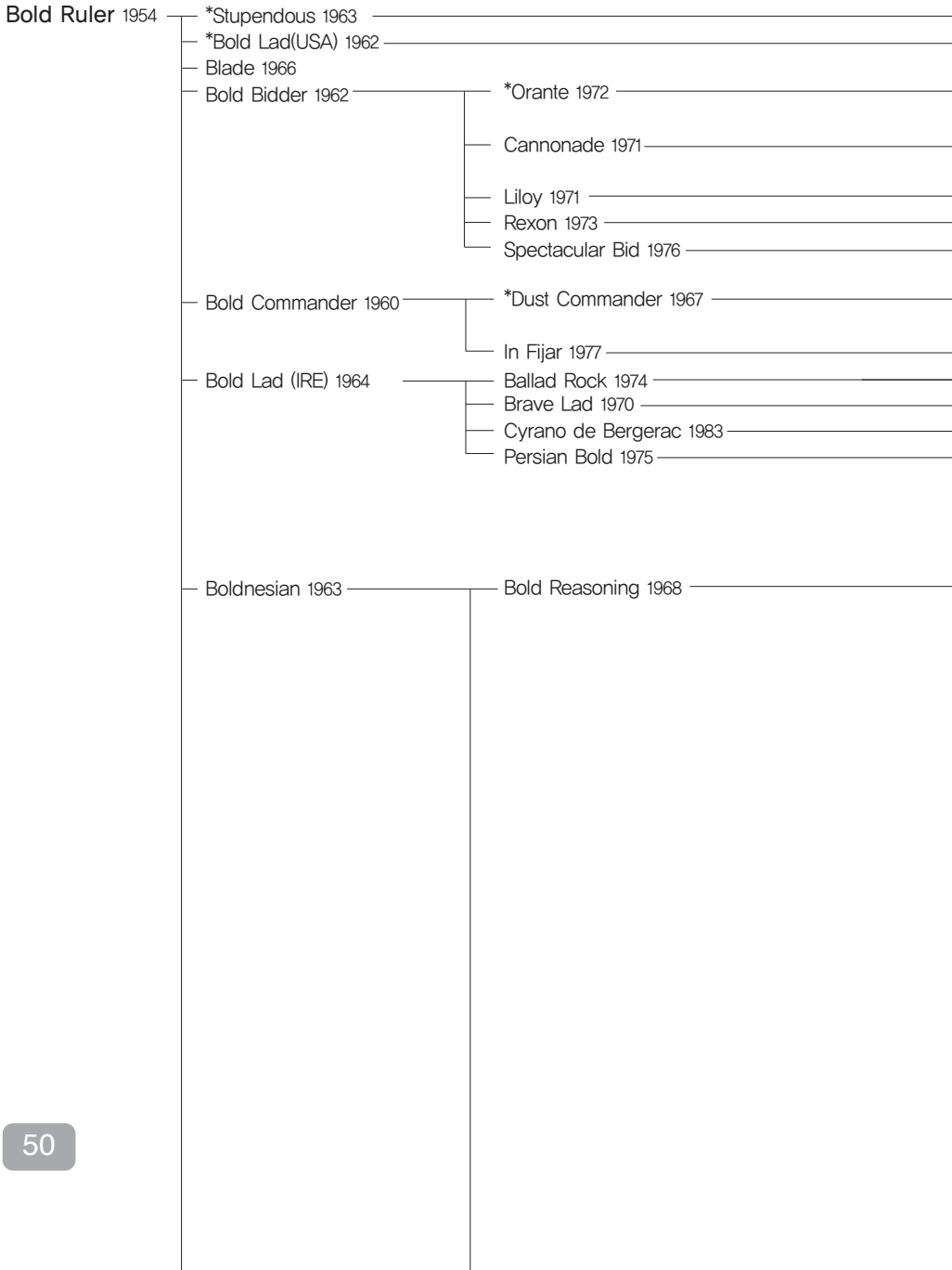
「크라이카이저가 너무 빨리 안쪽으로 들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왼쪽 채찍이 들어갔던 것과, 카이저가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타이밍은 거의 동시였기 때문에 불리함을 당하지는 않았다.」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게다가, 크라이카이저를 기승했던 카가 타케미(加賀武見) 기수 또한 「이케다 씨의 실수는 없었다. 내가 토우쇼보이를 탔더라도 언덕에서 똑같이 채찍을 가했을 거다.」라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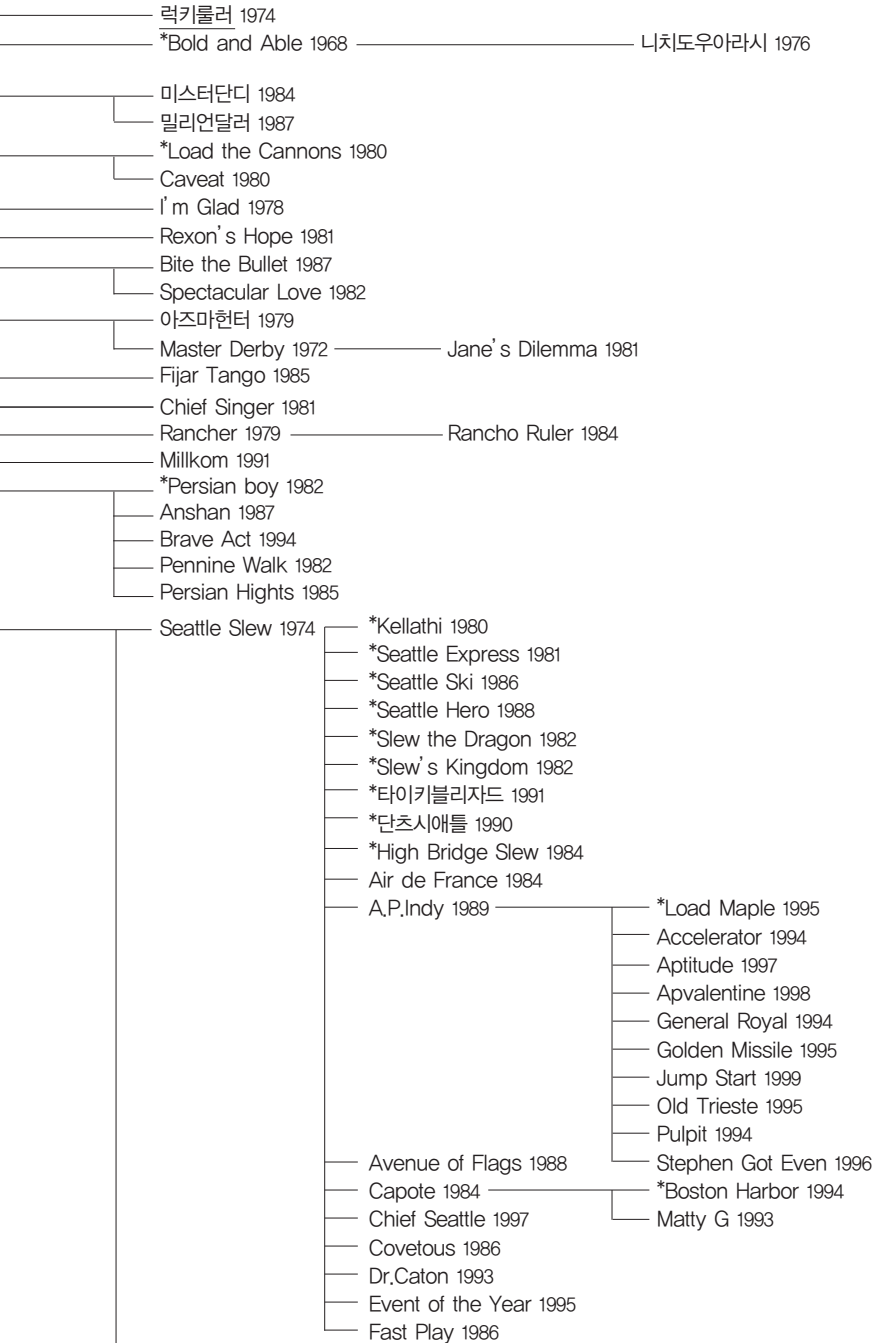
하더군요.

경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더비는「운(運)이 강한 말이 승리한다.」라는 옛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레이스였습니다.

토우쇼보이(Tosho Boy)는 신디케이트(Syndicate)가 아닌, 히다가경종마농업협동조합(日高輕種馬農業協同組合) 소속의 씨수말이 됩니다. 거긴 교배할 암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죠. 조합에 소속된 생산자가 직접 암말을 희망하여도, 교배 예정 두수가 넘으면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경주성적을 올린 암말 혹은 어미로서의 훌륭한 조건을 가진 말만을 선택받을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우쇼보이(Tosho Boy)는 씨수말로서의 사명감을 발휘합니다. 스피드와 훌륭한 저력을 가진 자마들의 경기성적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리딩 사이어 뿐만 아니라 언제나 베스트10 순위권에 자리 잡고 있죠. 또한, 평생 라이벌이었던 텐포이트와 똑같은 제염염(蹄葉炎)에 걸린 것도 깊은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이 내리던 1월의 닛케이신문(日經新聞)배, 그 때 세상을 떠난 텐포이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토우쇼보이는 아직 후세를 남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는 내국산, 3관마 미스터씨비(Mr.C.B)를 시작으로 사쿠라로터리, 사쿠라호쿠토우등을 배출합니다. 미스터씨비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후세를 남기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수많은 딸들이 훌륭한 어미가 되어 지금에도 토우쇼보이의 혈통은 브루드메어 사이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스코보이(Tesco Boy)의 혈통을 계승하는 역할은 텐노쇼말인 사쿠라유타카오가 맡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사쿠라바쿠신오(스프린터스 S)의 자마 쇼난컵이 02년 다카마츠노미야 키넨(Takamatsunomiya Kinen)을 제패, 내국산이 3대 연속으로 GI 우승마를 탄생시킨 위대한 위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들어 온 테스코보이 이외의 프린스리기브트계의 씨수말들도 좋은 기록을 세웁니다. 바버(barber)는 아리마기념에서 카네미노부, 개선문상의 라인골드를 배출한 후에 온 파베제(Faberge)는 사즈키쇼의 하드버지(Hard Berge)를 배출합니다. 손자 격인 보이즈보이(Boysie Boy)는 일본말 중에서 처음으로 재팬컵을 제패한 카츠라기에스의 아비입니다. 일본의 주로와 경마에 대한 순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가능성 있는 후계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Bold Ruler 1954

Boldnesian 1963

Bold Reasoning 1968

Bold Ruckus 1976

Chieftain 1961

Fit to Fight 1979

Dewan 1965

Glitterman 1985

Irish Castle 1967

Bold Forbes 1973

Irish Tower 1977

Jungle Cove 1966

Bush Telegraph 1983

Key to the Kingdom 1970

Raja Baba 1968

\*Side Chapel 1982

\*Junius 1976

\*Louisville Summit 1980

\*Royal Ski 1974

Ayman 1980

Far Out East 1977

Is It True 1986

Well Decorated 1978

Reviewer 1966

Isopach 1977

Secretariat 1970

아스트로게이트 1989

\*타에이치아트 1986

\*히시마사루 II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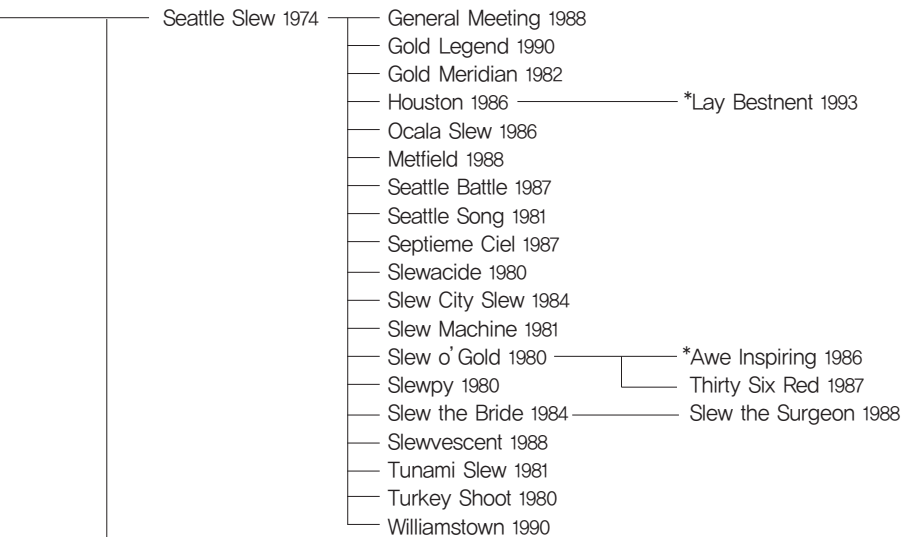
아마닌스팩굴러 1980

Academy Award 1986

Cinco Grande 1979

D' Accord 1979

General Assembly 1976



Super Concorde 1975 — Aaron's Concorde 1984  
 — Big Shuffle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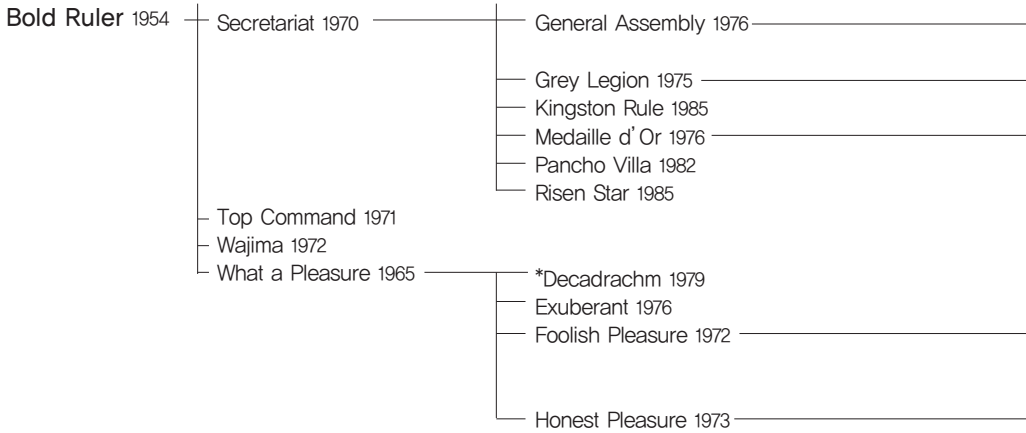
Beau Genius 1985  
 Bold Revenue 1984

Air Forbes Won 1979  
 Irish Open 1984  
 Palay Me 1985

와카오라이덴 1981

Yes It's True 1996  
 Notebook 1985 — Delaware Township 1996

\*On Your Side 1986  
 \*Generalization 1982



볼드룰러(Bold Ruler)의 탄생은 1954년이죠. 이 세대(세대)는 금세기 최고의 멤버 들로 구성된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멤버들을 경주성적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Preakness Stakes) 등에서 승리한 볼드룰러(Bold Ruler)는 33전 23승, 켄터키 더비마인 아이언리지(Iron Liege)는 33전 11승, 그 이후 일본에 수입된 아리마기념의 스트롱에이트 등의 아버말입니다.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갤런트맨(Gallant Man)이 26전 14승. 워싱턴버스테이H에서 일본말 하쿠치카라가 라운드테이블에게 이겨 해외 원정에서 첫 우승을 합니다. 당시, 라운드테이블은 63전 43승으로 세계상금수득마였습니다. 노던댄서(Northern Dancer)의 아버말인 니아크틱(Nearctic)은 47전 21승. 이 동(同)세대에서 활동한 5두의 말의 우승 횟수만도 112승이나 됩니다.

볼드룰러(Bold Ruler)의 자마로서 벨몬트 S에서, 2위와 21마신차를 벌려 멋지게 승리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시크릿태리엇(Secretariat). 1973년 미국 3관마가 되지만, 씨수말이 되어서는 무사태평한 삶을 보내지 못합니다. 때 아닌 슈퍼호스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同 라인이면서 1977년 3관마인 시애틀슬루(Seattle Slew)가 바로 주인공이죠. 결국 씨수말로서의 성적은 시애틀슬루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 시애틀슬루(Seattle Slew)의 자마가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씨수말이 된 단츠시애틀(Dantus Seattle, 01년에 아오모리현 시치노에로 이관)과 1살 아래인 타이키블리자드입니다. 타이키블리자드는, 빠르게는 첫 해부터 핫카이드 소속이면서 샷포르

Genereux Genie 1984  
Presidium 1982  
French Legionaire 1981

Tour d'Or 1982

\*Royal Troon 1982  
Marfa 1980 ————— Farma Way 1987  
Maudlin 1978  
\*Judge Angelucci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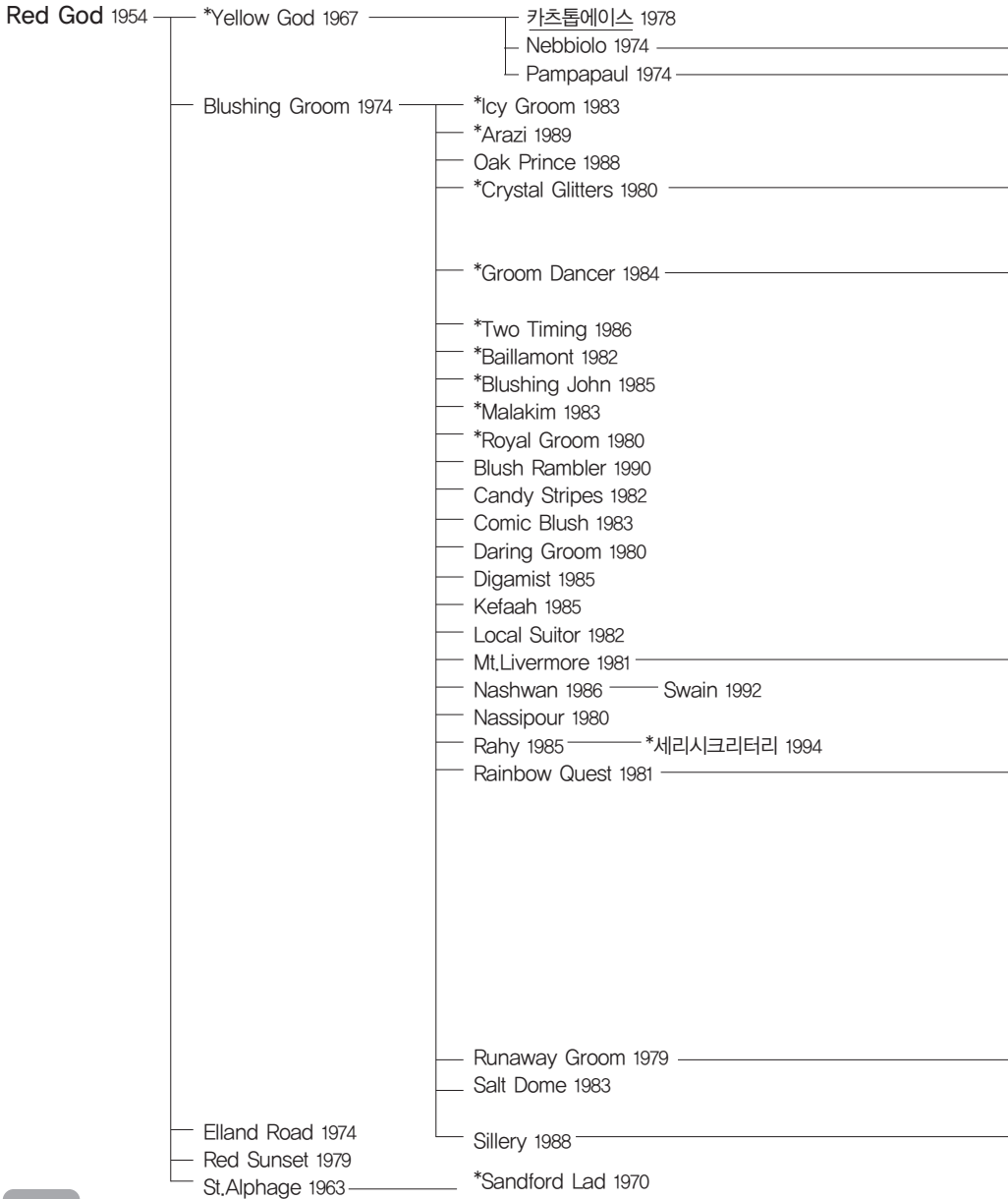
2세 스테이크스의 야마노블리자드(01년 11년에 후지사와 카즈오의 마방으로 육김)를 진출시킵니다.

이 라인에서 일본 클래식이라 하면, 사즈키쇼의 아즈마헌터가 있죠. 그의 아버지 덤스트커맨더(Dust Commander)는 일본 씨수말생활 6년이며, 이후 미국의 요청에 의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02년 가을, 34년이란 노장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라자바바(Raja Baba)는 와 카오라이텐(父 로열스키 Royal Ski) 덕분에 지금까지도 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예전에 제가 여러 자료를 찾는데 조금 힘들었던 씨수말 중 1두입니다.

대서양의 양측에서는, 이 2두의 자마 볼드래드(Bold Lad)라는 말이 화제가 됩니다. 미국산과 아일랜드산이며, 철자도 똑같은 Bold Lad입니다. Bold Lad(USA)의 손자가 니치도우아라시이며, 아일랜드의 손자가 페르시안보이(Persian Boy)입니다.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혈통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미국 계통이 더트 혈통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울러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은 NAR(지방경마전국협회) 출주마입니다.

JRA(일본중앙경마회)에서도, 친자인 스투펜더스(Stupendous)의 자마(볼드룰러계)에서 굉장한 녀석이 출현합니다. 1977년의 일본 더비마인 럭키룰러입니다. 550Kg라는 거대한 몸짓을 이끌고 골인하는 순간, 승부는 힘! 이라는 표현을 뿔어내듯 엄청난 괴력을 구사합니다.



Superlative 1981

Pampabird 1979 ————— Subotica 1988

아부쿠마플로 1992

티엠정보 1991

마치카네후쿠키타루 1994

Kabool 1995

Pursuit of Love 1989

\*Housebuster 1987 ————— \* 미드나잇베드 1944

Subordination 1994

\*Armiger 1990

\*Croco Rouge 1995

사쿠라로렐 1991

\*Sunshack 1991

\*Splash of Colour 1987

Bin Ajwaad 1990

Panoramic 1987

Quest for Fame 1987

Saumarez 1987

Spectrum 1992

Cherokee Run 1990

Down the Aisle 1993

Wekiva Springs 1991

Silic 1995

티엠오페라오(T.M. Opera O), 마야노톱건, 램타라(Lammtarra), 야마닌제퍼(Yamanin Zephyr), 타이키엘도라도(Taiki ElDorado), 카야지(Kahyasi)…….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브루드메어 사이어(외조부마)가 모두 블러싱그룸(Blushing Groom)이라는 점이지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계열이 바로 이 계통입니다. 일본과의 인연도 상당히 있는 편이지요.

1981년의 사츠키쇼(皇月賞), 그리고 더비와 명기수인 오오사키 쇼이치(大崎昭一)씨의 절묘한 페이스로 완벽한 도주형 말이었던 가스톱에이스는 레드갓의 자식말인 옐로우골드의 자마입니다.

레인보우퀘스트(Rainbow Quest)의 혈통에는 사쿠라로렐(Sakura Laurel), 크리스탈글리터즈(Crystal Glitters), 마치카네후쿠키타루, 아부쿠마포로……. JRA과

NAR 양쪽 모두에서 GI마가 된 경우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생큐하울러(Thank You Howler)도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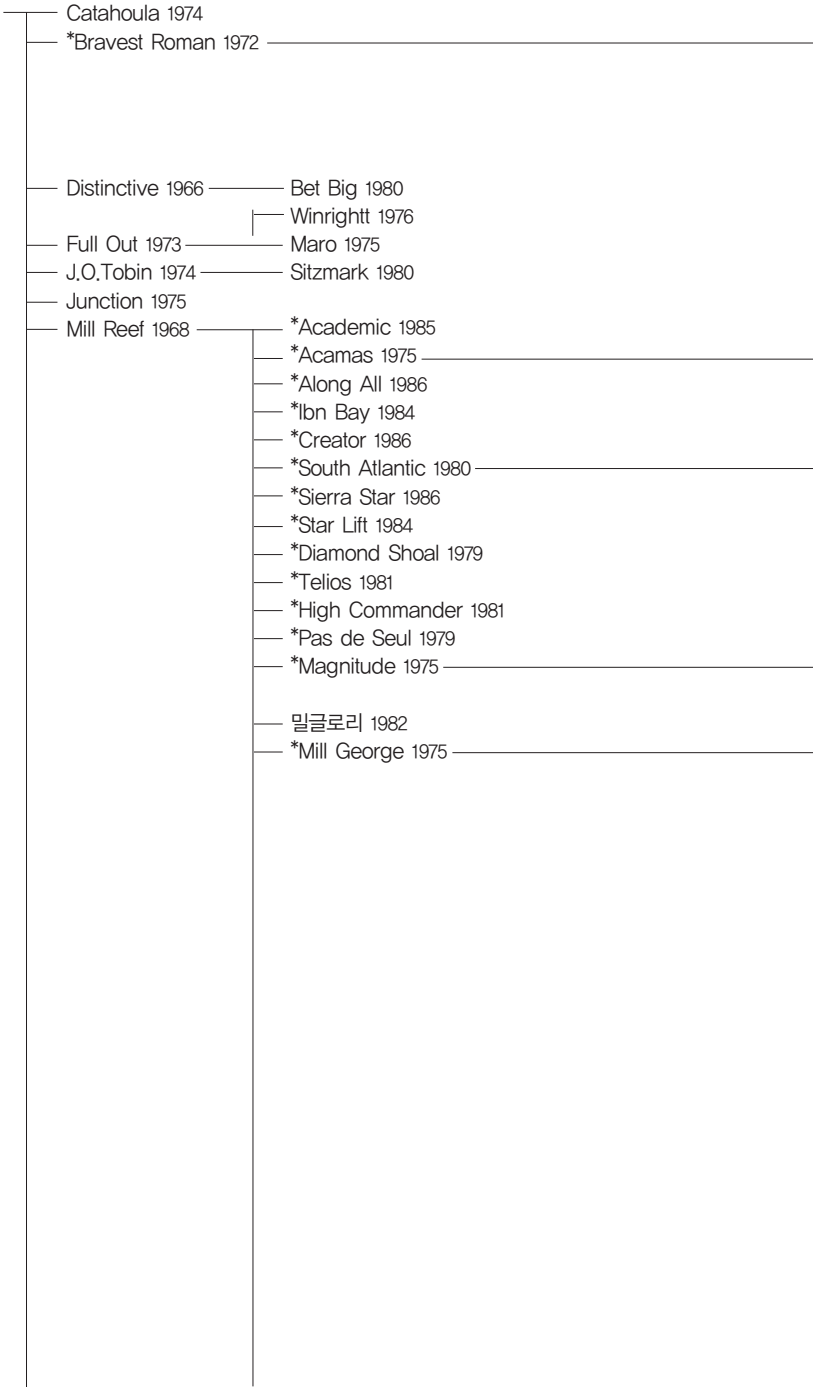
아이시그룸(Icy Groom)에 이나즈마타카오, 그룸댄서(Groom Dancer)에 에어자이온과 메탈컬러, NAR의 이즈미카츠류!

그리고 숲유럽 스프린트챔프의 퍼스트오브라브, 아라지(Arazi)에 드렐아라비안, 라이에는 글래스월드, 미드나이트헤드의 아비말하우스버스터(Housebuster)도 이 계통에 속합니다.

이름만이라도 말씀드리자면, NAR에는 블러싱존(Blushing John)의 자마 세토노 울트라, 선샤크(Sunshack)의 자마인 마츠리다사브로우 등이 있죠.



Never Bend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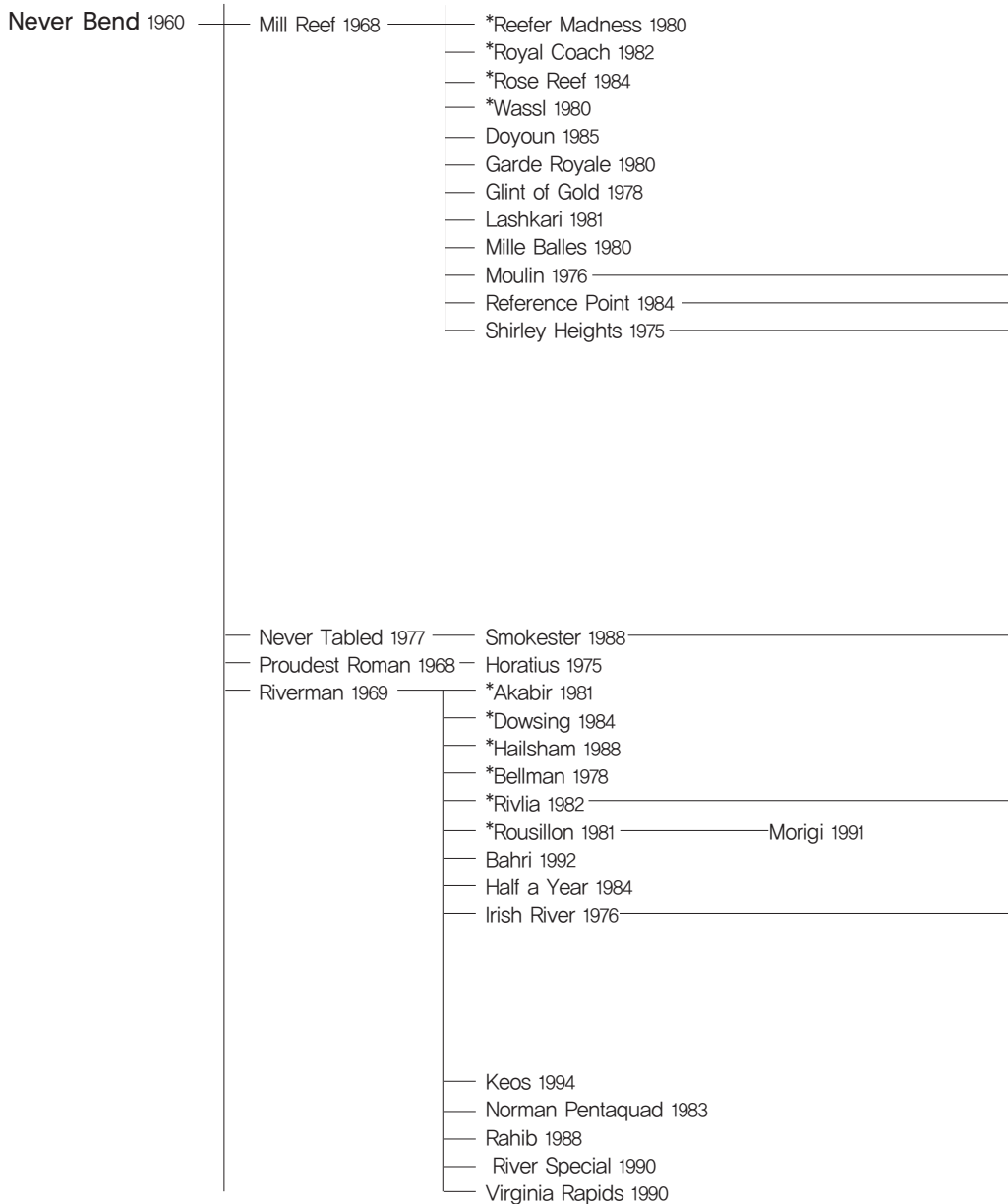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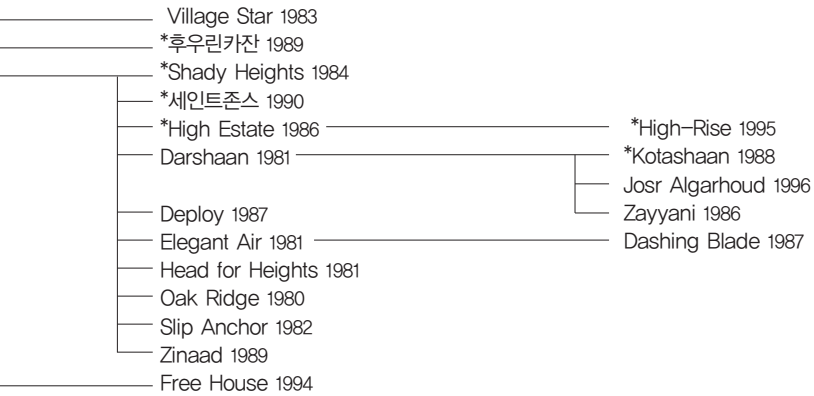
- 오사이치브레베스트 1984
- 칼리스타글로리 1988
- 그레이트로만 1981
- 사쿠라스퍼트 1983
- 히카리피어 1982
- 후지노마켄오 1991
- 마루부츠스피리어 1986
- 메이쇼호무라 1988
- 랜드쇼잔 1988
- 랜드히류우 1982
- 로만프린스 1981
- 모가미리프 1987

- 아즈마이스트 1987
- 사우스로드 1991
- 마루부츠세카이오 1990

- 코가네파워 1988
- \*마사력키 1993
- 미호노버번 1989
- 유우토오세이 1990

- 이나리원 1984
- 워닝웨이 1991
- 에이신스이세이 1989
- 에비스조지 1981
- 오사이치조지 1986
- 시나노조지 1983
- 조지타이세이 1992
- 조지모나크 1985
- 조지렉스 1984
- 스파트후러 1988
- 스파그라서드 1982
- 해피기네스 1986
- 호쿠소우코마 1987
- 미스터시크레논 1985
- 밀코지 1982 ————— 센트릭 1993
- 모가미야시마 1984
- 야시마소브린 1991
- 유토조지 1987
- 유와포르테 1985
- 로지타 1986 · 암
- 로치타이거 1981





나리타타이신 1990



자식인 밀리프(MillReef)의 자마 매그니튜드(Magnitude)는 스피드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호노브루혼에게도 스피드의 벽이 있을 터! 이라는 의견이 강했었죠. 하지만 주위의 의견 따위를 발로 걷어차기라도 하듯 3관이 걸린 기가쇼(菊花賞)에서 멋지게 2위로 골인합니다. 故 토야마 메오(戸山為夫) 조교사는 「더러브렛은 사람처럼 인사이동(人事移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숨을 연명시키는 겁니다. 우리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부응했던 것도 미호노브루혼이죠.

요즘엔, 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말…… 라는 핑계로 좋은 성적을 가진 녀석들끼리 교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매그니튜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인 밀리프는 1971년에 영국 더비마, 그리고 어미는 같은 해의 영국 오크스마인 알테스로알(Altesse Royale)입니다. 그런데 왜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 덧붙이면, 밀리프(Mill Reef)에서 셜리하이츠(Shirley Heights), 그리고 슬립앵커(Slip Anchor)에 걸쳐, 이렇게 親→子→孫 3대가 모두 영국 더비마입니다.

계다가 여기에는 NAR 동경 더비 우승마들도 보이네요. 그것도 밀조지(Mill George)가 있는 곳에 이름들이 실려 있습니다. 유럽 계통이면서「더트는 나한테 맡겨!」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루션(Rousillon)의 자마인 인테리파워, 파라다이스크리크(Paradise Creek)의 자마 카네츠흔브도 그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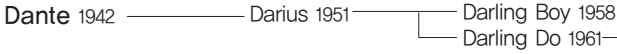
이 계통도에는 씨수말밖에 실려 있지 않아서 브레스트로만(Bravest Roman)이라

는 이름이 없지만, 그는 훌륭한 암말을 배출합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캐나다오크스에서 우승한 퍼스트섬머데이와, 일본에 온지 첫 해에 오크스마(1984년)가 된 토카이로만, 그리고 초카이케를 등을 배출합니다. 리버맨(Riverman) 계통에서도 리브리어(Rivlia)가 나리타타이신, 와코치카라 등을 배출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하나, 파도스르(Pas de Seul)의 자마가 1·2위를 했던 GI경주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1992년에 열린 엘리자베스여왕배(1위-타케노벨벳, 2위-메지로칸무리 Mejiro Kanmuri)입니다. 메지로칸무리가 여름 니가타(新潟)에서 강력한 유력 후보가 되었을 당시, 메지로칸무리의 마쓰야마 야스히사(松山康久) 조교사와 몇 번인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쪽에 강한 파도스르가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묻더군요. 레이스 직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서쪽에 강한 파도스르가 있다는 것은 타케노벨벳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그 조교사가 가진 정보력에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도스르의父 밀리프(1968년생), 이 밀리프의 딸 컬링(Curling)이 1995년의 프랑스 오크스에서 우승합니다. 민첩한 결정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티프하면서도 건강한 체격이 이 계통의 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02년 영국 1000기니와 오크스를 연패(連覇)한 카지아(Kazzia)는 지나드(Zinaad)의 자마입니다.



이클립스(Eclipse)나 벡패서(Buckpasser)를 위한 코너라면 단테(Dante)의 혈통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단테부터 소개하죠. 단테(Dante)란, 더비, 미들파크 S(Middle Park S)등에서 8승을 기록한 경주마입니다. 자마로는, 2000기니의 다리우스(Darius), 오크스(Oaks)의 카로더 등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익숙함이 있는 오까쇼마(馬) 닛토치도리 등, 父 다라노아(Darannour)의 블러드사이어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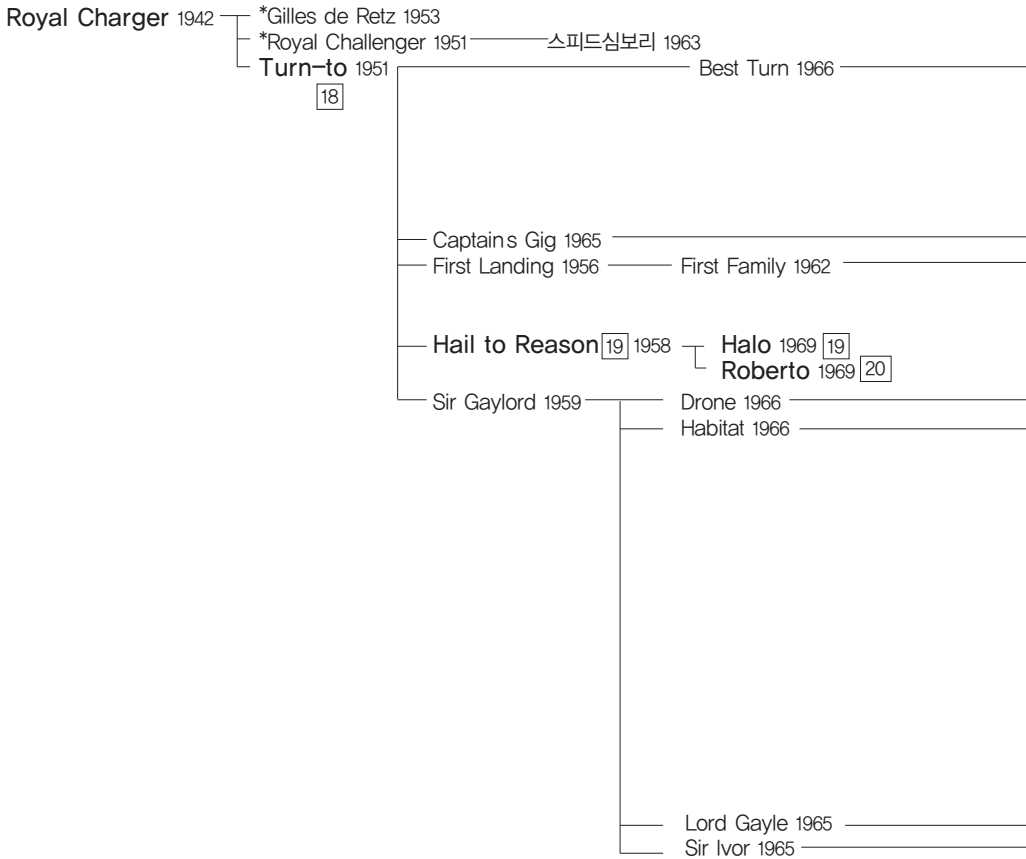
이 계통에 있으면서 사츠키쇼(皐月賞)마인 다이나코스모스는, NAR(일본지방경마 전국협회)에서 승리한 적이 있는 호우에이코스모스의 아버지입니다. 해외에서는 톱빌(Top Ville)에 아일랜드 오크스의 프린세스파디, 프리모도미니에(Primo Dominie)가 미들파크 S의 프리모발렌티노의 아버지입니다. 01년 트롯샌더는 2세경주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북해도 경마에서 데뷔씨수말 우승마 제1호를 배출해 화제가 됩니다.





18

로얄차저(Royal Charger) - 턴투(Turn-to) 계





원래라면 로열차저(Royal charger)계로 다룰 생각이었으나, 따로 정리하면 후세를 기록하는데 좋을 거라 생각되어 별도의 턴투(Turn-to)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턴투(Turn-to)는 1951년생으로 네버세이다이(Never Say die)와, 그리고 일본에서는 골든웨이브 등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경주성적은 홀라밍고 S 등에서 6승. 자마로는 헤일투리즌(Hail to Reason) 외에, 더비와 2000기니 등에서 승리한 서아이버(Sir Ivor), 전(全)유럽 챔피언 마일러인 해비태트(Habitat) 등의 아비 서게이로드(Sir Gaylord)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군데로 파트를 분리해 두었으며, 나머지 2군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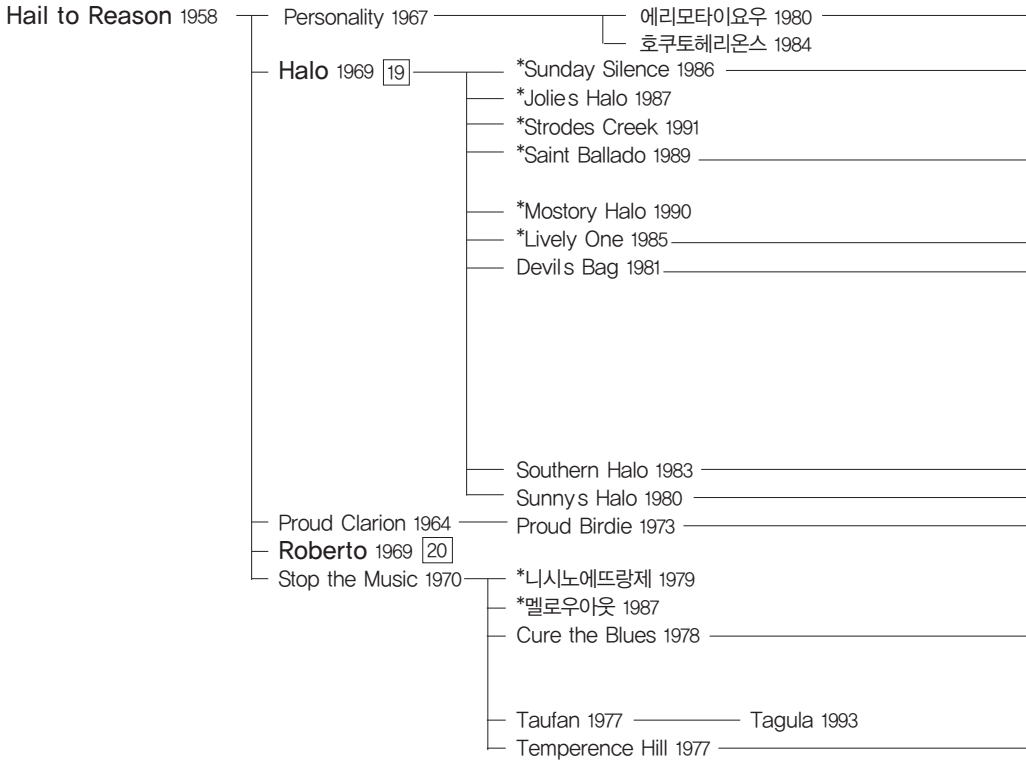
우선은 퍼스트랜딩(First Landing), 자마인 퍼스트패밀리(First Family)는 시크릿테리엇(Secretariat)의 동생입니다. 이 라인은, 주위로부터 굉장하다!~ 라는 감탄을 받을 기회가 많았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자마인 호요보이입니다. 호요보이는 아리마기념을 제패하고, 이듬해 1981년에는 아직 텐노쇼(天皇賞) 봄과 동일한 3200미터(텐노쇼, 가을)에서 승리합니다. 같은 해 아리마기념

에도 도전하여 많은 기대를 받은 씨수말의 하나가 되지만, 씨수말 데뷔 단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같은 아버지의 코토노아사부키가 쿠라카게오, 소옴테키 등을 배출한 만큼, 좀 더 긴 씨수말활동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게이로드(Sir Gaylord)에서 해비태트(Habitat), 그 뒤의 스틸하트로 이어지는 계통입니다. 역시 마일노선(路線)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빠른 스피드가 절대적인 만큼, 그 능력을 잘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한편, 해비태트(Habitat)와 다른 계통으로는, 로드게일부터 캐롤하우스에 걸쳐 기력 충만한 멤버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개선문상마(凱旋門賞馬)인 캐롤하우스는, 일본보다 유럽경기 스타일에 더 어울린다는 판단 하에 다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자빌(Zabeel)은 오세아니아에서 옥타고날(Octagonal), 랜드윅(Randwick), 스카이하이츠 등의 아버가 됩니다.

호주의 여성기수 로셴로켓이 기승(騎乘), 외국여성기수로서는 처음으로 일본대상에서 승리한 나까야마 대장애물의 세인트스티븐(St.Steven) 및 홀라타운(Hula Town)의 이름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헤일투리즌(Hail to Reason)에는, 87년 재팬컵(Japan Cup)에서 우승한 르글로리 욱스(Le Glorieux)가 있습니다. 아래는 당시의 경주 로테이션입니다.

09월 06일	바덴대상(독일)	4위	2400m
09월 27일	유럽상(독일)	2위	2400m
10월 24일	맨오워(미국)	2위	2200m
10월 30일	워싱턴D.INT.(미국)	1위	2000m
11월 29일	재팬컵(일본)	1위	2400m

와카쿠사호마레 1989

Captain Bodgit 1994

Flame Thrower 1998

Yankee Victor 1996

Answer Lively 1996

\*타이키셔틀 1994

\*Diablo 1987

\*파이브나카야마 1991

Bag 1989

Devil His Due 1989

Kerosene 1986

Twilight Agenda 1986

More then Ready 1996

Irgun 1991

Birdonthewire 1989

\*Never Better 1984

American Chance 1989

Le Glorieux 1984

Take Me Out 1988

\*Temperate Sil 1984

아일랜드킹 1996

아그네스카미카제 1993

아그네스타키온 1998

아그네스플라이트 1997

아사쿠사고프르 1992

어드마이어베가 1996

어드마이어보스 1997

이시노선데이 1993

위즈덤 1996

에어저스티스 1992

에이신선데이 1993

에쿠스콩코드 1994

킹오브다이하 1992

케이아이메가울프 1997

사일런스스즈카 1994

사일런스호러 1993

사일런스햄터 1993

사쿠라케이잔오 1993

서머서스픽션 1992

선데이웰 1992

선데이즈쇼우 1992

선데이브런치 1992

선플레이스 1995

제뉴인 1992

스테이골드 1994

스페셜위크 1995

다이타쿠사장 1992

타야스츠요시 1992

댄스인더파크 1993

단초사일런스 1993

치어스사일런스 1993

뉴잉글랜드 1997

버블감페로 1993

빅선데이 1994

비콰이어트 1992

후지키세키 1992

후지선데이즈산 1995

블랙텍시도 1996

맥신티라이 1995

맥스앤서 1997

마블러스선데이 1992

메이쇼우오도 1995

메지로디자이너 1994

유우키선데이 1992

유우토카이저 1994

린덴패션 1997

로알터치 1993

로젠커버리 1993

체중은 겨우 410kg, 11월5일에는 대체마(대替馬)로서 일본경기에 출전했으나, 시차(時差)문제라든지 장거리 운송의 핸디캡 따위는, 르글로리옥스(Le Glorieux)에게는 남의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데이사일런스(이하 “SS”)에 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래의 실적 데이터를 직접 보시면서 감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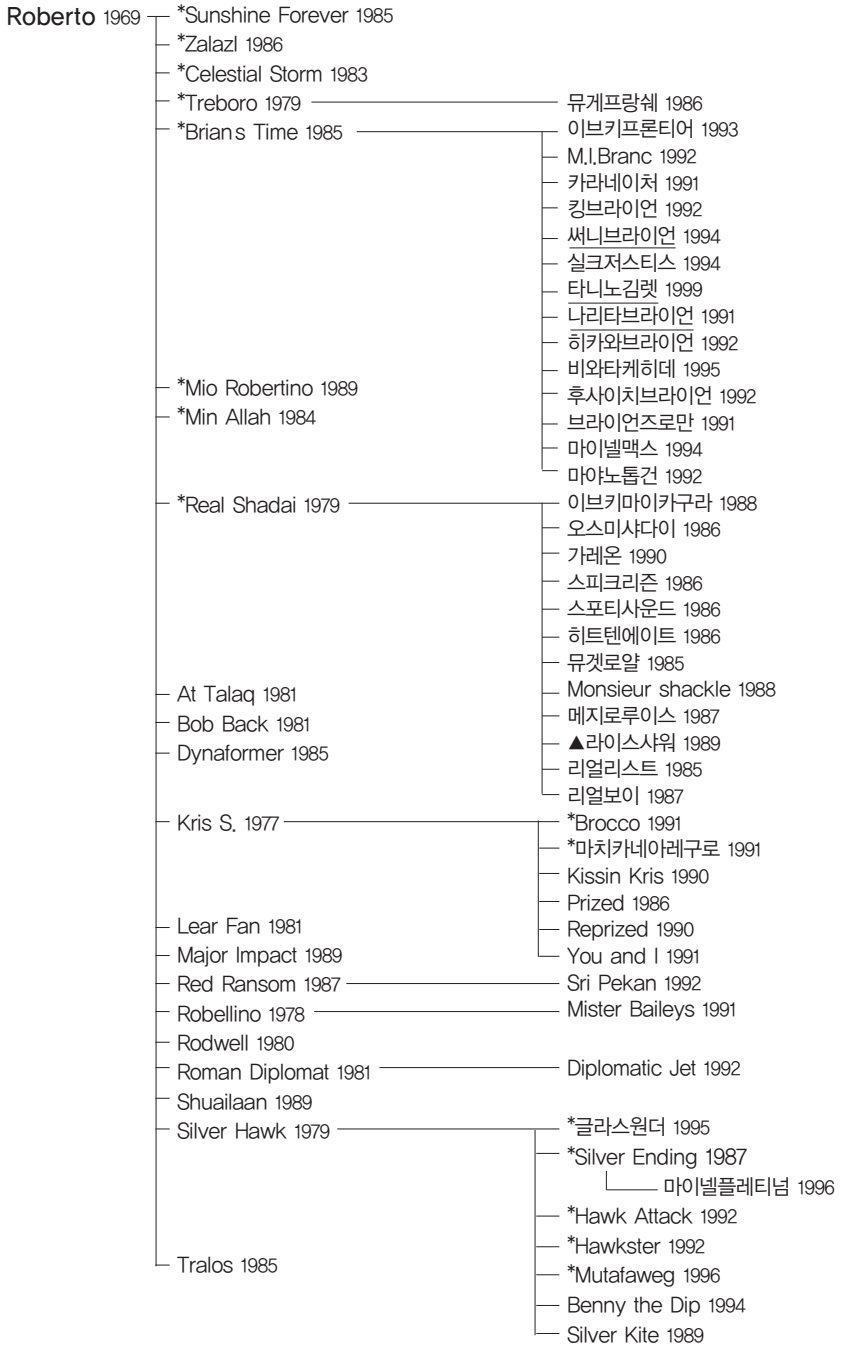
연간최다승 261승 (01년) 238승 (00년) 의 기록을 갱신  
 연간대상최다승 25승 (00년)  
 연간최다상금획득 66억 5518만 5000엔  
 9년 연속 G1제패  
 5대클래식 완전 제패  
 일본 더비 3연패  
 JRA통산 1537승 (NAR은 336승)

그리고 SS 자신 및 아들들의 교배 두수도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브루드메어 사이어)	00년	01년	02년
선데이사일런스 Sunday Silence		197	218	159
아이랜드킹 (리퍼 Lypheor)		-	-	10
아그네스카미카제 (노던테이스트 Northern Taste)		31	41	42
아그네스타키온 (로얄스키 Royal Ski)		-	-1	99
아사쿠사고프르 Asakusa Gaufre (노던테이스트 Northern Taste)		15	14	7
어드마이어베가 Admire Vega (토니빈 Tony Bin)		-	145	183
어드마이어보스 Admire Boss (토니빈 Tony Bin)		-	-	137
이시노선데이 (Alydar)		49	57	43
위즈덤 Wisdom (토우쇼보이 Tosho Boy)		-	-	12
에어저스티스 Air Justice (노던테이스트 Northern Taste)		-	-	9
에이신선데이 Eishin Sunday(노서리 Northerly)		164	145	108
에쿠스콩코드 (토우쇼보이 Tosho Boy)		13	7	8
킹오브다이어 King Of Dia (밀조지 Mill George)		-	4	6
케이아이메가울프 (Secretariat)		-	-	1
사일런스호러 Silence Hauler (Caerlean)		-	-	4
사일런트헌터 Silent Hunter		-	-	61

사쿠라케이잔오 Sakura Keizan O (파소롱 Partholon)	13	25	20
서머서스피션 Summer Suspicion (노던테이스트 Northern Taste)	79	69	-
선데이웰 (실버샤크 Silve Shark)	21	9	18
선데이즈쇼우 (니진스키 Nijinsky)	-	2	4
선데이브런치 (Secretariat)——선플레이스 Sunplace (토니빈 Tony Bin)	-	-	7
제뉴인 Genuine (What Luck)	178	155	93
스테이골드 Stay Gold (딕터스 Dictus)	-	-	177
스페셜위크 Special Week (마르젠스키 Maruzensky)	147	167	211
다이타크서전 (테스코보이 Tesco boy)	-	15	6
더블유어호리데 (Nodouble)	-	-	1
타야스초요시 (Caro)	159	91	100
댄스인더다크 Dance In The Dark (니진스키 Nijinsky)	206	202	200
단츠사일런스 Dantsu silence (피디온 Fidion)	-	7	7
치어즈사이런스 (노서리 Northery)	27	24	22
뉴잉글랜드 (Chief's Crow)	-	-	79
버블감페로 (리파드 Lyphard)	182	209	151
빅선데이 Big Sunday (토우쇼보이 Tosho Boy)	-	44	56
비콰이트 Be Quiet (노던테이스트 Northern Taste)	-	-	1
후지키세키 Fuji kiseki (Le Fabuleux)	206	225	213
부지선데이즈산 (파소롱 Partholon)	-	4	2
블랙턱시도 Black Tuxedo (Storm Cat)	-	-	155
맥심트라이 Maxim Try (밀조지 Mill George)	-	6	5
맥스앤서 (Gold Alert)	-	-	7
마블러스선데이 Marvelous Sunday (바이스리갈)	81	89	105
메이쇼오오도 (리파드 Lyphard)	-	-	60
메지로드자이어 (모가미)	33	47	28
유우키선데이 (Nureyev)	17	23	17
유우토키아저 (마르젠스키 Maruzensky)	14	17	2
린덴패션 (밀조지 Mill George)	1	8	3
로얄터치 (마르젠스키 Maruzensky)	124	144	109
로젠커버리 (노던테이스트 Northern Taste)	-	95	47

한마디 덧붙인다면, 헤일로(Halo)의 손자 타이키셔틀이 어떤 자마를 생산해 낼지 크게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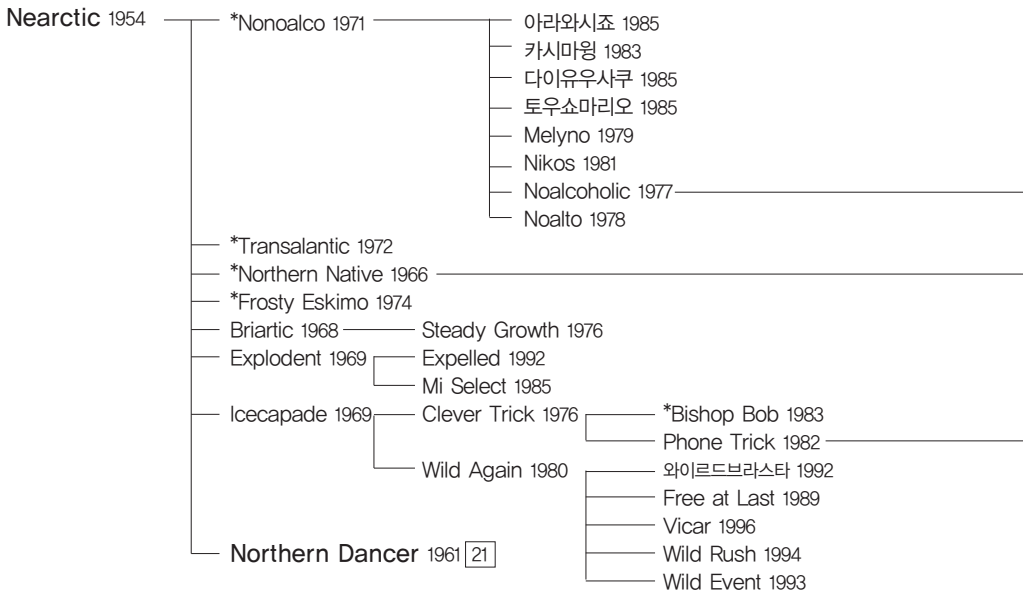


최초로, 로베르트(Roberto)의 자마인 리얼샤다이(Real Shadai)는 프랑스의 도빌(Deauville) 대상경주에서 승리하며, 프랑스 더비에서는 어서트(Assert)에게 3마신 차이로 2위를 하는 등, 8전2승 2위2회 3위2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씨수말 계(界)를 휩쓸던 노던테이스트(Northern Taste)의 그늘이 보일 때쯤 라이스샤워 등의 활약으로 1993년에 리딩 사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스타임(Brian's Time), 씨수말 성적으로는 SS에 차이가 있지만, 팬을 흥분시키는 매력과 GI경주에서의 승부욕은 토니빈(Tony Bin)처럼 멋진 구석이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도 자신 및 자마들의 교배두수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브루드메어 사이어)	00년	01년	02년
브라이언스타임 Brian's Time <sup>1</sup>	20	138	153
이브키프론티어 (Alydar)1-1M.I.Branc (Caro)	40	30	31
카라네이처 (Northern Taste)	12	9	8
킹브라이언 (Lodgensky)	9	7	6
씨니브라이언 (Swift Swallow)	49	76	108
실크저스티스(사탕코)	-	73	53
나리타브라이언 (Northern Dancer)	-	-	-
히카와브라이언 (홍호크)	1	-	-
비와타케히데 (Northern Dancer)	28	28	2
후사이치브라이언 (마르젠스키)	24	52	67
브라이언즈로만 (브레이베스트로만)	-	-	17
마이넬맥스 (하이세이코)	-	-	59
마야노튐건 (Blushing Groom)	89	110	101

1두를 더 소개하자면 실버호크(Silver Hawk)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라스원더(Grass Wonder)를 정점(頂點)으로 신코칼리도(Shinko Calido)까지,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더비의 베니더딕(Benny The Dip), 무타화베크, 레드실버, 그리고 유럽 클래식에서 우승한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씨수말이 된 자식의 실버엔딩에는 마이넬플레티넘 등도 있습니다. 이 로베르트(Roberto) 계통에는 02년에 폭발적인 성적을 거둔 크리스에스(Kris S)가 있는데, 3살 때 텐노쇼(天皇賞)와 아리마기념(有馬記念)을 제패하고, JRA 02년도 대표마인 심보리크리스에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NAR 02년도 대표마인 토호엠펜페라도 로베르트(Roberto)의 계통입니다.



노던댄서(Northern Dancer) 등의 아버지입니다.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산으로 볼드룰러(Bold Ruler) 등과 같은 1954년생입니다. 미국 성적은 47전 21승으로 캐나다 연도대표마로도 뽑힙니다. 1960년에 미국에서 씨수말이 되며, 캐나다에선 일곱 번이나 리딩 사이어가 됩니다.

계통을 튼실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일본 내에서 이 그룹의 주역을 뽑자면 당연 다이유우사쿠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인기 없던 다이유우사쿠는 1991년의 아리마기념(有馬記念)에서 메지로마크인(Mejiro McQueen,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음)을 무너트리면서 신기록(2분30초6)마저 세우고 맙니다. 그리고 보니, 그의 아버지인 노노알코(Nonoalco)에게는 카시마윙도 있었으며, 중장거리가 특기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Alannon 1990

인터넷이티브 1982

Caller I,D 1989

Intidab 1993

Mazel Trick 1995

Pick Up the Phone 1989



Northern Dancer 1961

\*Viceregal 1966

\*Glow 1983

\*Kolymsky 1975

\*Salmon Leap 1980

\*Chercheur d' Or 1983

\*Swift Swallow 1977

\*Secreto 1981

\*Tamono Dancer 1987

\*Try My Best 1975

\*Nice Dancer 1969

\*Northerly 1972

\*Northern Dictator 1974

\*Northern Taste 1971 [25]

\*Palace Dancer 1984

\*Flaring Dancer 1972

\*Minsky 1968

\*Regal Step 1980

\*Wassi Touch 1983

Ajdal 1984

Alwasmi 1984

Antheus 1982

Be My Guest 1974

Carnivalay 1981

Classic Music 1987

Danzatore 1980

Danzig 1977 [26]

Dixieland Band 1980

El Gran Senor 1981

Eskimo 1980

Fabulous Dancer 1976



Northern Dancer 1961

Fairy King 1982

Far North 1973

Fulmar 1980

Glenstal 1980

Hero's Honor 1980

Jugah 1981

Local Talent 1986

Lomond 1980

Lucky North 1981

**Lyphard** 1969 [24]

Minshaanshu Amad 1979

Nabeel Dancer 1985

Night Shift 1980

**Nijinsky** 1967 [23]

Northern Baby 1976

Northern Flagship 1986

Northern Jove 1968

Northern Mystic 1975

Northfields 1968

**Nureyev** 1977 [27]

Obligato 1983

Pink 1981

Rambo Dancer 1984

Razeen 1987

**Sadler'd Wells** 1981 [29]

Shareef Dancer 1980

Shotiche 1986

Sovereign Dancer 1975

**Storm Bird** 1978 [28]

Tate Gallery 1983

The Minstrel 1974

Topsider 1974

- \*Helissio 1993
- \*Oath 1996
- \*신코우킹 1991
- \*Zorch 1992
- \*토호우킹 1995
- Bartok 1991
- Es costa de Lago 1993
- Revoque 1994
- Turtle Island 1991
- Northern Adventure 1980
- \*Fast Topaze 1983

\*Sakura Victory 1986

Distinctly North 1988

- \*Thrill Show 1983 ————— 나이키고저스 1989
- Bairn 1982
- Deposit Ticket 1988
- Kreisler 1982
- \*Northern Tempest 1981
- \*노던그룹 1985
- \*No Pass No Sale 1982
- Northjet 1977

Nediyim 1985

- \*반담자크 1988
- Din's Dancer 1985
- Gate Dancer 1981
- Leo Castell 1984
- Louis Quatorze 1993
- Priolo 1987 ————— Sendawar 1996
- \*Silver Voice 1983
- \*Palace Music 1981 ————— Naturalism 1988
- \*Pluralisme 1980 ————— 코에이대쉬 1986
- \*Laser Lane 1983
- \*Long leat 1979
- Bakharoff 1983
- L'Emigrant 1980 ————— 케이원 1988
- Masterclass 1988 ————— 타야스레미그런트 1990
- Opening Verse 1986
- The Noble Player 1980
- \*Assatis 1985 ————— 왕애로우 1995
- \*Doulab 1982 ————— 신코윈디 1993
- 토싱블리자드 1997
- Salse 1985 ————— Classic Cliche 1992

Northern Dancer 1961

Unfuwain 1985

Vice Regent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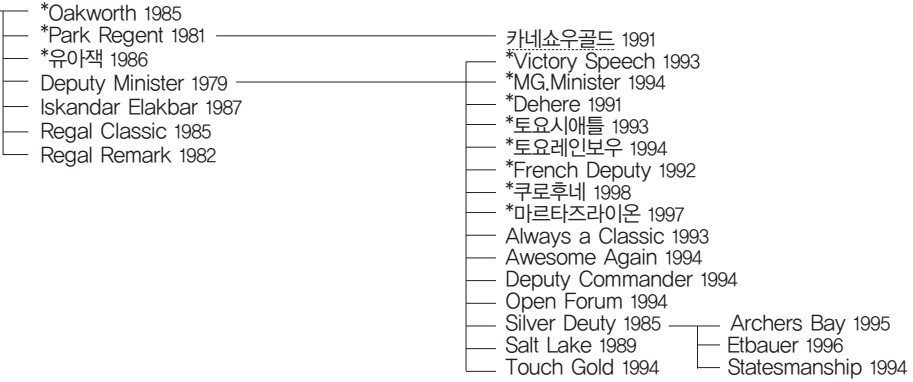
Yukon 1979

Candi's Gold 1984

신잔(Shinzan)과 같은 1961년 캐나다 출생입니다. 노던댄서(Northern Dancer)가 태어났을 당시, 하얀 털이 많고, 체고(體高) 약 160cm의 작은 몸집이, 그 혈통에서 나와 세계를 정복할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경주마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전적을 남기게 되죠. 2살 때 9전7승, 3살 때 9전7승, 합이 18전14승이었으니까요.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S에서 승리하지만, 벨몬트S에서 쿼드랭글(Quadrangle)에 이어 3위로 통과하면서 안타깝게 3관을 놓치고 맙니다. 리딩 사이어는 미국에서 1회, 영국에서 4회를 기록합니다.

자마가 몇 두인가는 각각의 독립된 코너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만, 3관마 니진스키(Nijinsky), 시얼리언(Caerleon), 리퍼(Lypheor), 누레예프(Nureyev) …… 하나 하나 소개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새들러스웰스(Sadler's Wells), 페어리킹(Fairy King), 테이트갤러리(Tate Gallery) 이 3두의 형제는 모두 영국 리딩 사이어

Alhaarth 1993



10위 안에 드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유럽 리딩의 자리를 열 번 이상 획득하고 있는 새들러스웰스(Sadler's Wells)는 아일랜드 2000기니 말이지만, 자마인 앙트러프러너(Entrepreneur)가 승리한 것은 1997년이 되어서입니다. 영국 클래식에서 마지막까지 자마가 승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2000기니라는 것이 조금 믿기지 않는데요. 같은 혈통인데도, 거리의 융통성은 페어리킹(Fairy King) 쪽이 훨씬 우월한 것 같습니다. 이 페어리킹(Fairy King)의 자마 팔브라브(Falbrav)가 02년 재팬컵(Japan Cup)에서 영광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노던댄서(Northern Dancer)의 주요 활동 씨수말들의 브루드메어 사이어를 ()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노던테이스트 Northern Taste (Victoria Park)

댄지그 Danzig (Admiral's Voyage)

리파드 Lyphard (Court Martial)

니진스키 Nijinsky (Bull Page)

누레예프 Nureyev (Forli)

스툼버드 Storm Bird (New Providence)

새들러스웰스 Sadler's Wells (Bold Reason)

거리적성이 뛰어나게 구별됩니다. 아래에 아직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활약마를 보충하여 기록해 둡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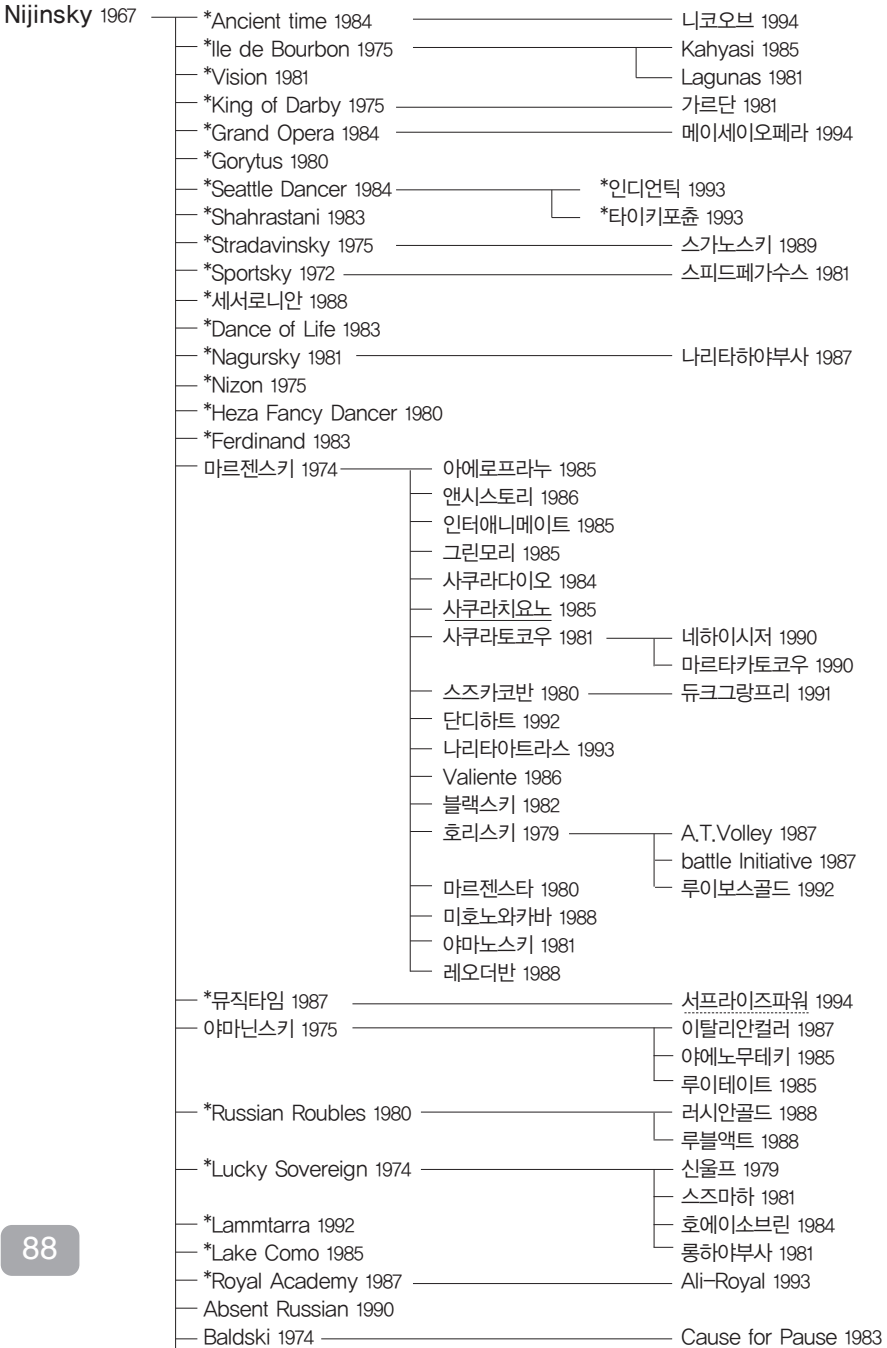
바이스리젠트(Vice Regent) 계열에는, 토요시애틀 Toyo Seattle(자마)과 토요레인보우 Toyo Rainbow(자마). 데퓨티미니스터(Deputy Minister)를 거쳐 프렌치데퓨티(French Duputy)에서 쿠로후네. 데히어(Dehere)에는 위드스트링, 파크리젠트(Park Regent)는 NAR에서 스리파크, 오구리파피, 히트파크, 논논젠트가 있습니다.

트라이마이베스트(Try My Best) 자손에는 라스트타이쿤(Last Tycoon)에서 오스미타이쿤, 오스미브라이트, 그리고 미국 연도대표마인 마호가나가 있으며, 와지브(Waajib)에는 프레스트십보리가 있습니다. 왓스터치 군에는, JRA에 티엠허리케인

등, NAR에 아이아이다이아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톱사이더(Topsider) 자손에는, NAR에 강한 듀랍(Doulab)을 거쳐 01년에 슈퍼호스가 탄생한 미나미칸토(南関東) 3관마(冠馬)인 토싱블리자드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 오지는 않았지만, 살루스(Salus)도 유럽에 영국 세인트레저의 클래식 크리쉬와 카르티에상을 받은 레몬스후레, 아일랜드 2세 No.1, 비앙카네라 등이 있습니다.

비마이게스트(Be My Guest)의 자마인 펜타이어(Pentire)에서는, NAR에서 활약한 라이트닝볼트(Lightning Bolt), 마이넬오르팡 등이 있으며, 손자인 댄스홀에는 장거리가 주특기인 믹키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리킹(Fairy King)으로 부터는 영국 더비의 오스(Oath)와 개선문의 에리시오(Helissio)가 수입되어 인기 씨수말이 되며, 영국 2000기니의 아이렛선즈, 이탈리아 2000기니의 프린스어서 등이 있고, 엘그란세뇨르(El Gran Senor)는 로드리고드트리아노(Rodrigo de Triano)에서 이브키야마노오, 에리모엑셀(Erimo Excel)을 배출합니다.





경주성적은 13전 11승이며, 니진스키(Nijinsky)를 물리친 말은 개선문상의 사라후라(도중에 일본에 수입)와, 챔피언S의 로렌자키오(Lorenzaccio)입니다.

일본의 경주마 자유화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젠스키(Maruzensky, 2~3세 때 8전8승)이죠. 그는 니진스키(Nijinsky) 씨를 품고 있던 상태에서 수입된 실로부터 태어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포입말(어미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수입되어 낳은 망아지)는 클래식 경주에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더비경주가 다가오던 어느 날, 손에 채찍을 들고 있던 나카노 와타리세이이치(中野渡青一) 기수는「방해는 안 할 테니깐 함께 달리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관계자에게 애원했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1957년의 더비마 히카루메이지의 아버지는 힌두스탄(Hindostan)과 함께 부아루셀(Bois Roussel)이며, 그도 포입말입니다. 국산우선보호정책에 돌입했을 때도 그렇고, 외국산마에 대한 취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여서, 당시의 마르젠스키는 “세월을 잘 못 만났다”고 밖에 말 할 수가 없네요.

마르젠스키(Maruzensky)보다 한 살 아래이며, 니진스키의 포입마인 야마닌스키도 있습니다. 경주마로서의 성적은, 주니치(中日) 스포츠상(賞)은 받았지만, 니진스키의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 씨수말이 되어 동경에서 치러진 사츠키쇼(皐月賞), 텐노쇼(天皇賞) 봄의 야에노무테키(Yaeno Muteki), 오크스의 라이트컬러의 아버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달리는 경주에서는 스펀셜리스트였던 거죠. 그 외에도 츠루마루가이센, 아이오유 등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 램타라(Lammtarra), 경주활약도 그렇고 구입금액 면에서도 파격적이어서 모두가 기대하던 말이었으나 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해 자마가 일본더비 종료 시까지 겨우 27승(JRA)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씨수말로서 낮은 승률이 아니었지만, 선데이사일런스과 비교해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02년 가을 메이쇼람세스가 후지S에서 승리함으로써 주목도(注目度)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계통에서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활약마, 우선 일본 씨수말 내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뮤직타임은 99년에 사망했으나 NAR 닥터타임과 서프라이즈파워를 배출하고, 나글스키(Nagurski)는 두바이에게 패배한 호쿠토베가와 나리타하야브사, 그리고 NAR 산엠킹(Sanemuking)과 브라운샤틀레(Brown Chatelet)를 배출합니다. 또한, 그랜드오페라는 NAR의 슈퍼급인 메이세이오페라(Meisei Opera), 카누마오페라오, 아마존오페라를 배출하게 됩니다.

마르젠스키(Maruzensky)의 다재다능한 자마들을 확인해 봅시다. 사쿠라치요노와 그의 자마인 사쿠라엑스퍼트, 그리고 히노데치요노오와 사쿠라다이오들... 사쿠라다이오는 레전드헌터와 베스트다이오(Beston Daio)등의 아버가 됩니다.

자마에는 레오더반(Reodarban), 카리브송이 있으며, 사쿠라토오코우는 네하이시저(Nehai Caesar)의 아버지가 됩니다. 씨수말로서도 일품이었던 호리스키에는 JRA 에 라거챔피온, 신호리스키, 스트롱카이지, 유키노선라이즈, 루이보스골드(Loui Boss Gold), 스크카고방이 있으며, 스크카고방에는 아들 크랙킹오가 있습니다.

러시안루블(Russian Roubles)은 이소노루블, 러시안골드(Russian Gold). 럭키소버린은 럭키퀄런, 스즈마치(Suzu Mach). 시애틀댄서(2003년 수입)는 외국산 타이키포춘, 에이싱가이몬의 아버가 됩니다. 로열아카데미(일본에 리스로 들어가서 1996년에 한해서 사용)는 더비경과 스완S를 승리한 외국산마 로얄스즈카가 있으며, 프랑스 1000기니馬 자라이카(Zalaiyka) 등도 있습니다.

해외씨수말내역에는 우선, 시얼리언(Caerleon)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시얼리언(Caerleon)은 엘웨이인(L-Way Win), 신코러브리 등의 활약을 시작으로 많은 자마들이 들어옵니다. 비와헤이디(Biwa Heidi)와 다이와카리언(Daiwa Caerleon), 그리고 발열(發熱) 3개월 후에 더비에서 우승하는 기적을 일으킨 사이치콩코드(노턴댄서 3×3)가 훌륭한 성적을 거둡니다.



Lyphard 1969

이이데타이쇼우 1990

\*Garoto 1978

\*Green Mount 1983

\*Storm On the Loose 1983

\*Super Lucent 1978

\*세인트리파르 1993

\*Dynamic Leader 1981

\*Dahar 1981

\*Dancing Brave 1983

\*Proud Debonair 1982

\*Bellypha 1976

\*Mairzy Dancer 1983

\*Mogami 1976

트윈터보 1988

\*Lyra Ridge 1981

\*Lansdowne 1980

\*Lypheor 1975

\*Lyphard' s Wish 1976

\*Lyphard' s Ghost 1983

\*Lyphard' s Special 1980

Al Nasr 1978

Alzao 1980

Ends Well 1981

Esprit Du Nord 1980

Falstaff 1981

Apollo 1988

Funambule 1987

Goolalik 1987

Ungaro 1994

Imperial Frontier 1984

Legend of Franc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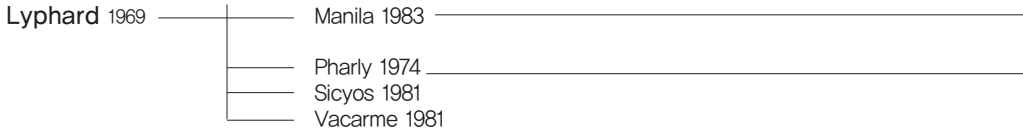
Lesotho 1983

다이고우슈르 1985  
라이브리마운트 1991

킹헤일로 1995  
\*Commander in chief 1990  
\*댄싱써패스 1990  
\*White Muzzle 1990  
\*Mendez 1981 ————— Linamix 1987

에이신빅원 1986  
그레이드소오리 1989  
시리우스심보리 1982  
노던모가미 1982  
하야토라 1989  
히노데라스터 1997  
블랙호러 1986  
유아제임스 1984

아마닌엠블렌 1988  
다이와게릭 1986  
아일랜드테이오 1983  
알파제스 1981  
\*Antiqua 1985  
위닝스마일 1983  
산쿄소오리 1983  
\*Sanquirico 1985  
\*Tolomeo 1980 ————— 다이와텍사스 1993  
닛포테이오 1983  
니훈피로엑셀 1981  
Derby Wish 1982  
슈퍼바울 1989  
프레젠티 1990  
\*Nasr El Arab 1985



리파드(Lyphard)는 자끄 르 마로와(Jacques Le Marois)등과 더불어 유럽에서 12전 6승을 기록하며, 경주마 성적은 3관마 니진스키(Nijinsky)와 비교해 볼 필요도 없으나 씨수말로서는 니진스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친숙한 자마로는 댄싱브레이브(Dancing Brave)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씨수말의 왕자로 군림하고 있는 새들러스웰즈(Sadler's Wells)와 리딩 사이어의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병마(病魔)들과 싸우면서도 체구(格)나 실적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일본에 수입된 그 어떤 씨수말보다도 우수한 “최강의 씨수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댄싱브레이브(Dancing Brave)를 경주마로서 평가하자면, 개선문상 경주에서는 역대 최고의 숨씨였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이니, 어느 정도였는지는 대충 상상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당시 기록은 2분27초7이었으며, 이듬해 토란폴리노에서 1초4나 더 기록을 앞당깁니다. 당시 2위는 프랑스 터비의 베링(Bering)이었습니다. 이 개선문상 경주에는 유럽원정 중에 있던 모가미(Mogami)의 자마 시리우스심보리(Sirius Symbori, 1985년 일본 터비마)도 도전했으나, 15두 중 14착에 그치고 말았던 경주였습니다.

유럽의 클래식 디스턴스에서 활약하던 댄싱브레이브(Dancing Brave)이지만, 일본 자마를 보면 이상하게도 쿄에이마치, 킹헤일로라는 마일드 스페셜리스트 뿐입니다. 생각하건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실력은 당연지사고, 리파드(Lyphard)에

\*Manilan the Ruler 1989  
Bien Bien 1989  
\*Harly 1980  
Darly 1979  
Le Nain Jaune 1979

게 물려받은 스피드까지 후세에 남기는 역할을 멋지게 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로,父 댄싱브레이브(Dancing Brave)에 이어 일본에 들어 온 자마 커멘더인  
치프(Commander in Chief)의 경주성적을 보면, 영국과 아일랜드 양쪽 모두의 터비  
를 차지하면서 6전5승을 기록, 엄청난 스피드의 실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스피드 계통이라고 하면서도 자마인 모가미(Mogami)는 그 해당  
사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일본 터비마인 시리우스심보리(Sirius Symbori)도 그렇  
지만, 역대최강의 3관마 메지로라몬(Mejiro Ramone)도 그렇습니다.

레거시월드(Legacy World)는 재팬컵을 손에 쥐며, 1987년 아리마기념(有馬記念)  
에서는「경기에서 지면 중이 되리라」고 선언했으나, 아쉽게도 메지로듀렌에게 2위으  
로 밀려 약속대로 중이 된 야스다 토미오(安田富男)의 유아제임스도 있습니다. 경마  
팬들에게 재미있는 화제를 제공해 준 기수와 말이었죠.

거의 모든 자마가 잔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프라우드테보네어(Proud  
Debonair)에 나리타프라우드, 에쿠스허리케인, 에스파라오 등도 NAR에서 좋은 성  
적을 거두며, 터트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02년에 멋진 성적을 보여준 댄싱브레이브(Dancing Brave)의 자마 화이트머즐  
(White Muzzle)은 오크스의 스마일토모로우, NAR 3관 제1전 하네다(羽田)배에서  
우승한 프린스팔리버, 마일그랑프리의 플레어링머즐(Flaring Muzzle)이 있습니다.



\*Northern Taste 1971

- 아일랜드골드 1996
- 아스완 Aswan 1979
- 엠버사다이 1977
- 에이신오션 1990
- 에이신타우러스 1986
- 에이신테이오 1985
- 오곤카잔 1981
- Gallop Dyna 1980
- 크리스더브레이브 1994
- 코쇼우노렛 1986
- 사일런트무비 1987
- 사쿠라엠버 1983
- 사쿠라테르노오 1982
- 사쿠라팔레스오 1985
- 실버테이스트 1986
- 스루오다이나 1984
- 셴료우아쿠샤 1986
- 다이나올림피아 1983
- 다이나걸리버 1983
- 다이나생큐 1984
- 다이나레터 1984
- 텐잔테이스트 1983
- 노던레인보우 1990
- 하쿠오이브키 1983
- 호잔브레이브 1991
- 마치카네텐보이저 1989
- 맥스원저 1992
- 마루토요테이스트 1981
- 만주덴카부토 1986
- 레전드테이오 1983
- 퉁뉴토리노 1985

1971년 미국산으로, 3~5세 때 영국과 프랑스에서 드 라 포레(De La Foret)상을 받는 등 20전 5승을 기록하며 1975년에 프랑스로부터 수입됩니다. 1999년을 마지막으로 씨수말 생활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한가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던댄서(Northern Dancer)와 비슷한 유형으로, 해가 지날수록 마체(馬體)도 노던댄서와 비슷해지며 수많은 씨수말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2년에서 1992년까지의 11년간을 일본 리딩 사이어 자리를 석권하면서, JRA에 한해 라이징플레임을 가진 최다승리기록을 1995년 11월에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02년 8월 19일 현재 JRA 1739승, NAR 68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배 두수도 차이나록보다 많은 1661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잔(Shinzan)이 가지고 있는 24년 연속 자마승리 기록도 1년 남짓으로 뒤쫓고 있는 상태입니다. 03년도에 들어와서는 타이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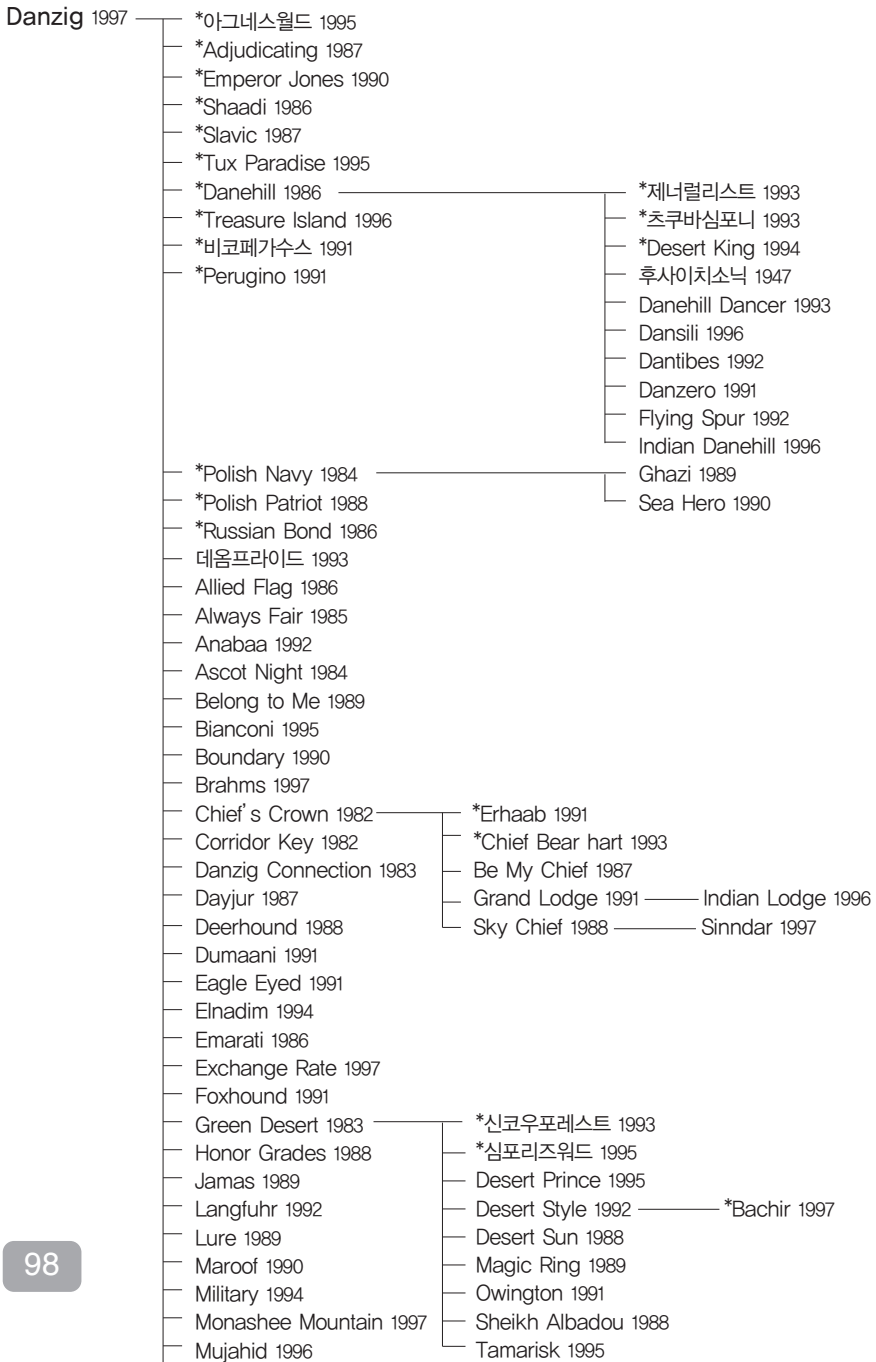
- 미스터호소우 1985
- 메지로알담 1985
- Kamino Cresse 1987
- 골든제우스 1989
- 베스트타이업 1992
- 아루카룩키 1986
- 메지로라이언 1987 ————— 메지로브라이트 1994
- 레인보우엠버 1986
- 마루마츠에이스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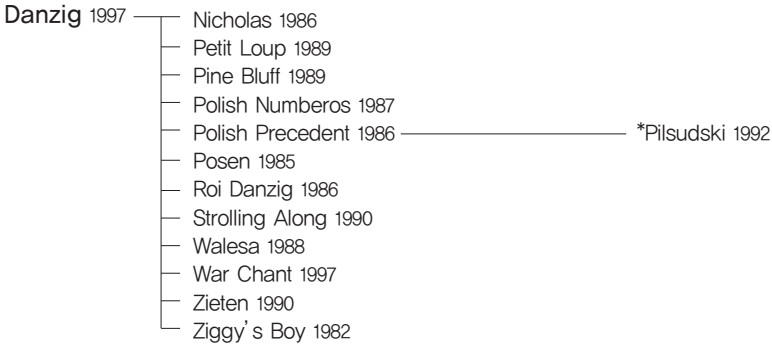
지금은, 브루드메어 사이어로 군림 중이며, 01년 가을 크리스더레이디(Kris the Lady)가 후지S에서 우승하며, 자마들이 첫 해부터 20년 연속 JRA 대상제패라는 위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79년 교세이배(京城杯) 3세 스테이크스를 샤다이댄서가 제패한 이후, 1996년 머메이드S(Mermaid Stakes)에서 샤이니레이서가 승리하기까지 자마 대상 경주 17년간 연속승리도 기록하였습니다. 선데이사일런스(Sunday Silence)에게 패하기까지 JRA 대상 93승(01년10일20일 현재)이라는 기록도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에서 단 1두(다이나걸리버)의 더비마가 배출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겠죠. 노던테이스트(Northern Taste)에서 시작한 엠버샤다이(Amber Shadai)……메지로라이언(Mejiro Ryan)→메지로브라이트(Mejiro Bright), 아스완 (Aswan)→ 메지로알담……, 父국내산 4대 연속 대상경주 제패를 염원하던 팬들 또한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점을 바꿔 다른 부분도 조사해보면, 더 많은 노던테이스트(Northern Taste)들의 기록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참고로, 노던테이스트(Northern Taste)의 전(全)형제 서든소우(Sudden Thaw, 캐나다산)도 미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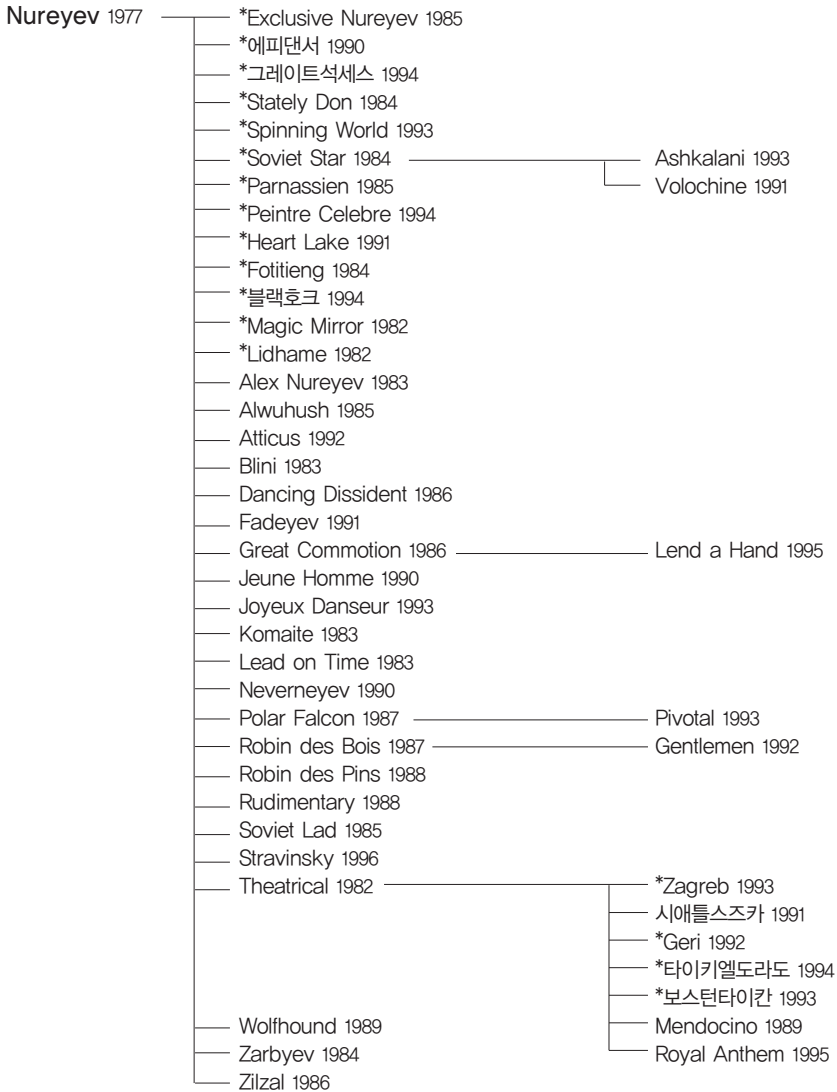




폴란드 발트해에 근접해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세계지도에는 Gdansk(Danzig)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죠. 바르샤바(warszawa)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단치히”로도 불리나, 이 스펠링에서는 “덴지그”라는 현지 발음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경주성적은 6,7펠롱[1펠롱=1마일의 8분의 1, 약 200m]에서 3전 3승, 씨수말이 되어서의 실적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마들 중에는, 벨몬트S의 덴지그커넥션 등도 있지만, 샤디(Shaadi), 자이튼(zieten), 루어(Lure)등도 있기 때문에 마일러(Miler)계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마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스피드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유럽 GI경주를 제패한 일본마(엄밀히 따지면 외국산 말이 일본에서 훈련됨) 아그네스골드도 있으며, 비코페가수스, 마그나텐도 대상경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02년 해외에서는 락오브지브럴터(Rock of Gibraltar)가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의 2000기니 등에서 승리해 GI경주 7연속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루드메어 사이어로서도, 일본의 글래스윈더, 니시노플라워(Nishino Flower), 해외에서는 스트레티직초이스(Strategic Choice)등이 있으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레예프(Nureyev)는 안타깝게도 01년 11월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 노턴댄스(Northern Dancer)계의 마명에는 문화를 자랑으로 삼은 나라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저명(著名)한 댄서의 이름들이 상당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레예프(Nureyev)라는 이름도 예외 없이 소련 출신의 혁명무용수·안무가의 이름입니다. 그 인물은 니진스키(Nijinsky, 무용가)의 부활이라고도 불렸으며, 그의 춤은 야수의 부드러움과 타오르는 영혼을 구현한 유일한 무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레예프(Nureyev)에 의해 19세 이후 처음으로 무대 중심이 무희(舞姬)에서 남성 무용가로 변천,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드룰러(Bold Ruler)계 (1)에 수록되어 있는 시애틀슬루의 철자는 Seattle이었으나, 여기에 실려 있는 시어트리컬의 철자는 Theatrical입니다. 스펠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마일러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마들의 성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자마들의 성적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에스크 Miesque	영국 1000기니
뉴더프	아일랜드 2000기니
스피닝월드 Spinning World	아일랜드 2000기니
하트레이크 Heart Lake	야스다가기념(安田記念), 케이오(京王杯)스프린컵
블랙호크 Black Hawk	스프린터즈S 등

다음은 손자들입니다.

애슈칼라니 Ashkalani	프랑스 2000기니
매들린(Madeline)	프랑스 2000기니
히시아마존	엘리자베스여왕배, 크리스탈C 등
원더퍼퓌 Wonder Perfume	기까쇼(桜花賞)

단, 스프린트 우선이라고 다른 혈족(血族)들과 함께, 시기(時期), 마일러 혈통의 벽을 허무는 말들도 출현합니다. 예를 들어,

팡트르셀레브르 (Peintre Celebre)	프랑스 더비, 개선문상
프리덤프라이스 (Freedom Fries)	전(全) 유럽 4세이상 챔피언
월드크리크 (World Cleek)	도쿄대상전

그리고 자식 스테이틀리돈(Stately Don)의 자마에는 NAR에서 카스미드림, 워터다그 등과 같은 좋은 성적의 말들도 있습니다.



Storm Bird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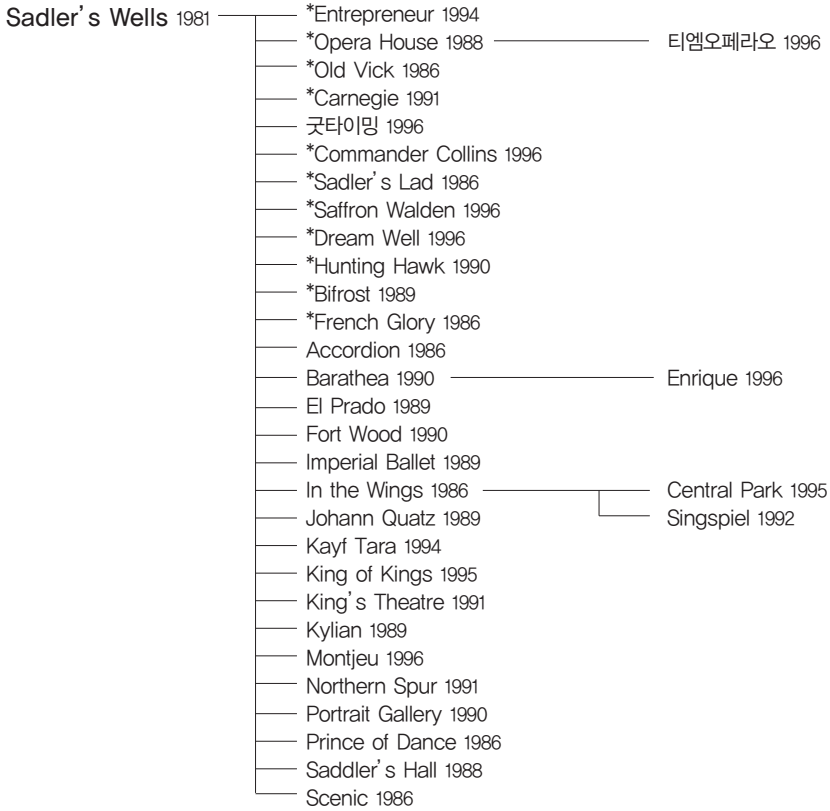
- \*스키캡틴 1992
- \*Splendid Moment 1983
- \*David's Bird 1984
- \*Navajo Bird 1984
- \*나카야마스톱 1993
- \*Prince of Bird, 1985
- Bluebird 1984
  - \*Dolphin Street 1990
  - Fly to the Stars 1994
  - Lake Coniston 1991
- Conquering Hero 1983
- Hermitage 1988
- Magical Wonder 1983
- Mujadil 1988
- Mukaddamah 1988
- Mystery Storm 1992
- Personal Hope 1990
- Storm Cat 1983**
  - \*Scat 1994
  - \*스타프로그래머 1994
  - \*Tabasco Cat 1991
  - \*Hennessy 1993
  - Aliabr 1996
  - Bernstein 1997
  - Black Minpaloushe 1998
  - Catrail 1990
  - Cat Thief 1996
  - Exploit 1996
  - Forestry 1996
  - Forest Wildcat 1991
  - Freud 1998
  - Future Storm 1990 — \*Figaro 1995
  - Giant's Causeway 1997
  - Harlan 1989
  - High Yield 1997
  - Illinois Storm 1993
  - Mountain Cat 1990
  - Sir Cat 1993
  - Storm Boot 1989
  - Stormin Fever 1994
  - Vision and Verse 1996
- Summer Squall 1987
  - Charismatic 1996
  - Globalize 1997

스톰버드(Storm Bird)는 6,7필롱에서 6전 5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본래라면, 스톰캣(Storm Cat)까지 포함해서 코너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노던댄서(Northern Dancer)의 자마라는 별도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서머스퀼(Summer Squall, 프리크니스S), 발란신(Balanchine, 아일랜드 더비, 영국 오크스), 인디언스키마(프랑스 오크스)등이 있습니다. 거리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자신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자마의 실적입니다.

스키캡틴과 NAR에서 승리한 그의 자마 레오보스턴, 그리고 아이앰더프린스를 경유하여 멀티맥스도 하나의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스톰캣(Storm Cat)이 20세기 말에 미국의 리딩 사이어를 몇 번인가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만 01년도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자마로는, 미국 2관마 타바스코캣(Tabasco Cat), 영국과 아일랜드 오크스 모두에서 승리한 바 있는 갈란도, 그리고 씨수말로 들어온 헤네시(Hennessy)가 있습니다. 헤네시에게는 NAR에서 승리한 나나크프레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2년 유럽 최우수 스프린터로는 카르티에賞을 받은 콘티넨트도 스톰캣(Storm Cat)의 손자입니다.



새들러스웰스(Sadler's Wells)는 영국의 합창단 이름이라고 합니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 연속 영국의 리딩 사이어를 획득합니다. 일본에도 새들러스웰스(Sadler's Wells)의 자마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대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페어리킹(Fairy King), 테이트갤러리(Tate Gallery)의 형제가 함께 리딩 사이어 베스트10에 이름이 실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02년도의 멋진 성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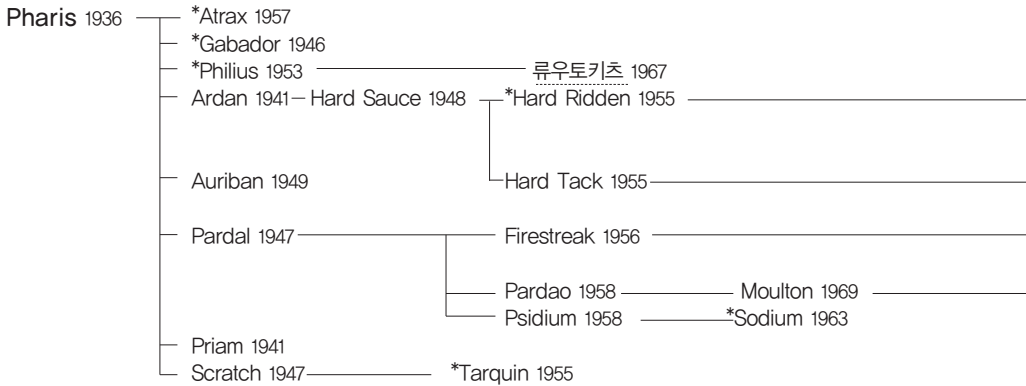
하이새퍼렐(High Chaparral, Breeders' Cup Turf)  
비트홀로우(Beat Hollow, Arlington Million Stakes)  
고사머(Gossamer, 아일랜드1000기니)  
발링거리(Ballingarry, 캐나다 인터내셔널) 등

이 계통표를 보시면, 유럽에서 장기간에 걸쳐 리딩사이어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손자(孫)의 이름이 없는 것이 조금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네요.

저는 티엠오페라오(T.M. Opera O)가 한참 전성기였을 때, 유럽에 원정 가서「어떻습니까? 새들러스웰스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멋진 손자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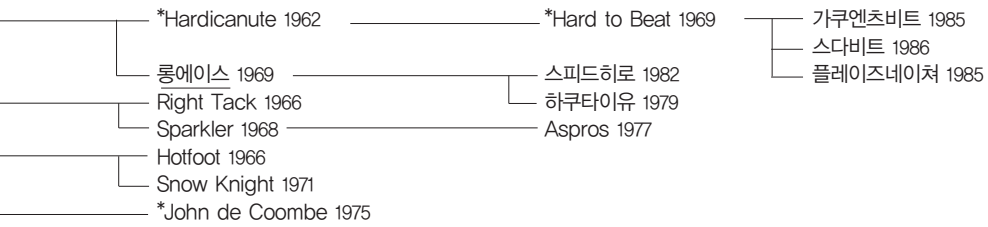
한편으로, 유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말이 씨수말이 되어 일본으로 넘어 옵니다. 유럽의 우수한 교배 암말이 일본으로 출장 나온 듯한 기분이 들어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엘콘도르파사(El Condor Pasa)의 마주 와타나베 류(渡邊隆)씨가 이 암말계에 홀딱 반해 겨우 손에 넣은 것이 어미인 새들러갈(Saddlers Gal)입니다. 이 책을 위해 취재차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손자 티엠오페라오(T.M. Opera O)에 관해서「혈통 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더군요. 이 책의「우수한 암말의 계보에 꿈을 실어서」는 와타나베씨의 코너로, 이 일족(一族)의 혈통표를 자세하게 게재하였으므로 뒷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1872년 Prix Du Jockey Club(프랑스 더비)에는 M.J. Kashiyama's Hard to Bea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주 4일전에 손에 넣은 말이, 일본인 첫 유럽 더비의 영예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기수는 레스터 피갯(Lester Keith Piggott' 1935년11월5日~ )씨이며, 마주는 마명에 온워드(Onward)를 붙이는 카시야마 준조(煙山純三)씨입니다. 이 더비마는 1976년에父 하르디카누테(Hardicanute)와 함께 일본으로 수입되며, 5년 후에는 카누테의父 하드리든(Hard Ridden)도 들어옵니다. 1972년 일본 더비마인 룡에이스에 기승했던 타케 쿠니히코(武邦彦) 기수는 「 룡에이스는 목이 상당히 길어서 고삐를 특수 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더군요.





Native Dancer 1950

\*Atan 1961

히로노와카코마 1978

몐와카코마 1989

Sharpen Up 1969

Kauai King 1963

브라비오 1977

Takawalk 1961

Dancer's Image 1965

\*Dancing Cap 1968

Dan Cupid 1956

\*No Alibi 1963

Sea Bird 1962

Hul a Hul 1962

\*Twig 1971

Jig Time 1965

Darn that Alarm 1981

Native Charger 1962

Forward Charger 1974

High Echelon 1967

Raise a Native 1961

\*Crowned Prince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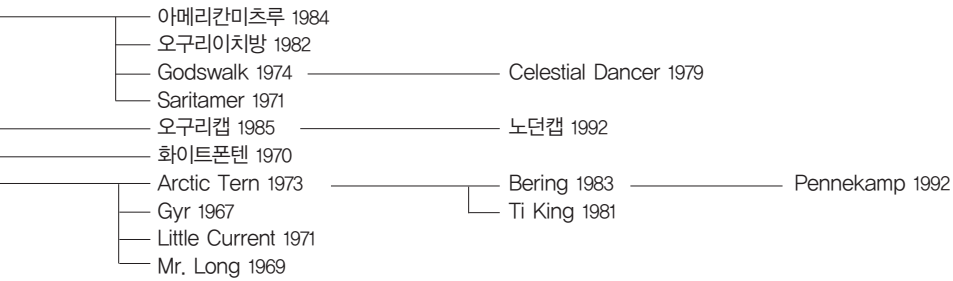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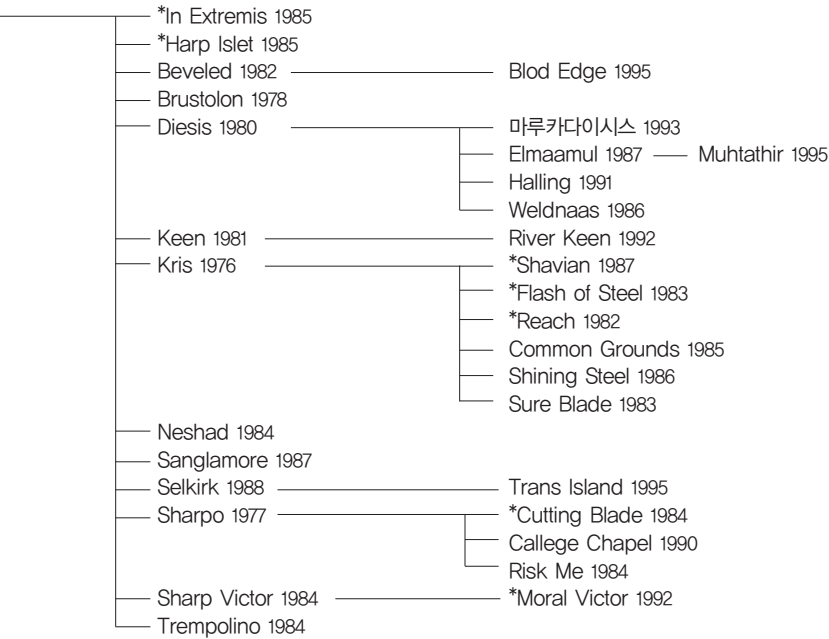
\*Hopefully On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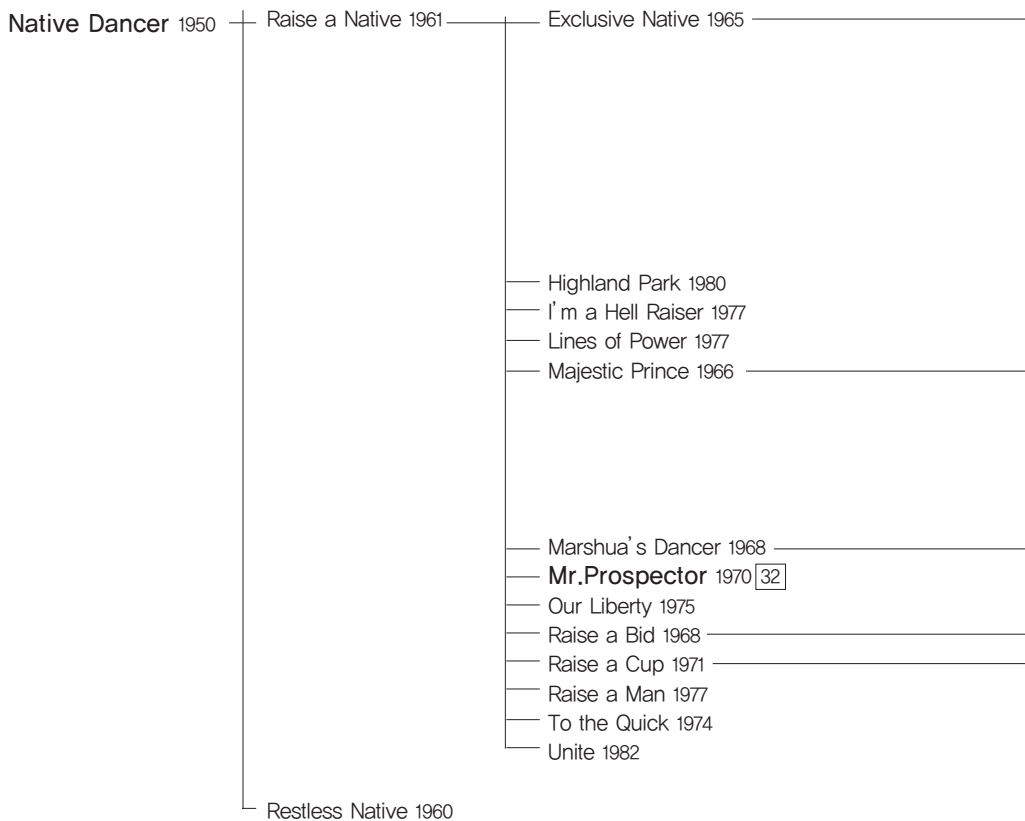
\*Raise a Boy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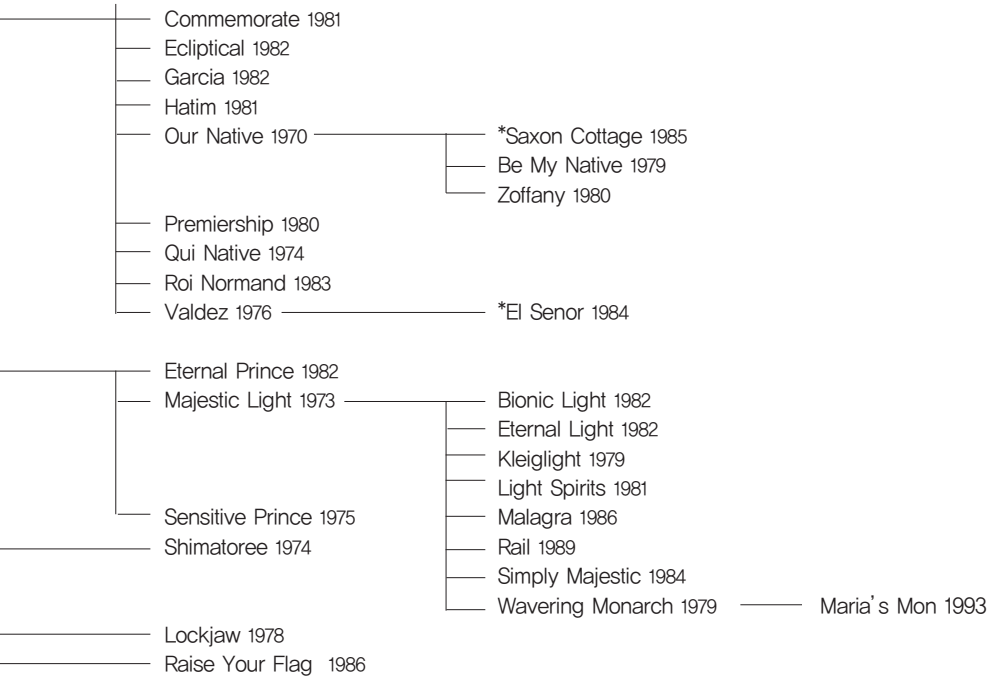
**Alydar** 1975 [33]

Berrera 1973

Exclusive Native 1965







네이티브댄서(Native Dancer)는 “Flying Grey”라고 불리며, 유명처럼 하얀 그들이 순식간에 선두로 치고나와 골인하는 “회색유령”이라 하였습니다. 마침 현역시절에 경마TV가 시작되던 터라 더러브렛 첫 TV스타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경주성적은 2~4세 3년 동안 22전 21승. 2관마까지는 되었지만, 켄터키 더비에서 다크스타에게 뒤져 2위를 한 것이 유일한 패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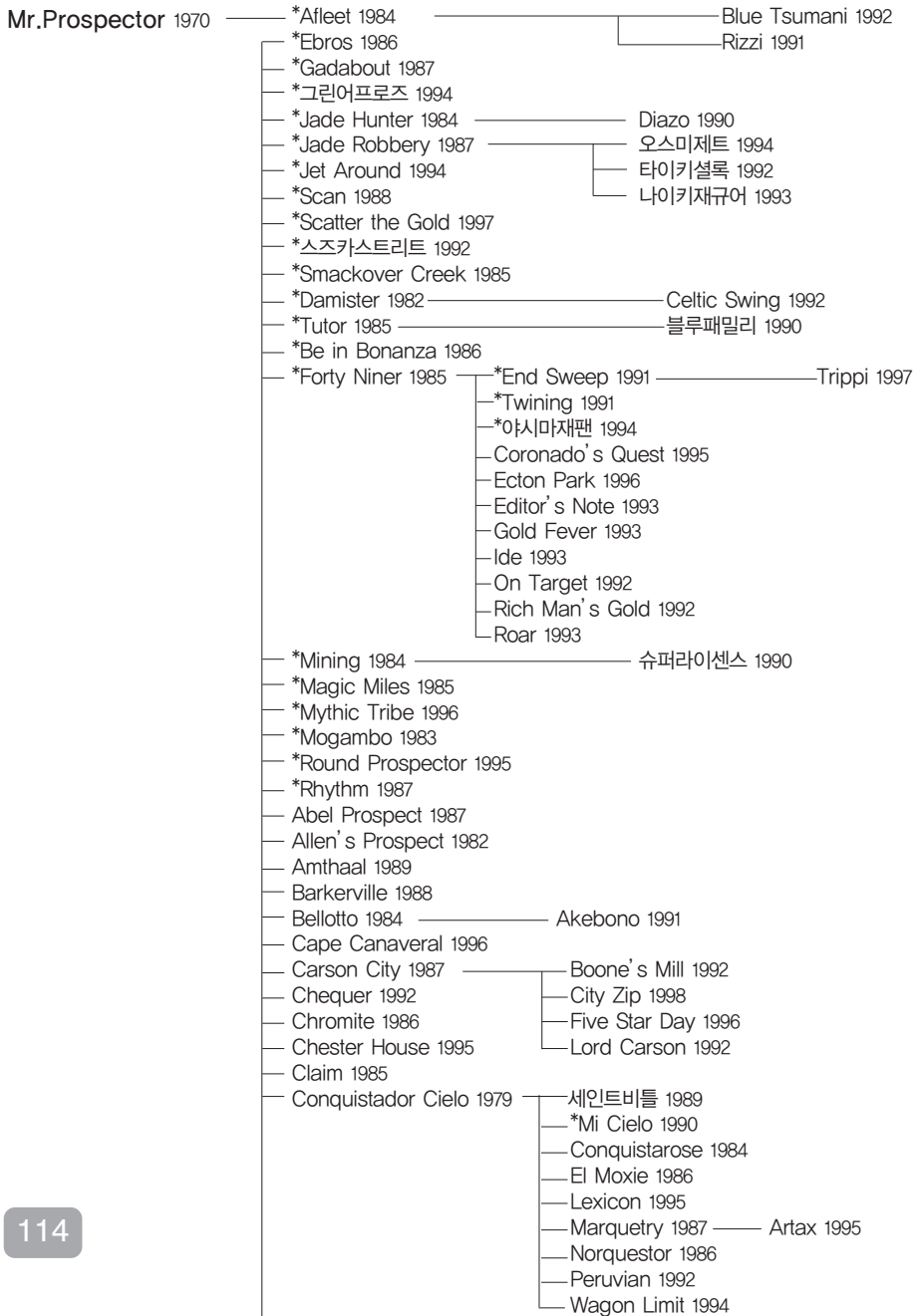
이 계통에는 독특한 마명이 상당수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오구리캡(Oguri Cap)이죠. NAR 소속으로 JRA의 클래식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1999년 사프키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티엠오페라오 T.M. Opera O처럼 추가등록비를 지불하는 등, 기타 조건에 충족된 경우에는 출주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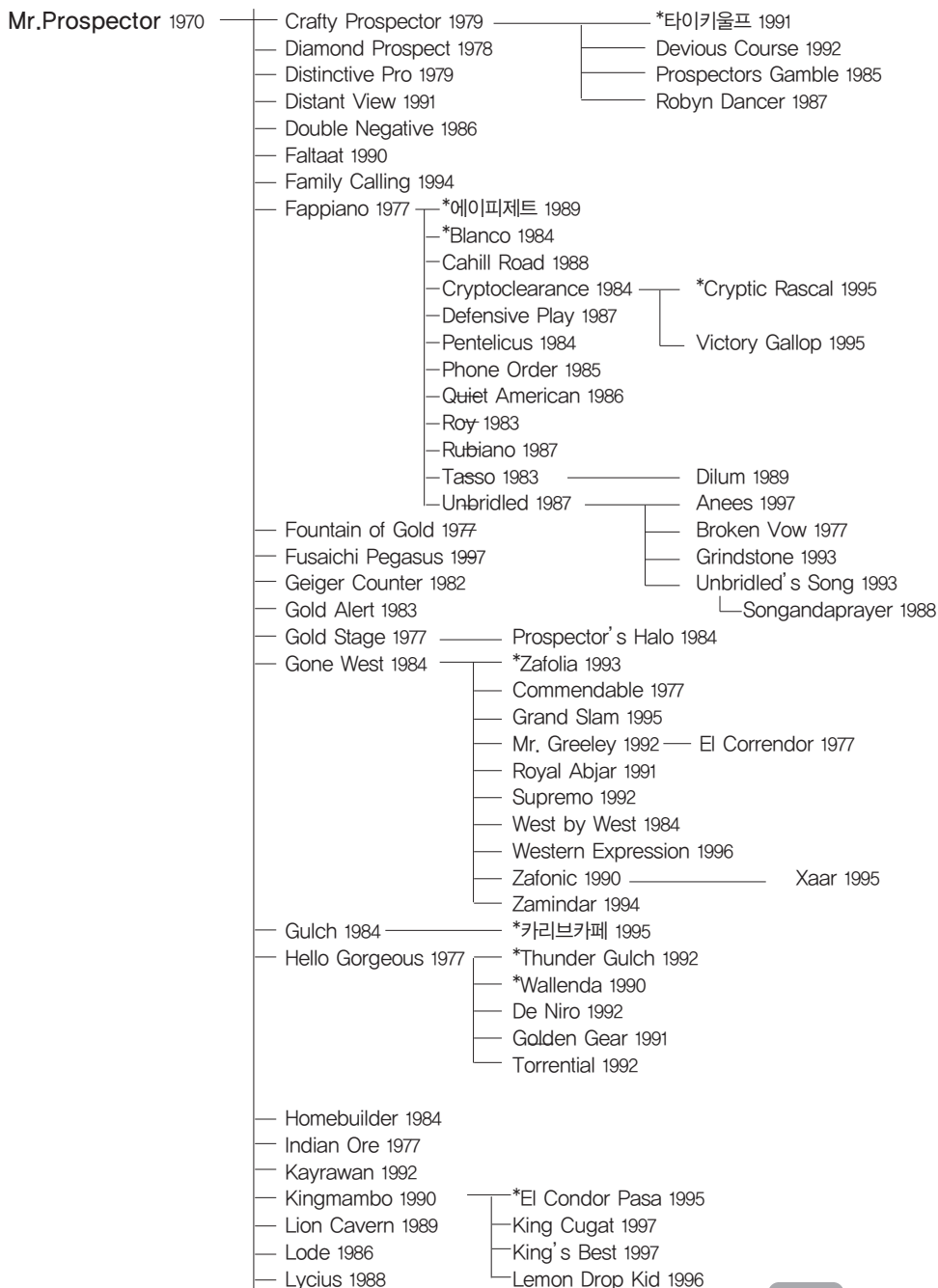
클래식에는 출주하지 못했지만, 그랑프리인 아리마(有馬)기념에서 두 번이나 우승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당시, 오구리(Oguri Cap)와의 인연으로 경마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겠지만, 저 역시 인상 깊었던 경주가 있습니다. 호릭스(Horlicks)와 격한 직선경쟁을 펼치며, 머리 차이로 순마와 같은 2분 22초의 신기록으로 2위가 된 1989년 제9회 재팬컵(2400미터) 경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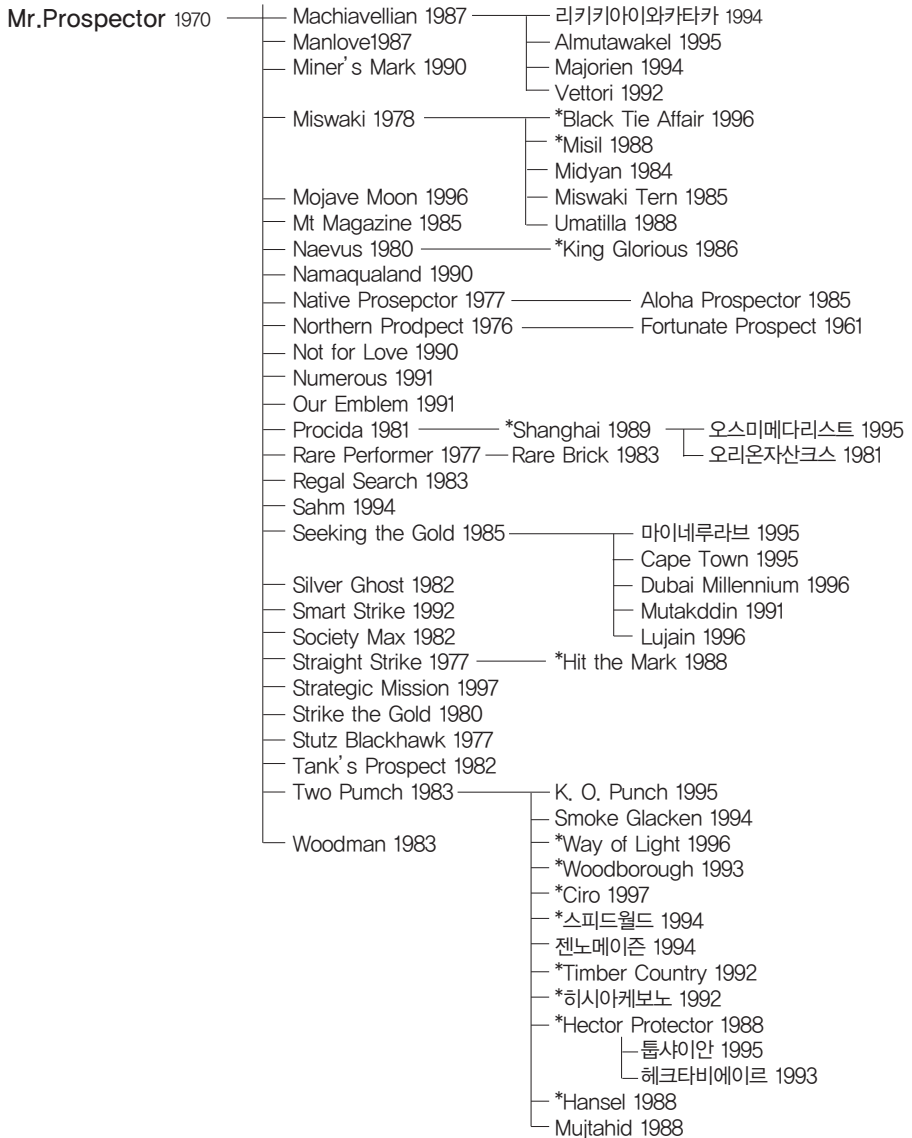
다만, 씨수말로서의 데뷔 첫 해에 65두였던 것이 02년에는 6두가 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만, 씨수말은 실적만 좋으면 OK라지만 그래도 6두는 좀…….

댄서즈이미지라는 또 1두의 말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것도 어느 정도겠... 미국 클래식에서 2번이나 실적을 당하는 기록을 가집니다. 켄터키 더비에선 약물사용,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는 다른 말에게 진로방해... 그 이후 일본으로 수입된 댄서즈이미지는 오구리캡의 뉘 오구리이치방 등의 아버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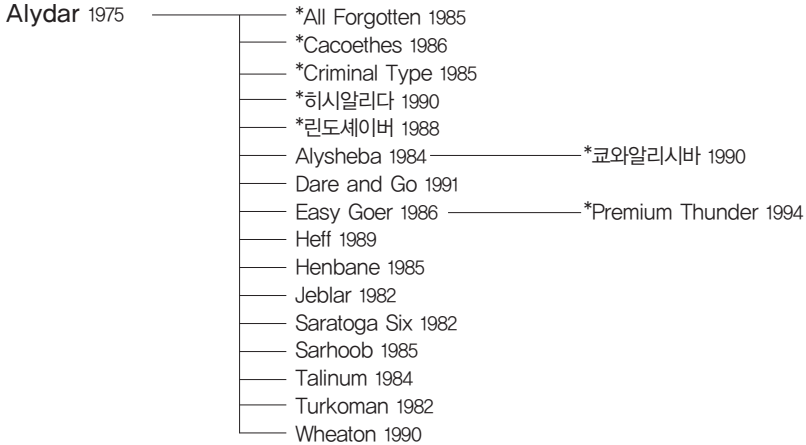


선데이사일런스(Sunday Silence)의 인기가 사그라질 때 즈음,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던 계통 중 하나라고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바로, 어플리트(Afleet), 제이드라버리(Jade Robbery), 포티나이너의 자마들이죠.

외국산마, 포입마도 일본으로 많이 들어와 훌륭한 성적을 냅니다. 스피드도 빠르며 더트에도 강합니다. 일본 트레이닝 말로서는 처음으로 유럽 GI에서 우승한 시킹더골드(Seeking the Gold)를 비롯해, 킹맘보는 개선문상 2위의 엘콘도르파사(EI Condor Pasa)를 배출합니다.

아래는 미스터프로스펙터(Mr.Prospector) 일족 중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근 GI 우승마를 열거한 것입니다.

어반시 (Urban Sea)	개선문상
그라인드스톤 (Grindstone)	켄터키 더비
레드프리트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한셀(Hansel)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팀버컨트리(Timber Country)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선더굴치(Thunder Gulch)	켄터키 더비
헤라이어(Harayir)	영국 1000기니
레몬드롭 키드(Lemon Drop Kid)	벨몬트 스테이크스
킹즈베스트(King's Best)	영국 2000기니
블루멤버	프랑스 1000기니
빅토리갤럽(Victory Gallop)	벨몬트 스테이크스
리얼과이어트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커멘더블(Commendable)	벨몬트 스테이크스
켈틱스윙	프랑스 더비
알무타와켈(Almutawakel)	두바이 월드컵
워엠블럼(War Emblem)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크린블링	독일 1000기니
마키아벨리안-스트리트크라이	두바이월드컵



스티브 코젠이 기승하던 알리다(Alydar)는 미국 3관경주에서 전부 어펌드(Affirmed)에게 패배해 2위로 끝나버립니다. 당시의 거리 차이는 말 몸통의 절반 정도였으며, 프리크니스에서는 목 길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벨몬트S의 경우, 머리 하나 차이로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1990년에 사망하여 씨수말활용기간은 짧았으나, 자마들이 아버지의 한(恨)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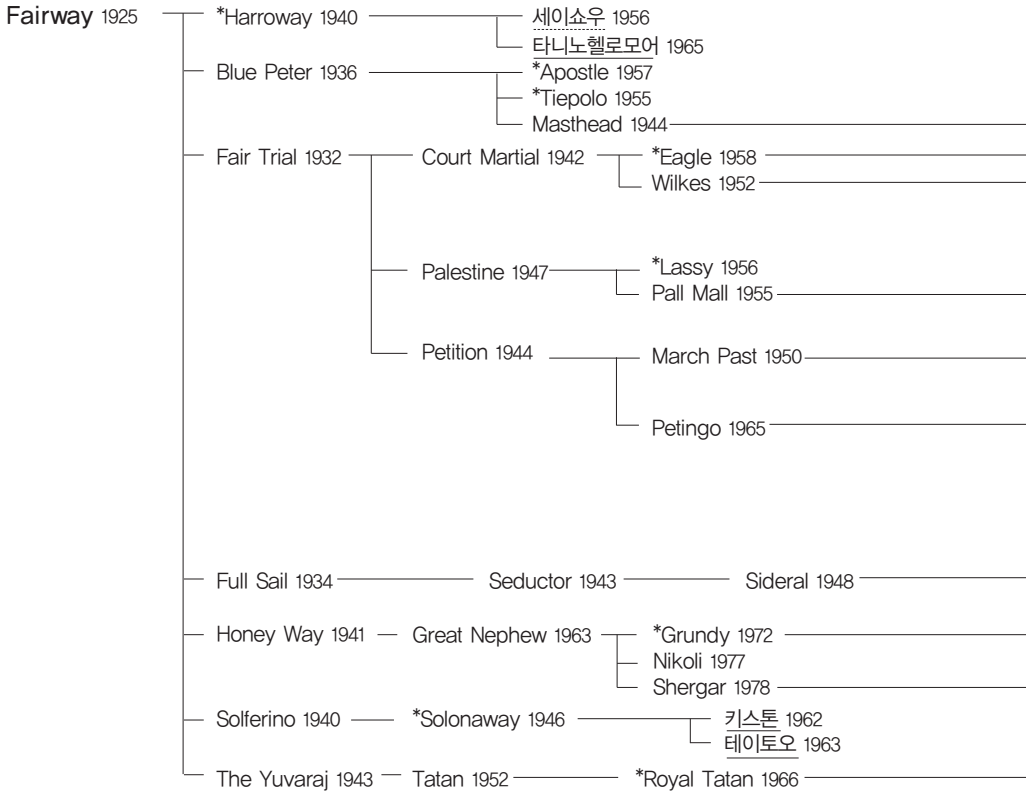
이지고어(Easy Goer)가 벨몬트S, 스트라이크더골드가 켄터키 더비, 알리시바(Alysheba)가 켄터키 더비와 프리크니스S의 2관을 제패하고 있고, 크리미널타입(Criminal Type)은 선데이사일런스 등과 싸워 승리하면서 미국 연도대표마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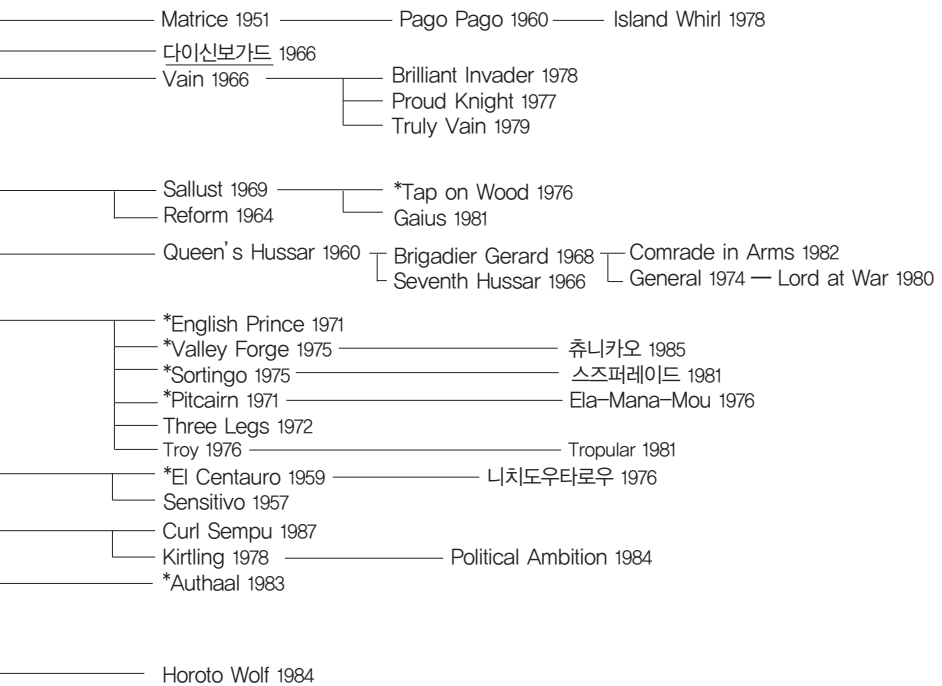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마토바 히토시(的場 均) 기수가 기승했던 자마 린도셰이버(Lindo Shaver)가 있습니다. 1990년 아사히(朝日)배 2세 스테이크스에선 1분34초0을 기록

하며, 마르젠스키(Maruzensky)의 기록을 15년 만에 갱신하게 됩니다. 린도셰이버(Lindo Shaver)의 경주 성적은 2~3세 때 6전4승으로 2위 2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토바 히토시(的場均) 기수가 이 두 번의 패배에 대해서 말하길,「제가 좀 더 잘 했더라면 분명히 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 말한테 미안하네요.」라고 하더군요.

린도셰이버(Lindo Shaver)는 외국산이어서 클래식경주에는 출주하지 못했지만, 사이코키라라 등의 아버가 됩니다.

일본에서의 알리다(Alydar) 공적은 단연 NAR에서 빛이 납니다. 린도셰이버(Lindo Shaver)에는 킹휘바, 히시알리다는 블랙킹과 디에스잭 그리고 지네스알리다, 카코이즈(Cacoethes)에는 콘서트보이와 카네쇼우슈호, 유니티스테이지와 나미가 그들입니다. 그리고 크리미널타입(Criminal Type)에 에부후렌, 료와알리시바에 브라운라이언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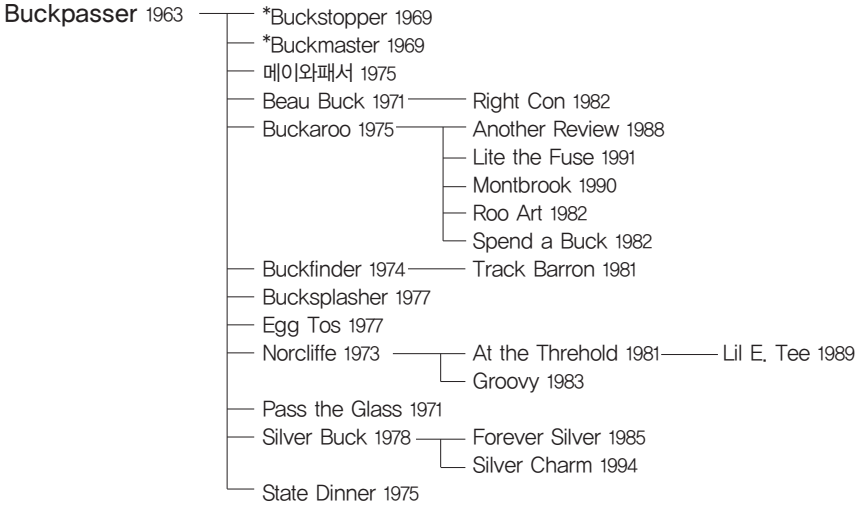
이 계통에는 일본 더비마의 이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잔(Shinzan)이 승리한 이듬해(1965년) 더비에서는 「어떻게든 더비마의 마주가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트레이드 된 간사이마(関西馬) 다이코터(Dai Koter)가 우승후보 말이 됩니다. 기수(騎手)는 쿠리타 마사루(栗田勝)씨이며, 그의 라이벌은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시(山本正司) 기수의 키스톤입니다. 서둘러 상경한 키스톤의 야마모토 기수는 전초전에서 야요 이상(弥生賞)을 받은 직후, 같은 날 키사라기상(賞)을 받은 다이코터(Dai Koter)의 쿠리타 마사루(栗田勝)씨에게 「축하한다! 이번엔 내 차례야」라고 쓰인 축전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가랑비로 주로상태가 불량이었던 더비 본 경주에서는 후배의 야마모토 기수의 키스톤이, 모자와 옷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선두인 상황에서 도쿄 코스 한 바퀴를 돌며 승전보를 올립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의 더비에서도 아사카오, 마치스, 타케시바오의 3강(強)을 무시한 채 무섭게 질주하던 타니노헬로모어(Tanino Hellomore), 이듬해 1969년 다이신보가드의 더비에서는 드라마와 같은 해프닝을 남깁니다. 비로 인해서 경마장 주로 상태는 좋지 않았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추천마(推薦馬) 타카츠바키의 기수가 출발 직후에 낙마(落馬)하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골인지점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던 다이신보가드... 함께 달렸던 이시다(石田)씨는 그 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씨수말 탑온우드(Tap On Wood)는 2000기니의 말이었으나, 영국 클래식에서는 드물게 16전째의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명기수 스티브 코젠 기수는 영국에 진출해서 처음으로 클래식을 제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계통에 대한 주목도는 점점 떨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훌륭한 암말로 재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크스마인 동시에 그 해 그랑프리 호스까지 석권했던 스타로치(Star Loch, 父 하로웨이 Harroway 母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크레이다로치(Craigdarroch)계로 소위, 로치계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3년 미국 출생이며, 동기(同期)로는 미국 2관마인 카우아이킹(Kauai King)과, 영국에서 유명한 암말 메르드(Merde)의 아들 샬럿타운(Charlottetown)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테이토오, 텐포인트(Ten Point)의 어머니 와카쿠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손자 대(대)가 되어서 스펜드어벅(Spend a Buck), 실버참(Silver Charm), 릴이티(Lil E. Tee, 증손) 3두가 켄터키 더비마가 됩니다. 하지만, 벅패서(Buckpasser) 자신은 클래식과 인연이 없어, 단 1번도 리딩 사이어가 되지 못합니다. 일본에 들어 온 자마로는 메이와패서(Meiwapasser) 정도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말의 코너를 만든 이유는? 이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벅패서(Buckpasser)가 미국 브루드메어 사이어에 3번이나 군림했던 사실과, 개인적으로나마 오랫동안 궁금해 왔던 말 중에 1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좀 더 빨리 여러분에게 소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벅패서(Buckpasser)란 어떤 경주마였는지 살펴봅시다.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경주성적은 31전 25승, 주로 호프풀 스테이크스(Hopeful S.), 플라멩고 스테이크스(Flamenco S.), 메트로폴리탄 핸디캡(Metropolitan H.) 등에서 GI 10승이라는 경이적인 능력을 가졌던 경주마입니다. 거리도 5펄롱 1/2 (1100m)에서 2마일(3200m)까지 자유자재이구요. 다만, 오른쪽 앞굽이 파열되어 클래식에는 등장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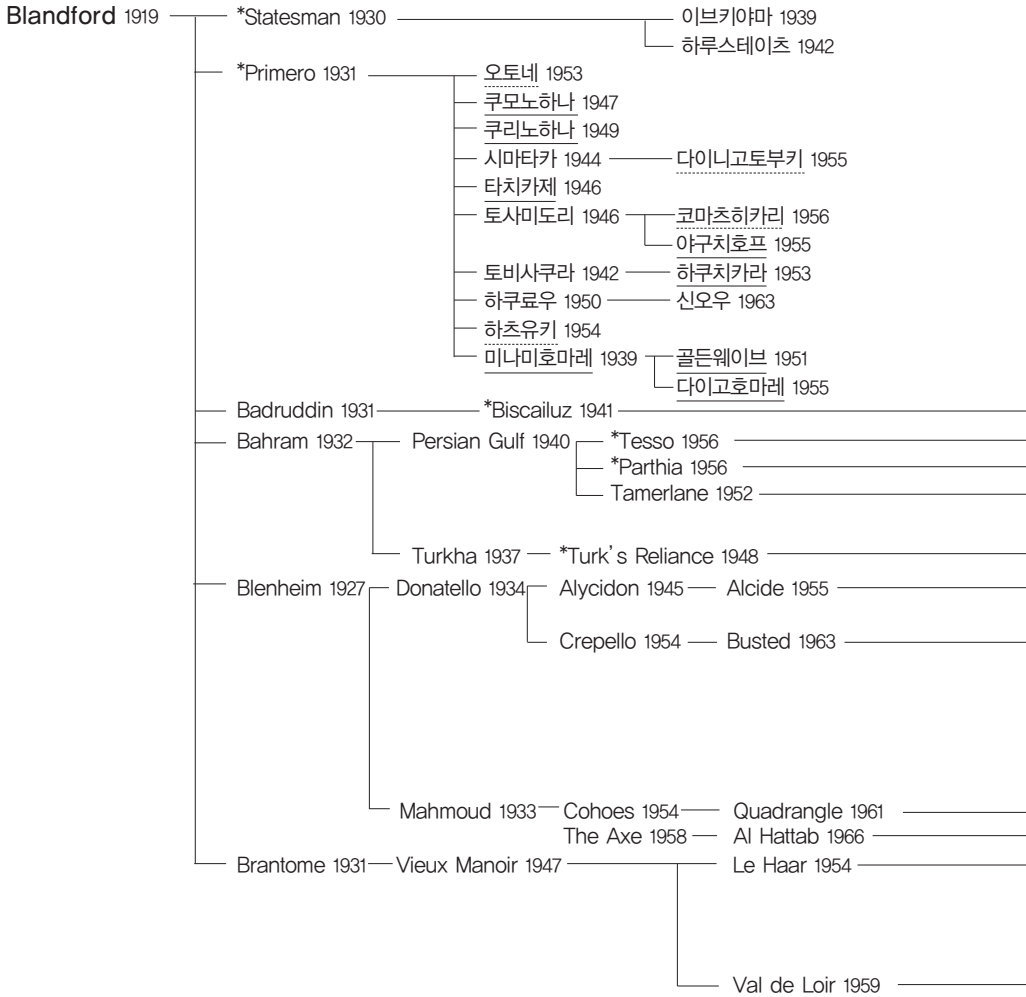
또한, 수득상금총액에서도 켈소(Kelso),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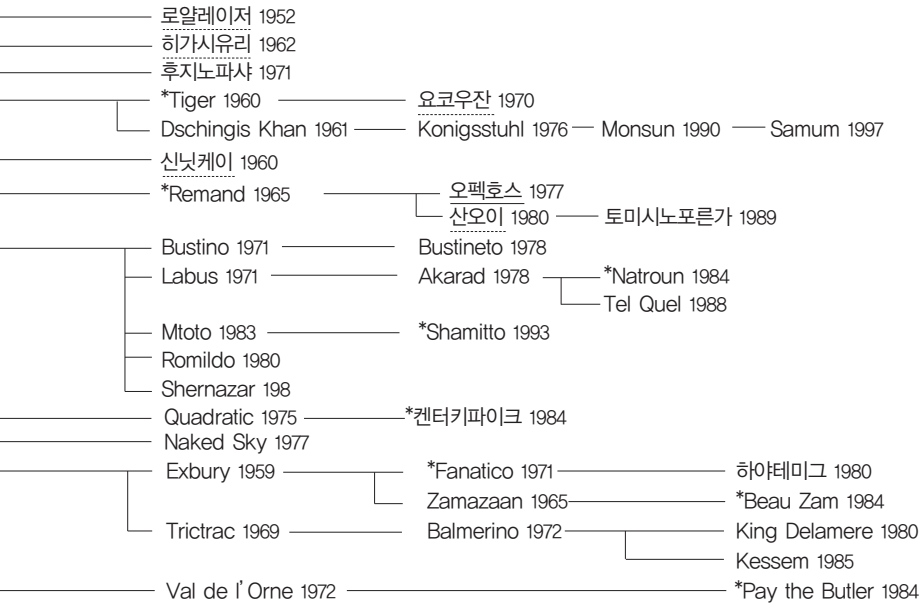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마르젠스키(Maruzensky), 야마닌스키, 시킹더골드(Seeking the Gold) 등의 브루드메어 사이어는 누구일까요?

이런 기회가 자주 없을 것 같으니, 브루드메어 사이어로서의 벅패서의 기록을 좀 더 살펴봅시다.

엘그란세뇨르(El Gran Senor), 우드맨(Wood man), 글로우(Glow), 슬러북, 스루골드, 트라이마이베스트(Try My Best), 프라이빗어카운트, 마이닝, 미스와키, 러시안루블(Russian Roubles) 등등, 일본과 인연이 있는 말들의 이름들입니다.

씨수말로서의 생활은 2년 남짓이었으나, 현재 멋진 말들이 남아서 짝을 틔우고 있습니다.





코디마(수말, 1957년생)

父 *Bouffleur 1962	Prince Chevalier 1943	Prince Rose	Rose Prince	Prince Palatine
			Indolence	Eglantine
		Chevalerie	Abbot's Speed	Gay Crusader
			Kassala	Barrier
				Abbots Trace
	Monsoon 1942	Umidwar	Blandford	Mary Gaunt
			Uganda	Cylgad
		Heavenly Wind	Tai-Yang	Farizade
			Godetia	Swynford
				Blanche
*시라오키 1976	프리메로 Primero 1931	Blandford	Swynford	Blanche
			Blanche	Bridaine
		Athasi	Farasi	Hush
			Athgreany	Solario
				Soubriquet
	다이2스타컵 1937	Diolite	Diophon	Winalot
			Needle Rock	Rose Red
		스타컵	*시안모아	John o'Gaunt
			프로리스트	Canterbury Pilgrim
				White Eagle
		Black Cherry		
		Desmond		
		Molly Morgan		
		Hin Majesty or Galloping Simon		
		Fairyland		

제가 경마계에 발을 첫 딛었을 당시, 경마방송의 프로듀서이자 감독이 사노 타카시(佐野剛)씨였습니다. 지금의 경마방송을 만드는 데 큰 공적을 세우며 첫 걸음을 내딛던 분으로 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사노(佐野)씨는 코다마를 너무 좋아해 딸의 이름마저 코다마로 지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사노(佐野)씨가 항상 입버릇처럼「코다마는 블랜드포드의 18.75, 기적의 혈량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승할거다」라며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 이 세계에 들어오기를 망설이며 어슬렁거리고 있던 저였기에,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즉, 어느 한 마리의 씨수말 피를, 3대째와 4대째에 공유할 경우(3X4)에 우수한 더러브렛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위 혈통표를 참조)

그 후, 그 기적의 숫자가 GI전선(戰線)을 뚫리게 하는 일 따위는 많이 사그라졌지만, 1996년 더비에서 우승한 후사이치콩코드가 노던댄서의 3X3이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또다시 기적의 혈량이 부활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마음이 들뜨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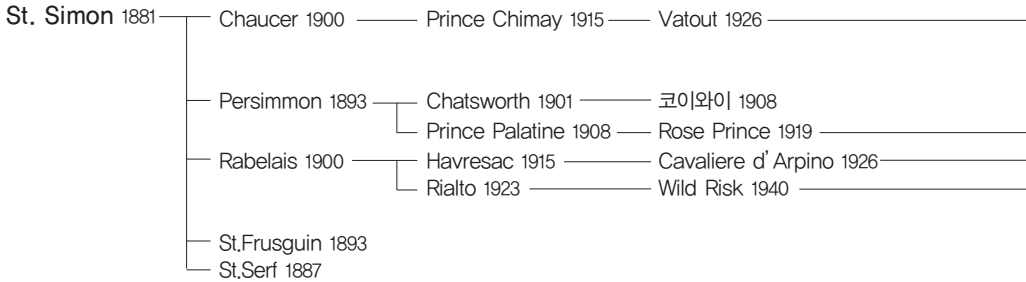
이 혈통에 관한 화제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하쿠치카라의 미국 원정 성과(成果)는, 동행했던 야스다 타카요시(保田 隆芳) 기수가 몽키기승법(Monkey crouch)을 일본에 들여온 점과, 또 하나는 워싱턴 버스데이 핸디캡 경주에서 훌륭하게 승리한 점입니다. 다만, 이 하쿠치카라의 원정 전(前)에 같은 마주의 하쿠류(Hakuryu)에게도 미국 원정 이야기가 있었으나, 당시의 프로펠라 비행기로는 하쿠류(Hakuryu)의 몸집이 너무 커 태울 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정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일족의 해외 GI마 2두를 소개하겠습니다.

몬순(Monsun)의  
무토토(Mtoto)의

자마 사뮴(Samum)  
자마 샤미트(Shaa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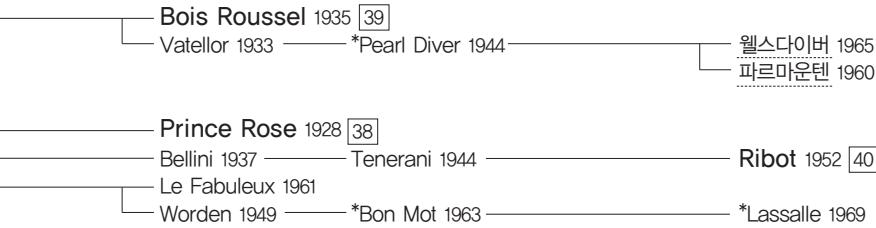
독일 더비  
영국 더비



사이린계와 세인트사이먼(St. Simon)계... 신잔(Shinzan)의 등장 전후의 일본 생산계(生産界)는 거의 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전자는 라이징플레임(Rising Flame)을 중심으로 한 스피드 우선, 후자는 힌두스탄(Hindostan)처럼 스피드뿐만 아니라 스태미나도 중시하는 쪽입니다. 클래식에서 우승하고 싶으면 일단 힌두스탄을 꺾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도 그랬던 거구요.

선데이사일런스의 코너에서, 세인트사이먼의 위대한 혈량이 지나치게 퍼져 영국에 선 직계(直계)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경마에서도 영국에게 강렬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에 그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 세대 후, 화산이 폭발하듯 부활을 도모합니다. 부활 후의 세인트사이먼(St. Simon)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프랑스산의 와일드리스크(Wild Risk)와 부아루셀(Bois Roussel), 이탈리아의 리



보(Ribot), 벨기에의 프린스로즈(Prince Rose) 등, 모두들 프랑스에서 공기를 들이마신 심장을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프랑스가 어느 정도 영국을 의식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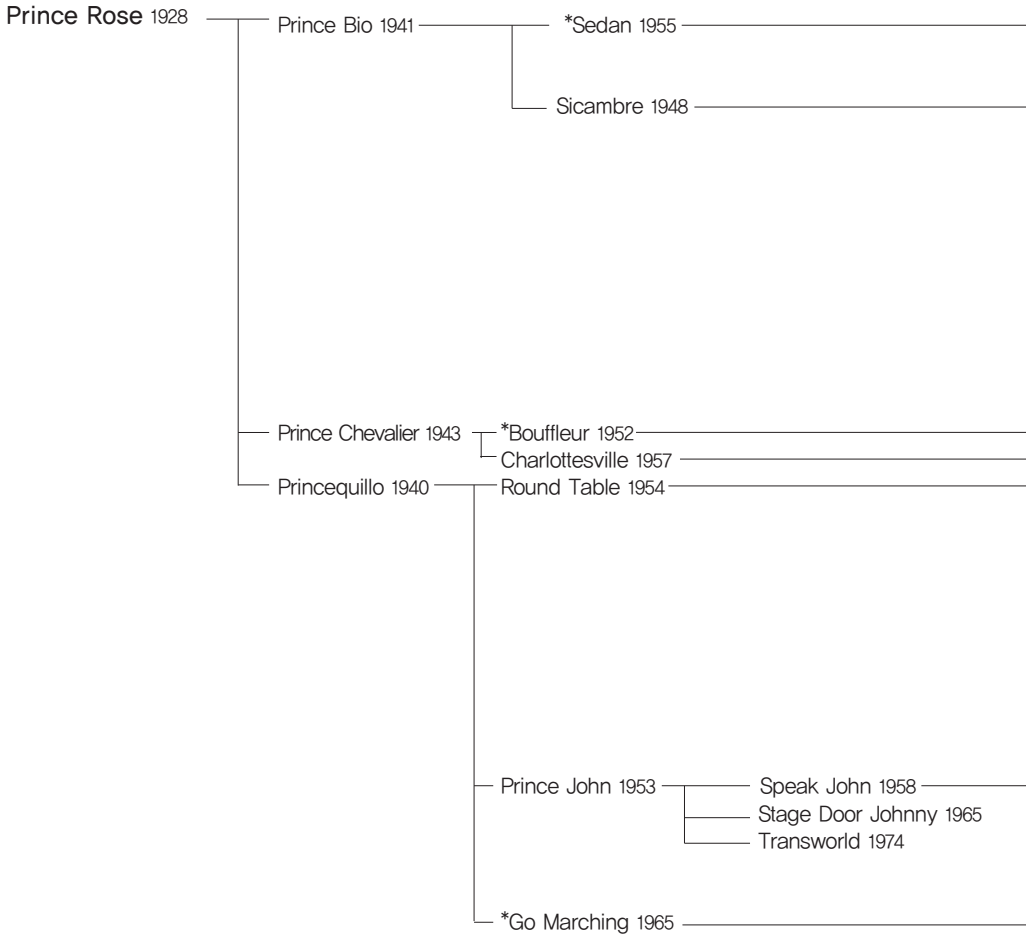
프랑스의 거리표시는 펄롱(Furlong)이 아닌 미터(m)이고, 클래식 경주에 관한 것도 보통 「프랑스 더비」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자키(Jockey) 클럽상 2400m」입니다. 물론 다른 경주도 마찬가지 이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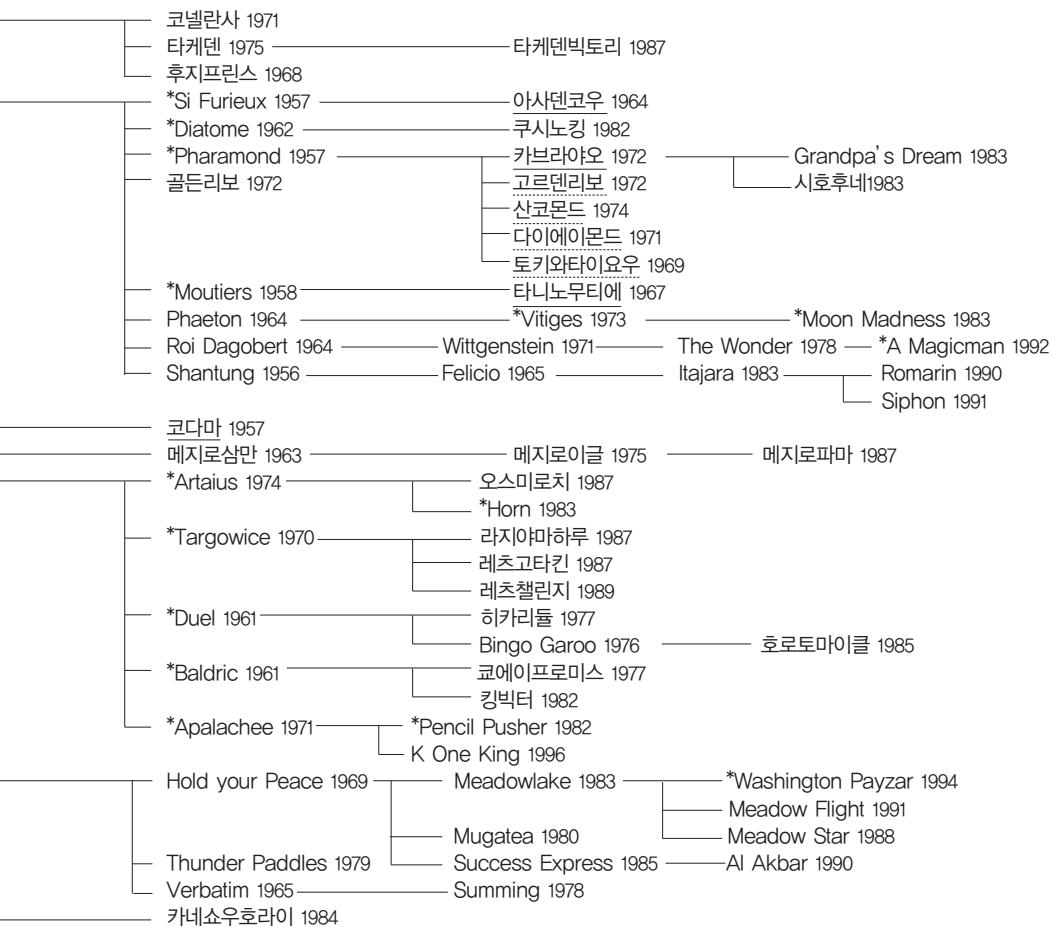
최근에는 구미(歐美) 클래식 호스의 씨수말이 일본에 와도, 특별하게 화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나라에서 애지중지하는 말이 일본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경마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38

세인트사이먼(St. Simon) - 프린스로즈(Prince Rose)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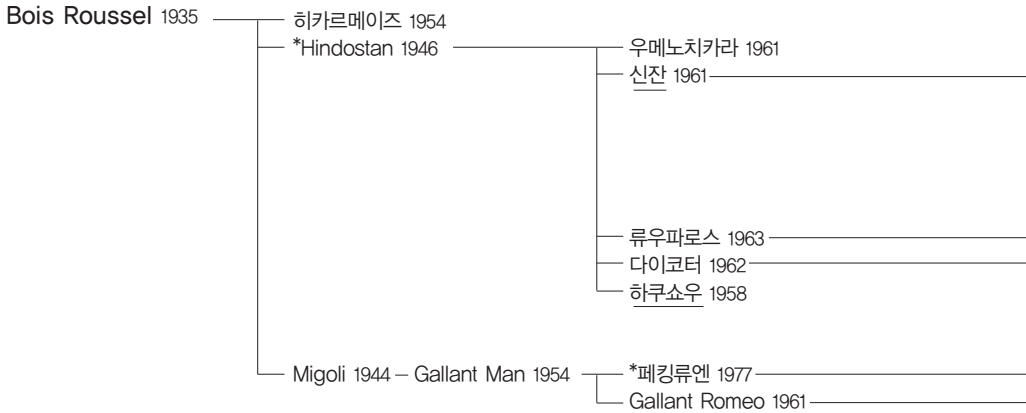
여기에 보플러(Bouffleur)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힌두스탄(Hindostan)과 함께 수 입됐으나, 그 “함께”라는 말에 별다른 의미는 부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역(主役)보다도 먼저 더비마를 배출하게 되죠.

이 계통에는 개성이 넘치는 더비마들의 이름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만, 1970년 전후의 일본에서도 세인트사이먼(St. Simon)계 프린스로즈(Prince rose) 라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재팬컵(Japan Cup)에서 일본 말에게 기회의 빛이 다가옵니다. 1983년 시바타 마사토(柴田政人)씨가 기승했던 쿄에이프로미스(Kyouei Promise)입니다. 어쨌든 눈곱 차이로 스타네라(Stanerra)와의 접전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레이스 후에 골절로 판명됩니다. 해외마(海外馬)에게 패배한 일본 팬들은 쿄에이프로미스(Kyouei Promise)의 투지에 진정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이듬해 JC, 쿄에이프로미스(Kyouei Promise)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카츠라기에이스가 출전 우승합니다.

그리고, 메지로파머(Mejiro Palmer)도 우리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평지경주에서 장애물로, 그리고 다시 평지경주로 돌아오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결국, 1992년「다카라츠키기넨(宝塚記念)」까지 쓸어버립니다. 연도대표마 자리는 2관마 미호노브루혼에게 양보하긴 하였으나, 아버가 메지로이글(Mejiro Eagle)인 것도 그렇고 팬에게 있어서는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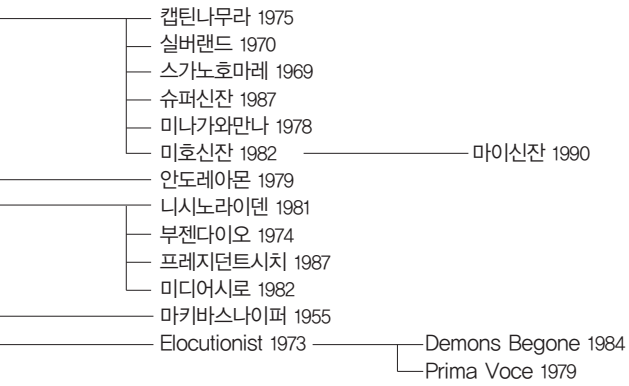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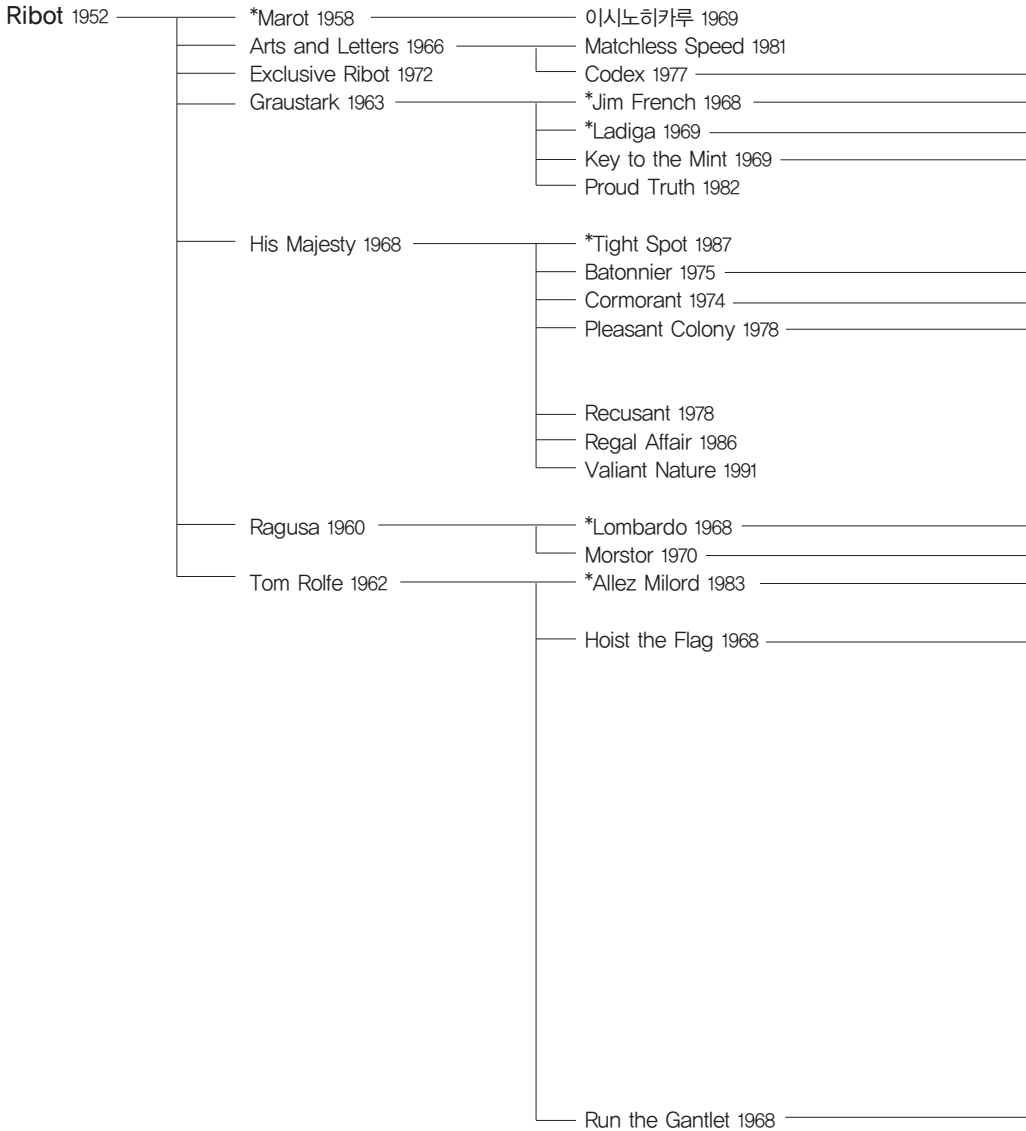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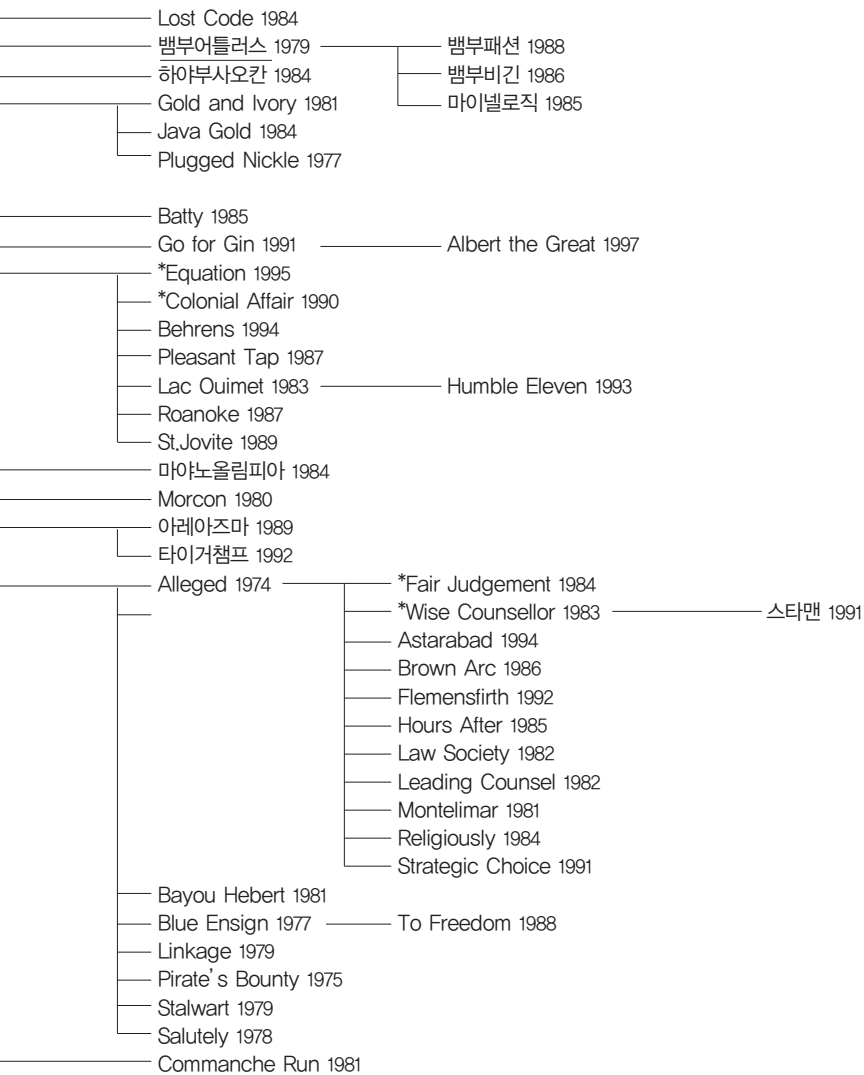
영국의 더비마이며, 동기(同期)로는 네아르코(Nearco) 등이 있습니다. 히카리메이지는 그의 포입말(어미말이 임신한 상태에서 수입되어 낳은 망아지)였습니다. 마르젠스키(Maruzensky)보다는 훨씬 전(前)의 이야기이지만, 더비에 출전이 가능했기에 우승까지 해버립니다.

이 계통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 바로 힌두스탄(Hindostan)입니다. 힌두스탄의 모색은 흑갈색(Dark Bay)으로, 선조 세인트사이먼(St. Simon)보다도 유전력이 강했던 탓일까 자마들은 갈색(Bay)밖에 없습니다. 이 계통은 신잔(Shinzan), 미호신잔, 마이신잔... 이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신잔에게 이기지 못했던 우메노치카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타니오김렛 (수말, 1999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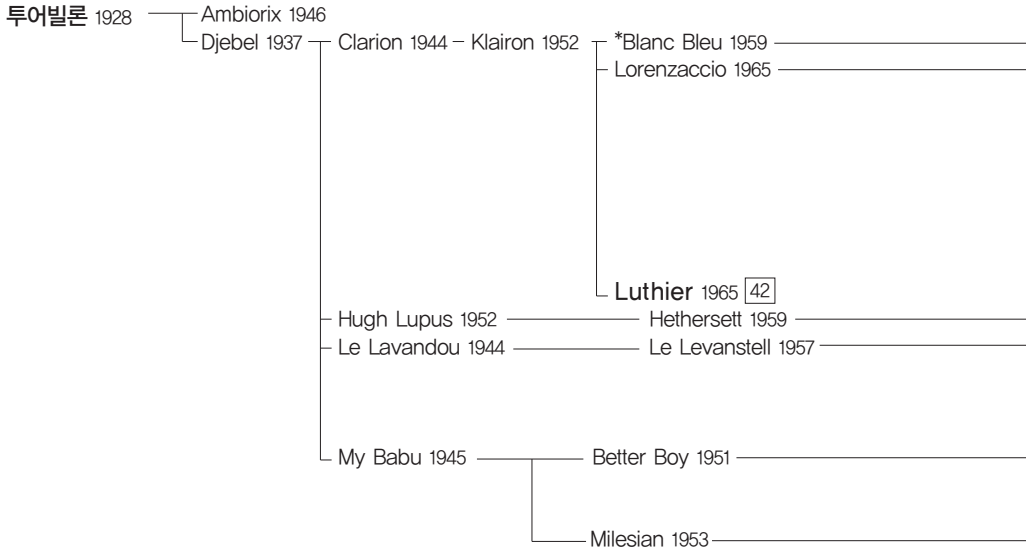
父 *브라이언즈 타이무 1985	Roberto 1969	Hail to Reason 1958	Turn-to	Royal Charger
			Nothirdchance	Source Sucee
		Bramalea 1959	Nashua	Blue Swords
			Rarelea	Galla Colors
	Kelley's Day 1977	Graustark 1963	<b>Ribot</b>	Nasrullah
			Flower Bowl	Segula
		Golden Trail 1958	Hasty Road	Bull Lea
			Sunny Vale	Bleebok
				Tenerani
				Romanella
母 타니노 크리스탈 1988	*크리스탈파레스 1974	Caro 1967	*Fortino	Alibhai
			Chambord	Flower Bed
		Sea-Bird 1962	Sicambre	Roman
			Vieille Pierre	Traffic Court
	*타니노시바드 1972	Sea-Bird 1962	Dan Cupid	Eight Thirty
			Sicalade	Sun Mixa
		Flaxen 1968	Graustark	Grey Sovereign
			Flavia	Ranavalo
				Chamossaire
				Life Hill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2전 영국 1전, 총 16전16승입니다. 5펄롱에서 15펄롱, 12펄롱에서 개선문상 2연패를 포함하여 6승을 기록합니다. 그의 피를 이어받으며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말이, 미국 연도대표마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온 타이트스팟(Tight Spot)에 브라보그린, 그리고 JRA 소속이면서 NAR 그레이드경주에서 승리한 혼워드테티스와 니시노에레킹이 있습니다. 또한, 아레미로드(Allez Milord)에는 화려한 스피드의 베라미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더비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승리한 뱀부어틀러스(Bamboo Atlas)를 거쳐 아그네스퍼레이드, 엘카사 리버(El Casa Rever), 뱀부게네시스, 프레이리크린, 뱀부마리아치 등도 있습니다. 탭댄스시티(Tap Dance City)도 같은 동족(同族)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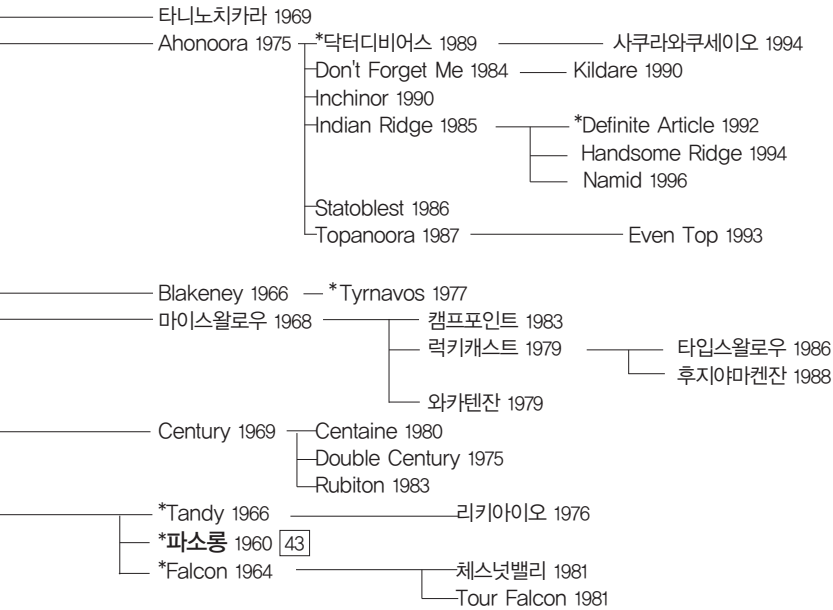
위의 02년도 일본 더비마 타니노김렛의 혈통표를 보십시오. 양친(兩親)에게 리보(Ribot)의 이름이 있습니다. 더비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기술, 골인 직전에 상대방을

앞지르는 기술에서 그의 혈통임을 눈치 채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해외에서도 알레지드(Alleged)의 자마인 아워즈애프터(Hours After, 프랑스 더비)와 샨토(Shantou, St. Leger Stakes)가 있으며, 아츠앤레터즈(Arts and Letters)에게는 코텍스(프리크니스S), 자바골드(Java Gold)에게는 미국 베스트스프린터에 선발된 코너골드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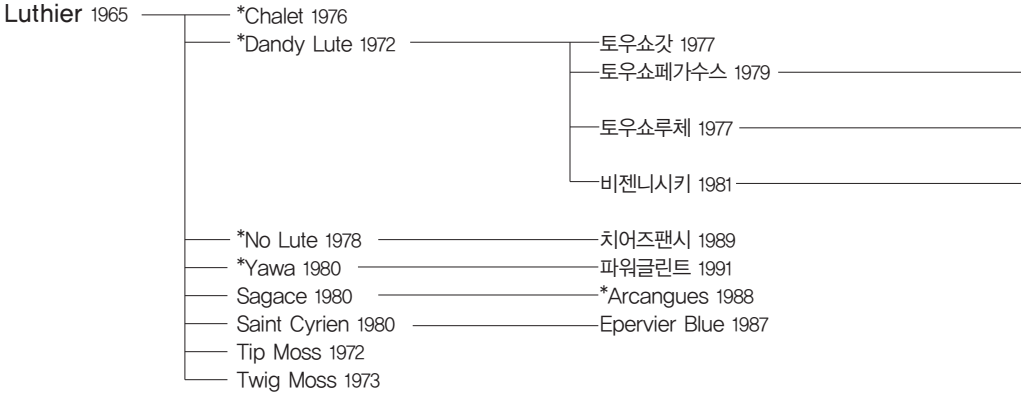


경주마로서 인정받기위해 더러브렛 교배상대로 하기에는 괜찮았으나, 1913년의 「스터드북」제22권에 실려 있는「더러브렛이란, 양친 모두가 제너럴 스테드북에 게재된 것을 말함」... 이 문구가 투어빌론(Tourbillon)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 문장은 저지 경(卿)이라는 사람이 제안했기에“저지 결의안”이라고도 합니다만, 母 더반(Durban)의 양친(5대 전부터 불명)이 「제너럴 스테드북」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Cillas 와 Coaraze 2두가 프랑스 더비마, 개선문상의 제벨(Djebel), 카라카라Ⅱ 등의 아버이긴 하지만, 이 혈통이 공식적으로 더러브렛이란 것을 인정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속됩니다.



공식적으로 개정된 것은 1949년 「제너럴 스타드북」 제31권에 실려 있는 다음의 문장이 있었기에 가능해집니다. 「8대 또는 9대까지의 조상이 혈통임에 의심치 아니 되고, 적어도 100년 전까지의 조상이 정확하며, 혈통종(血統種)임을 뒷받침 해주는 좋은 경기성적이 있었기에 제너럴 스타드북에 등록하는 바이다.」

이 계통에서 비교적 새로운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닥터디비어스(Dr. Devious)라는 말인데요, 그에게는 타케이치켄토, 런던브릿지, 오버더월(Over The Wall)등, 해외에서는 아일랜드 1000기니의 포레스트플라워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투어빌론(Tourbillon)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말은 루피에(Luthier) 라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본에서의 씨수말 활용기간은 짧았으나, 훌륭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단디루트(Dandy Lute)의 혈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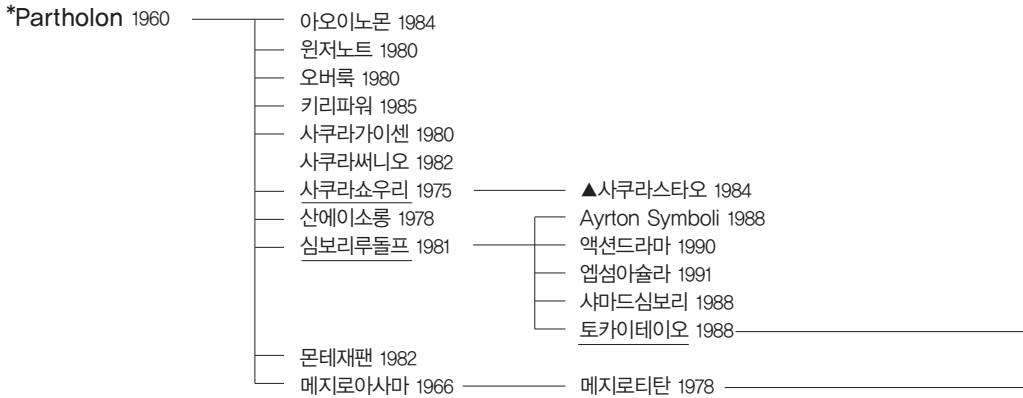
01년 7월에 세상을 떠난 노히라 유지(野平祐二)씨가 유럽에서 픽업한 1두로, 「이름처럼 남자답고 듬직하구먼!」라고 말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자식인 비젠니시키는 2000m 까지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심보리루돌프(Symbori Rudolf)를 상대로 한 사츠키쇼(皐月賞, 1984년)에서는 사투(死鬪)를 벌일 정도로 힘겨운 레이스였습니다. 그의 스피드 능력은 자마들이 물려받고 있습니다. 다이타크헬리오



스(Daitaku Helios)를 거쳐 다이타크야마토, NAR에서는 클래식홀리데이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단디루트(Dandy Lute)에게는 토쇼우우페가수스가 있으며 그의 딸은 스에히로쥬오(末広女王)입니다.

또한, 노루트(No Lute)에는 장애물경기에 유명한 프로이드마인드, 야마히사로렐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NAR이라고 하면 이 일족(一族)이 빠질 수 없죠. 바로 블루로빈슨, 알알란(Al Alain), 하이텐션별 등의 활약마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리딩사이어 2회... 화려했던 씨수말로서의 삶에 비해 2회라는 숫자가 의외라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 연도 자마는 야마토다케이며, 스피드가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지로아사마가 3200m 텐노쇼(天皇賞)를 제패한 이후에 스피드 우선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장거리 적성능력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쿠라쇼우리가 일본 더비를 제패함과 더불어 우수한 경주암말을 탄생시킵니다. 타케후부키(1972년), 나스노치구사, 토오코우엘르사와 함께 3년 연속 오크스를 제패하는 위업도 달성합니다. 이후, 황제라 불리던 심보리루돌프(Symboli Rudolf)를 세상에 내보내는 그의 삶은 정말로 훌륭했었습니다.

이 계통의 자손들에게 걸었던 크나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지로아사마→

— 토카이포인트 1996

— Atomic Thunder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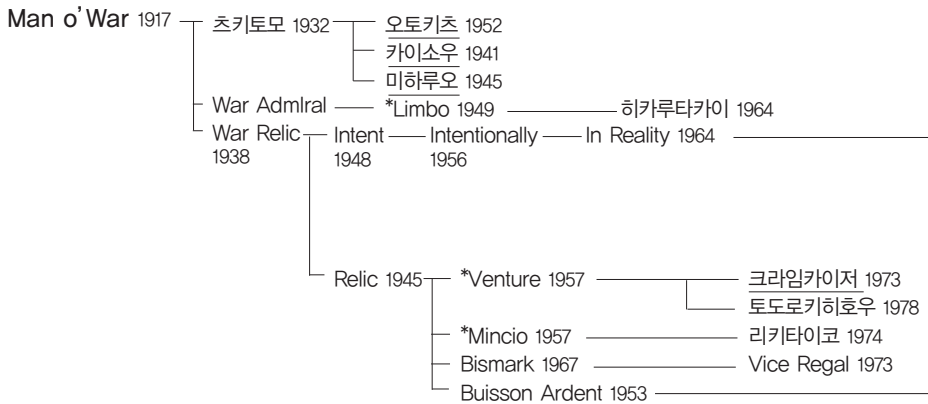
— 메지로마크인 1987

— Grandacteur 1998

메지로티탄→메지로마크인으로 연결되는 텐노쇼 3대 연속 제패의 꿈이었죠. 그것도 기록 갱신의 꿈…….

마주이자 생산자인 메지로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도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메지로마크인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내 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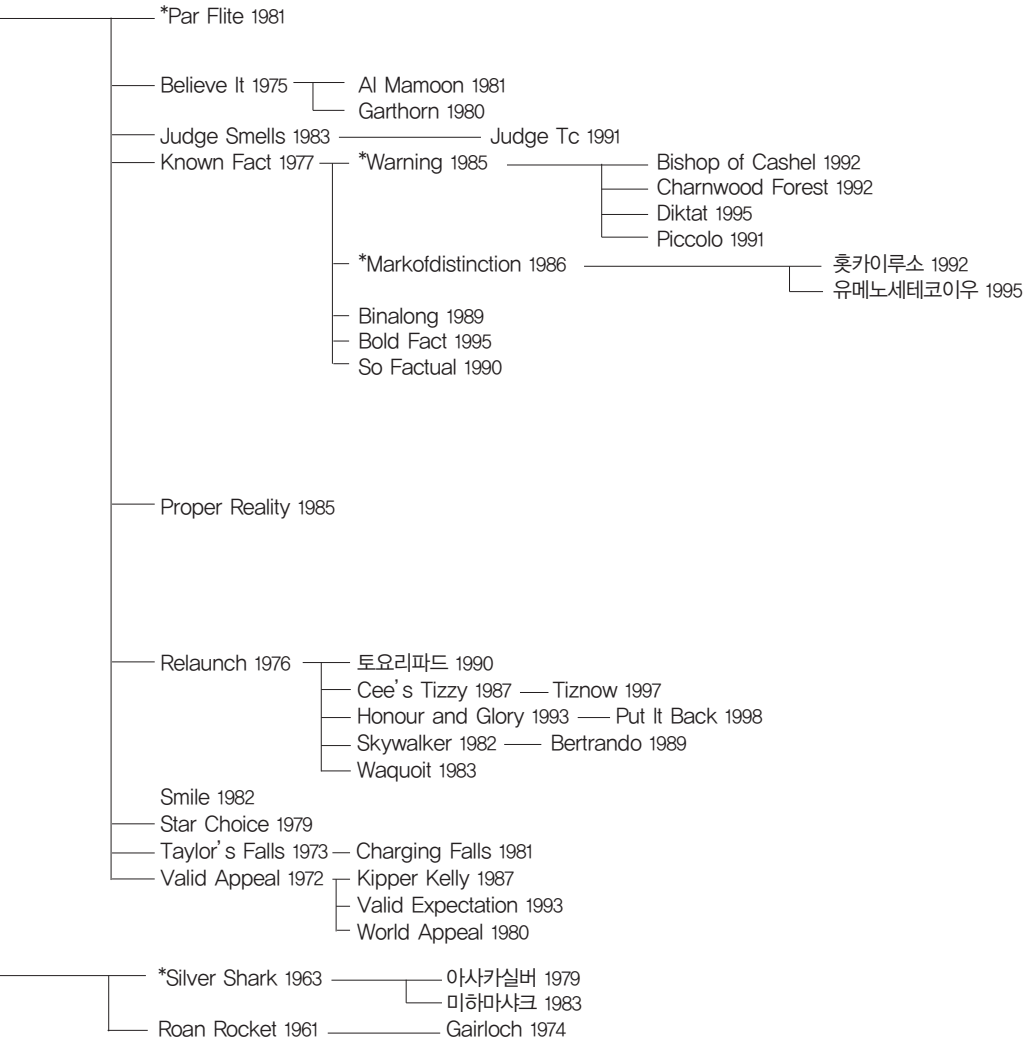
그 메지로마크인의 자마에는 에이다이퀸과 타임페어레이디, NAR에서 승리한 사라도르코가네, 윈어드반스, 그리고 심보리루돌프(Symbori Rudolf)에게는, 02년에 좋은 실적을 거둔 토카이테이오와 마일드챔피언S를 제패한 토카이포인트가 있습니다. 3대 연속 GI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NAR 쪽에서는 심보리미사키, 루돌프로드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원저노트에게는 윈드필즈가 있습니다.



「빅 레드」이라고 불리던 맨오워(Man O' War)는, 아직까지도 미국 더러브렛의 보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성적은 21전 20승이며, 경주마로서도 씨수말로서도 아주 훌륭한 종(種)이죠. 해외에서의 끊임없는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모국(母國)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오리지널 미국산입니다. 그런데, “Big”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그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체고가 자그마치 170cm를 넘었다고 합니다.(「하이페리온의 코너」를 참조)

맨오워(Man O' War)도 2위과의 큰 거리 차이로 승리한 적이 몇 번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의 증손인 히카루타카이가 1968년 교토 텐노쇼(天皇賞)에서 2위이었던 타이요우와의 거리를 크게 벌리며 압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계통에서 최근에 활약하고 있는 말은, 워닝(Warning)으로부터 마이니치(毎日) 왕관을 빼앗은 아누스미라비리스(Annus Mirabilis), 리런치(Relaunch)에게는 외국산 에이신빈센스가 있고, 시즈티지(Cee's Tizzy)에게는 미국 연도대표마 티즈나우(Tiznow) 등이 있습니다.





## [부록] 우수한 암말 계보에 꿈을 실어서

### 명마(名馬)는 어미의 피에서

약 100년 전,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 「말 보단 식량이 우선이다」라는 시대에도 생산자들은 일본 더러브렛의 부흥을 도모하기위해 수입했던 암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조들의 의지가 오늘날 훌륭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먼저 1907년에 코이와이 목장(小岩井牧場)이 수입했던 암말들의 이름을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 ● 1907년, 코이와이 목장(小岩井牧場) (수입연령) Family No.

어스터니시먼트 Astonishment	(6세)	7
트롯스타 Trot Star ... 실크로드S, 타카마츠노미야키넨(高松宮記念), 스프린터S		
타임페어레이디 ... 플라워C		
핫시크릿 ... 메구로키넨(目黒記念), 스테이어즈S		
사일런트헌터 Silent Hunter ... 케이오배(京王杯)SC		
쇼난컵 ... 타카마츠노미야키넨(高松宮記念), 스완S		
이리턴트 Irritant	(7세)	
웻세일 Wet Sail	(10세)	9

체크메이트 ... 동경신문배, 더비경C.T.		
카운터스캔들	(11세)	씨수말단기사망
킨드러 Keendragh	(10세)	1
굿페이스	(6세)	
클론퍼트 Clonfert	(5세)	
햄프톤체리 Hampton Cherrey	(9세)	단기사망
팜비치 Palm Beach	(8세)	
뷰티풀드림러 Beautiful Dreamer	(5세)	12
티엠오션 ... 톨립상, 오까쇼(桜花賞), 아끼바쇼(秋華賞), 삿포로키넨(札幌記念)		
미야기로드리고 Miyagi Rodrigo ... 후쿠시마키넨(福島記念)		
기프티드크라운 Gifted Crown ... 동경 여름 J, 코쿠라 여름 J		
조텐브레이브 Jouten Brave ... 요미우리마일러즈C, 엡손C		
타마모히비키 ... 코쿠라대상전(小倉大賞典)		
야마닌리스펙트 ... 하코다테키넨(函館記念)		
페어페기 Fair Peggy	(6세)	6
프러스트레이트 Frustrate	(8세)	1
야마카츠스즈런 ... 퀸S, 마메이드S		
프로폰티스 Propontis	(11세)	4
메가스타덤 ... 라디오단파배 2세S		
토호엠펜라 ... 마일챔피언, 남부배(南部杯)		
프로리스컵 Florrie's Cup	(4세)	3
미스즈샤르맹 ... 코쿠라대상전(小倉大賞典)		
토호드림 ... 오사카배(大阪杯)		
사담블루스카이 ... 하코다테(函館) 2세S		
메지로마이어 ... 키사라기쇼		
【地】히미쯔헤이키 ... 유니콘S		
브레이크타임 ... 케이오배(京王杯)AH		
헬렌서프 Helen Serf	(5세)	16

히시미라클 ... 기까쇼		
보니낸시 Bonny Nancy	(5세)	10
칼스톤라이트오 Calstone Light O ... 아이비스서머대쉬		
미스모건	(7세)	씨수말단기사망
라인 Rhine	(8세)	5
더블해피니스 ... 무사시노(武蔵野)S		
라발레리 La Valerie	(9세)	

이상으로 20두이었습니다. 각각의 연령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십시오. 브루스로우의 암말계 패밀리 넘버입니다. 브루스로우에 의한 것으로, 5대 클래식에서 암말이 승리한 승수(勝數)를 계산하여 작성한 패밀리 넘버가 발표된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895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2년 후, 이미 코이와이 목장(小岩井牧場)에서도 번식 암말의 선정기준으로서 패밀리 넘버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코이와이 목장(小岩井牧場)의 의뢰를 받아 말들의 구입을 담당했던 시모후사고료(下総御料)목장의 목장주는 니야마 소스케(新山莊輔)씨입니다. 옛 서적을 살펴보면, 도산 위기의 목장을 구입하여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戰後) 일본 암말계에 큰 영향을 준 것이 1953년(일본 도착은 54년)에 경종마생산농협동조합(輕種馬生産農業協同組合)에 의해 수입된 번식 암말 19두입니다. 그 자마들의 이름에는, 일본 더비를 제패했던 말들도 있습니다. 코이와이 목장(小岩井牧場) 못지않게 시모후사고료(下総御料)목장도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 1953년 경종마생산농협 (수입연령) Family No.

아쿠아뷰테	(6세)	
이사벨린 Isabelline	(11세)	10 히카루메이지(일본 더비 등) 코마츠히카리(일본 더비 등)
워터뮤직 Water Music	(8세)	2 치토세미노루(구 NHK배)

에어룸 Air Room	(7세)	16
키보드 Keyboard	(12세)	마사타카라(올카머 등)
크라니코 Clarnico	(13세)	4
씨니모드	(13세)	
스파키 Sparky	(11세)	
다버리 Darbury	(9세)	12 미스하츠라이(아사히 챌린지컵)
칠윈드 Chill Wind	(9세)	9 메이즈이(일본 더비 등)
대니저	(11세)	2
토토레르 Tourterelle	(6세)	시저(다카라츠키카넨 등)
히키요라마	(8세)	1 호마레류우(다카라츠키카베)
페어하니 Fair Honey	(12세)	페어윈(일본 더비)
플레임파이어	(9세)	10 톱런(한신대상전 등) 퀸온워드(고베배 등)
홀드타이트 Hold Tight	(11세)	5 미스온워드(오까쇼, 오크스 등)
메달리온 Medallion	(13세)	3 미스이에류우(아시히 챌린지컵)
라이오네즈 Lyonnaise	(11세)	1
로렐제세컨드	(11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경마계에 처음 입문했을 당시, 혈통 면에서는 그 때가 가장 훌륭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에는, 1960년 더비마인 코다마의 아버지가 Bouffleur, 어미는 현재에도 생산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암말 시라오키, 2관마에서「카미소리」라고 불리었었죠. 1998년에 스페셜위크(Special Week)가 더비마가 되었을 당시, 혈통표 모계 안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었습니다. 바로 시라오키였습니다. 약 40년 만의 재회였었죠.

그리고 코다마와 같은 해에 오크스마가 되며, 아리마기념(有馬記念)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로치 계의 조상이 스타로치(Star Loch)였습니다.

이런 기분들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암말 계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꼭 들려 드리고자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 시스터토우쇼 목장과 토우쇼(藤正)목장

토우쇼(Tosho)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암말은 1957년산 소셜버터플라이(Social Butterfly)입니다. 마주인 후지타 마사아키(藤田正明)씨의 오른팔이며, 초창기 시절부터 목장 일에 관여하고 있던 누마다 마사히로(沼田正弘)씨의 관심으로 1966년 미국에서 수입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父 유어호스트(Your Host)는, 당시 자마로서는 세계 최고의 상금을 획득한 켈소(Kelso)가 각광을 받고 있던 시대였던지라, 구입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천마(天馬) 토우쇼보이(Tosho Boy)는 씨수말로서, 3관마 미스터씨비(Mr.C.B)를 배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족(一族)에는 씨수말과 씨암말 모두 훌륭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브루스로우의 계보에서 맨 첫 번째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장에는 그와 병행하도록 다른 기초 암말계가 두 가지 있으며, 양쪽 모두 독자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시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 훌륭한 가지들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 온 비바돈나(Vivadonna) 계... 심보리의 와다 토모히로(和田共弘)씨와 메지로의 키타노 토요키치(北野豊吉)씨 등이 모여, 유럽 내 일본인 마주들의 말들이 달릴 수 있도록「일본 호스맨 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며, 롬바드(Lombard)나 단디루트(Dandy Lute)등의 말을 손에 넣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바돈나(Vivadonna)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클럽에서, 그리고 노히라 유지(野平祐二)씨의 제 1호 승리마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바돈나(Vivadonna)는 토우쇼목장 혈통으로 맺어 있으며, 사파이어스테이크스, 아사히(朝日)챌린지컵 등과 더불어 로컬그레이드를 승리한 누에보토우쇼 등이 대표 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계통표에 있는 프로리스크업(Florrie's Cup)에서 시라오키로

연결되는 혈통입니다. 히다카타이요우(日高太陽)목장의 스페셜위크(Special Week) 등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다카타이요우(日高太陽)에서는, 현재 사사키(佐佐木)씨의 부친이 시라오키 혈통에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본류(本流)에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본류이며 지류(支流)인가는 활약한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겠죠.

그럼, 토우쇼(Tosho)목장과 플로리스컵(Florrie's Cup)과의 인연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을까요? 실은, 목장주였던 후지타(藤田)씨도 누마다(沼田)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말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마다 씨는 근위병(황실의 호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병사)이었기 때문에 말을 보는 눈이나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후지타씨는 군대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말과의 인연을 맺은 다음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8년 목장을 개설했을 당시, 기초 암말로서 주목한 것인 시라오키계이었습니다. 경매에서 1965년산 로즈토우쇼(Rose Tosho)에 관심을 갖고, 카마다(鎌田)목장으로부터 구입합니다. 처음으로 구입한 기초 암말이 되는 거죠. 이 계통의 현재까지의 활약을 보면, 후지타(藤田)씨는 물론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경마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1968년까지 약 10년간 타이세이호프(58년 사츠키쇼), 가넷 Garnett(59년 텐노쇼, 아리마기념), 코다마(61년 사츠키쇼, 일본 더비), 신즈바메(61년 사츠키쇼), 야마니모아(61년 텐노쇼), 켄호우(62년 기까쇼) 등이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훌륭한 멤버들은 전부 플로리스컵(Florrie's Cup) 계입니다. 혈통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65년산 로즈토우쇼(Rose Tosho)의父 튜더페리엇은 1961년 12월수입이며, 일본에서의 자마들 데뷔는 64년이었으나, 65년산에 슈퍼급 말이 등장합니다. 교세이(京城)배, 닛케이쇼(日経), 케이오(京王)배 가을 핸디캡 등의 우승마 라이트월드입니다. 타케시바오의 라이벌이었다라고 말하면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그의 터프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지타(藤田)씨는 국회의원을 거쳐 참의원 의장까지 역임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

만, 토우쇼목장에는 정치가들이 방문하는 일 따위,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더러브렛에 관한 장소에서는 오너 브리더로서「경마에서 얻은 것은 경마에게 되돌려 준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씨수말이 된 토우쇼보이(Tosho Boy)도 신디케이트의 형태가 아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히다가경종마농업협동조합에(日高輕種馬農業協同組合) 투자되고 있습니다.

토우쇼보이의 관계자는, 씨수말 성적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번식 암말을 고를 수 있는 신디케이트였다면 리딩 사이어의 자리도 석권할 수 있었다」며 아쉬운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단지「토우쇼보이 자신은 3두 분의 권리가 있고, 그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된 암말들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브루드메어 시라오키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혈통의 피를 이어가기 위해서 암말의 탄생을 기원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시스템토우쇼 등이 그토록 바라던 1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母 코니스토우쇼는 아비인 단디루트(Dandy Lute)의 날씬함을 물려받았으나, 토우쇼보이와의 교배에 의해 앞가슴과 허리가 포동포동한 시스터가 태어났습니다.

이 계통은 아들, 손자, 증손과 함께 훌륭한 암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카네후쿠키타루의 母 아테네토우쇼보이도 같은 혈통의 교배입니다.

더러브렛 생산자들이 반드시 입에 올리는 말이 있습니다.「증명된 암말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말이 탄생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가능성의 소지가 이 목장에는 있었습니다.

후지타(藤田)씨는 번식 암말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스피커에서 마치를 흘러보내고, 그 박자에 맞춰 움직이게 했던 거죠. 매일 아침,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앗! 토우쇼 운동회다」라며 주변에서 말 하곤 했습니다. 후지타씨는 여유가 생길 때면 경매장에 들러 더러브렛을 감상하며,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전업으로 목장을 경영할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프로리스컵 1904

제4 프로리스컵 1912

프로리스트 1919

송미나미호마레 1939

제2 프로리스트 1927

스타컵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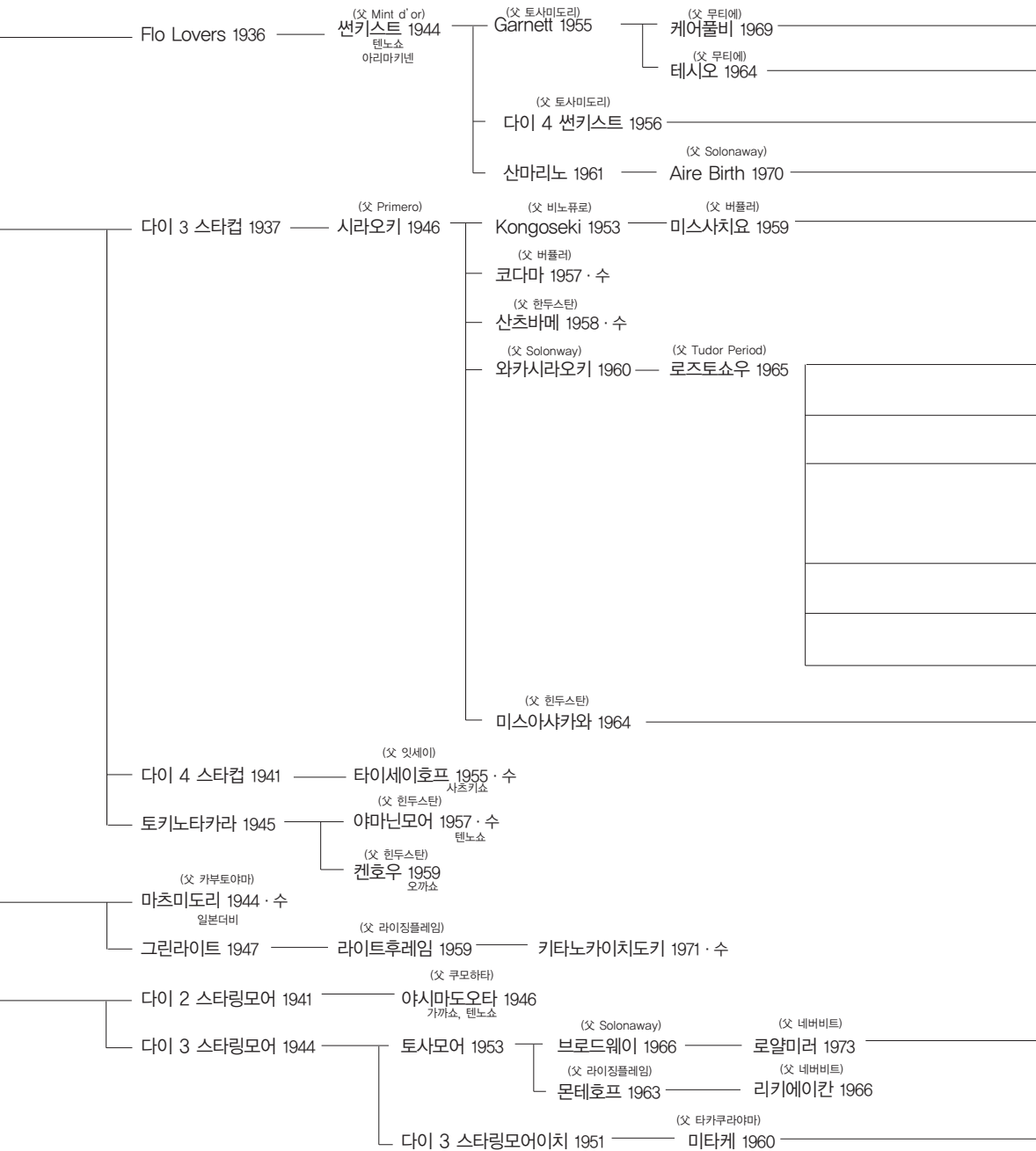
제6 프로리스컵 1915

가에이 1923

茉織 1938

제9 프로리스컵 1924

스타링모어 1929



(父 돈) 실버나이키 1978 (父 노아텐손) 사쿠라사사야키 1988 (父 메지로리언) 토호우드림 1997 · 수

(父 Faberge) 케이파버 1977 (父 야마닌스키) 쿨리지 1983 (父 사키보이) 메지로에르나스 1992 (父 사쿠라바쿠신오) 메지로마이어 1999 · 수  
키사라이상

(父 Will Deal) 다테텐류 1967 · 수

(父 신잔) 마이של 1975 (父 토소우보이) 셀렉트썬키스트 1981 (父 Plualisme) 셀렉트레몬 1991 (父 라스트다이얼) 사람블루스카이 1999 · 수

(父 Vimy) 사치카마다 1968 (父 코인트실버) 후쿠쇼우카마다 (父 프린스오브브라스) 호마레노프린스 (父 딘힐) 브레이크타임 1997 · 수

(父 차이나록) 투우쇼록 1971 · 수

(父 실버사크) 그레이투우쇼 1981 (父 투우쇼보이) 아테네투우쇼 1981 (父 Crystal Glitters) 마치카네후쿠키타루 1994 · 수

(父 던디루트) 코니스투우쇼 1977 (父 투우쇼보이) 시스터투우쇼 1988 (父 투우쇼보이) 투우쇼오리온 1993 · 수

(父 힌두스탄) 린다세노리피 1966 (父 세단) 야마토샤르멩 1973 (父 파소롱) 산에이소롱 1978 · 수

히데하야테 1969 · 수 (父 브레이베스트로만) 골드에우미 1986 (父 토나반) 미스즈샤르멩 1995 · 수

(父 플루반) 레이싱그레이스 1977 (父 로알나잔스키) 騙 와이드베틀

(父 세인트크리스핀) 레이디사라오키스 1978 (父 마르첸스키) 캠페인걸 1987 (父 선데이사일런스) 스페셜위크 1995 · 수  
일본다미

(父 Romulus) 미스시라오키 1975 (父 카타노카도키) 주디어레스트 1983 (父 다미스타) 地 히미초헤이키 1999 · 수

(父 렉키스블린) 타카노호히메 1989 (父 린드세이버) 루스나이크리스티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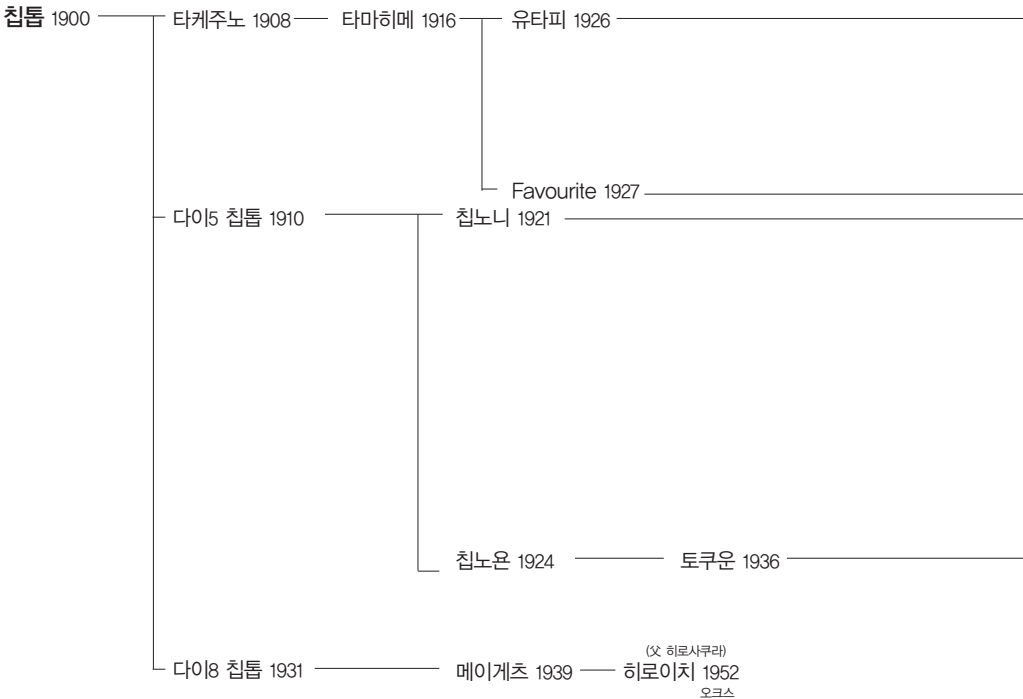
(父 저블린) 코이치스테어 1968 (父 하이세이코) 카츠라노하이세이코 1996  
일본다미, 텐노쇼



### 타카세(高瀬)목장과 로지타 패밀리

1903년에 북해도청종축장(北海道種畜場)이 수입해 온 암말계입니다. 과연 1세기에 걸쳐 일본 풍토에 길들여진 혈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귤러멤버, 이브키거버먼트, 로지타패밀리가 활약하고 있는 암말들입니다. 한편, 코이와이목장(小岩井牧場)은 그 4년 후에 같은 가계(No.4) 메가스타덤 등이 있는 프로폰티스(Propontis) 계를 수입해 옵니다.

칩톱과 인연이 된 것은 이치신히카리의 시작을 계기로,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통은 모리타의 현역 시절의 경주성적, 번식으로서의 활약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주위로부터 큰 주목을 받습니다. 칩톱을 도입한 경위에 대



해서는「외국산은 이것저것 세심한 부분까지 전부 조사해야한다. 하지만, 국내산의 경우 일본에서의 적응성이나 성적 등은 바로 조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치신히 카리의 母 뉴라이트는 아사히(朝日)의 아사카와(浅川)씨가 데리고 있던 말이라든가, 형제의 성적도 좋고, 그 성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든지...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카세(高瀬)씨와의 인연이 오랫동안 유지된 계통은 그들의 개성 또한 독특하면서도 다양합니다.

로지타의 母 멜로우마당(Mellow Madang)은 신마이면서 신기록으로 승리하며, 2번째 도전에서도 또 다시 신기록을 세우며 승리합니다. 4번째에서는 골절로 은퇴... 이 계통에서는 드물게 4전3승으로 은퇴합니다. 상당히 영리한 말로「어디가 아프니?」라고 물으면「여기~」라고 하듯 다리를 들어 올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앞에서 욕이라도 하면 바로 인상을 찌푸렸다고 하네요.

그의 3번째 자마가 로지타이며, 성격이 상당히 다혈질로, 경마장에서는 항상 마사

(父 레이몬드)

유타피치치[호시호마레] 1936  
오코스

프류 1944

Bessie 1949  
Bessie 1953  
뉴들 1954  
게이프류 1956  
아이류 1960

쉬프트 1944

플레임퀸 1954

레뷰톱 1938

뉴라이트 1945

이치신히카루 1964

오미네 1948

우라츠키호마레 1953

콘티넨탈 1962

의 벽을 발로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멜로우마당(Mellow Madang)의 누이 밀포드스루(Milford Slew)는 타카세(高瀨)씨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스루더드래곤(Slew the Dragon)을 교배하고 런포더드림(Run for the dream)을 배출합니다.

로지타의 다혈질은 그의 딸 시스터소노(Sister Sono)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시스터소노(Sister Sono)는 경주마로서 많은 관심을 받지만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드메어로서의 우수함은 레귤러멤버(97년산, 카와사키키넨 등)가 잘 이어받게 되죠.

「원래 레귤러멤버는 워닝과 교배시킬 예정이었으나, 커멘더인치프(Commander in Chief)가 그 대상이 됩니다. 장거리를 생각해서 선택했던 거죠」

시스터소노(Sister Sono)의 동생에게 대박을 기대할 만한 물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오스미선데이(Osumi Sunday)입니다. 야요이쇼(弥生賞) 2위로 그 해에 클래식 우승 후보마 중 1두였습니다. 타카세(高瀨)씨에게는 다시 올 수 없는 찬스였던 거죠.

(父 Si Fuleux)  
아사덴코우 1964  
일본더비

아사오기 1963  
세히키히카루 1961

(父 차이나폭)  
스피드키요후지 1970

(父 마당)  
멜로우마당 1981

(父 밀조지)  
로지타 1986  
NAR 3관

(父 스마코바크리크)  
티케이레이디 1996  
NAR동경3세 우승압달

(父 스루더드래곤)  
밀포드스루 1988  
신잔카넨  
하코다테3세S

(父 리얼사다이)  
런포더드림 1994  
아사히헬린지C

(父 테스보이)  
메리브라이트 1969

(父 세단)  
피치컬 1976

유아멜드 1983  
(父 코리무스키)

(父 사툰케이)  
츠키메리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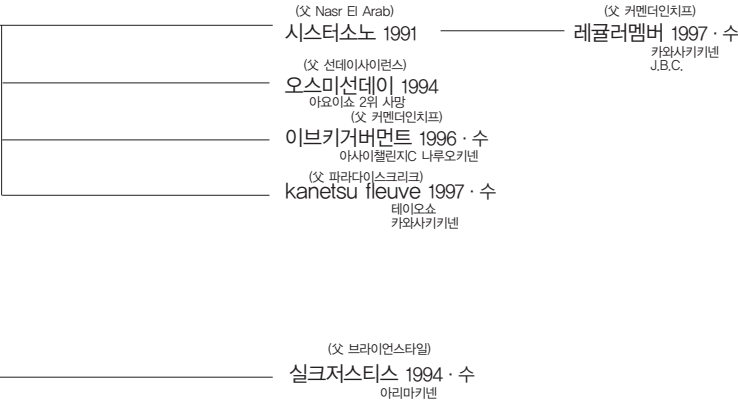
메리나이스 1984 · 수  
일본더비

「자신의 거시기(?)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유연하며, 눈매는 마치 용의 눈과 같았다」며 담당자가 말합니다. 사츠키쇼(皇月賞) 당일, 타카세씨는 경마장에서 레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주가 끝난 후, 조교사가「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엥? 설마 우승을 놓친 건가...?」 설마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는 눈곱만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이라는 의미는「다음번에 나갈 경주에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유증이 재발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사고 후, 마당에 마두관음(馬頭觀音)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기도을 고 있습니다.」

이 계통의 특징은 다산(多産)과 장수(長壽)입니다. 이치신은 17,18두, 스피드가 16두, 로지타가 11두째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카세(高瀬)목장에는 스피드, 벨로우, 그리고 로지타와 3대 어미가 같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장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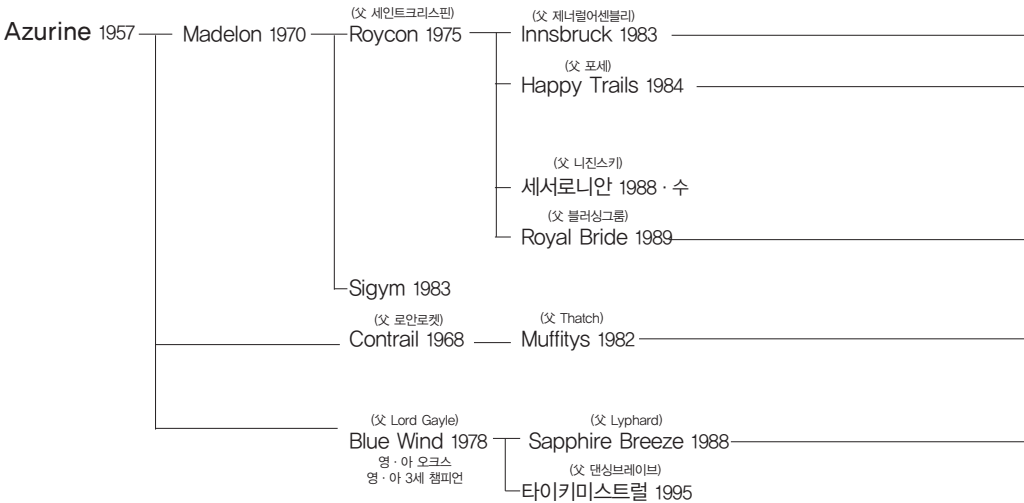
타카세씨는 「누구를 남길 것인가! 고민됩니다. 미래 가능성과 성적, 수태(受胎) 등을 감안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해 온 말들의 경주들을 보고 있다면, 모두가 무사히 골인했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라며 마지막 한 마디를 남깁니다.





### 타이키셔틀(Taiki Shuttle)과 타이키목장(Taiki F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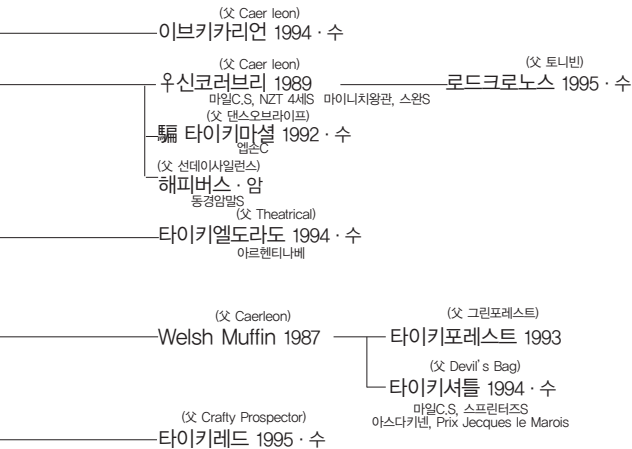
이 혈통의 흐름을 보십시오. 타이키셔틀(Taiki Shuttle)을 포함한 그레이드 말들의 모계(母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하나의 암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아즈린(Azurine)이죠.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계획했던 것인지 타이키목장(Taiki Farm)의 목장주인 아카자와 요시키(赤沢芳樹)씨에 물어보자 「제 자신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라며 그 때의 경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파이어스톤(Firestone)목장에서 옮겨 온 존 멀둔(John Muldoon) 씨가 이 혈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파이어스톤목장의 주류 암말의 하나이자, 영국과 아일랜드 양쪽 모두에서 오크스를 제패한 아즈린(Azurine)의 딸 블루윈드(Blue Wind)이죠. 「태어나 자랄 때부터 레이스까지 함께 해서 애정이 각별했던 말이죠.」



블루윈드는 이후 타이키목장의 소유가 되며, 패밀리 간의 사이가 한층 더 돈독해집니다. 세서로니안(Ciceronian)의 동생 로얄브라이드(Royal Bride)는 재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싼 값에 넘깁니다. 이것으로 이 혈통에 대한 집념이 상당했으며,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아즈린(Azurine)을 의식하게 된 것은, 신코러브리(Sinko lovely)부터입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그의父 시얼리언(Caerleon)이 일본에 잘 맞는지, 아니면 어미의 혈통 덕인지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머피티즈(Muffitys)와 웰시머핀(Welsh Muffin)의 친 딸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고, 그 직계(直계) 타이키셔틀(Taiki Shuttle)이 결정타를 날려 주게 되는 거죠」

「아즈린(Azurine)계의 특징이라고 하면, 현역에서의 성적을 보듯 단거리 부분뿐만 아니라 장거리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서로 다른데도 자마들은 좋은 성적을 기록하죠. 이거야말로 아즈린(Azurine)계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요. 이 답을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경마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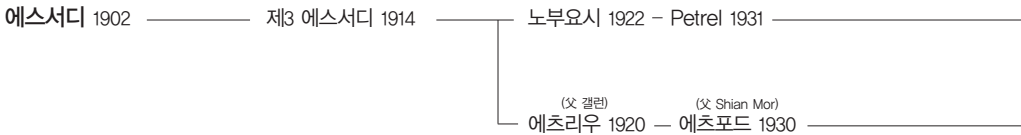
#### 4 에스서디(Esther Dee) 계 (F.No.6)

### 토싱블리자드(Tohshin Blizzard)와 무라나카 카즈에(村中一英)씨

토싱블리자드(Tohshin Blizzard)는 01년 NAR 3관+재팬더트더비를 제패하고, 이듬해 02년 JRA 페브리리S(February S)에서 고전을 면하며 2위이라는 성적을 기록합니다. 당시 우승은 아그네스디지털로,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놓치게 되죠. 일약「더트 노선의 별」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장애물 경기에서 활약했던 아이딘서머(Aydin Summer)의 이름도 있습니다.

에스서디(Esther Dee)는 코이와이(小岩井)조에서 단 1두, 그다지 눈에 띄던 활약 마들은 없습니다만, 0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면, 맵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개의 혈통으로 나뉘게 됩니다.

토싱블리자드(Tohshin Blizzard)는 우라카와(浦河)의 무라나카 카즈에(村中一英)씨의 생산마입니다. 목장 내를 둘러보면, 거의 모든 주 건물이 삼각형 모양의 지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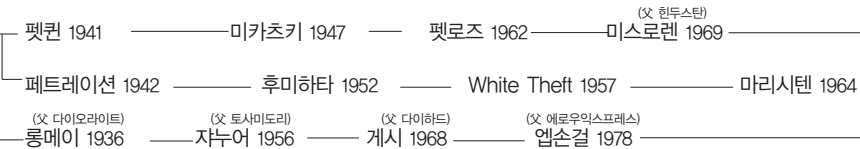


로 되어 있어, 마치 티롤(Tirol, 오스트리아 서부의 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무라나카(村中)씨가 1955년대의 농촌 풍경을 그대로 남긴 목장입니다. 농가의 자식으로 자란 저로써도 상당히 옛 그리운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3두의 번식 암말을 기르면서 부인과 둘이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두가 모두 마르시텐에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시텐은 5살일 때 구입되며, 2~3년이 지나고 나서 아랍(Arab)을 1두 더 구입하게 됩니다. 한 때는 6두 정도 있었으나 목장 규모를 생각해서 3두로 줄였다고 합니다.

히미노토펠레이디의 아버지가 테스코보이(Tesco Boy)인데, 무라나카(村中)씨의 말에 의하면, 우연히 구입한 경우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씨수말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구입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치열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역시 짐작했던 대로 말 시장에서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히미노토펠레이디는 기대했던 만큼 아주 우수한 어미가 됩니다. 후츄우(府中) 3세 스테이크스 등에서 승리하는가 하면, 다이아몬드S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주얼리윈도 자마 중의 1두입니다.

그 당시엔, 브레이브스트로만(Bravest Roman)의 자마들이 잘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마를 구입하려던 찰나에 사운드트랙의 자마가 매매되어 꿈에 그리던 엄월



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유아톱레이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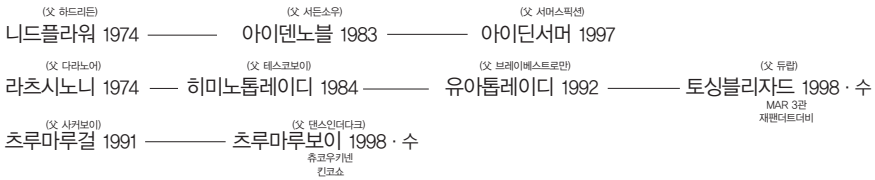
「브레이브스트로만(Bravest Roman)은, 배합 이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암말 하나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침 그때 수의사로부터「코끼리 같은 녀석 하나가 태어났어요!」라고 들어서 실망할 뻔 했으나, 다행히「조그맣고 귀여운 녀석」이 나와 주어 안심했었습니다.

현역 경주에서 은퇴한 유아톱레이디는 자신과의 추억도 많았던 번식 암말이었기에 다시 한 번 구입하게 됩니다.

「기초 암말을 어떤 것으로 결정해야 할지를 주위 사람과 상담도 해 보았지만, 비싼 말로 하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몸길이가 긴 것보다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쪽을 좋아합니다. 유아톱레이디 계통을 보면, 더트에 딱! 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 당시에는 신코윈디가 페브리리S(February S)에서 우승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父 듀랩(Doulab)과 교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유아톱레이디의 등치가 작았기 때문에 되도록

체고가 큰 녀석과 교배시키고픈 이유도 있었던 거구요.」

「토싱블리자드(Tohshin Blizzard)의 경주를 슈얼리윈(Surely Win)을 떠올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사히(朝日)배에서도 도중까지는 선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토싱은 그때부터 돌진해 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은, 방목에 있어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오래된 혈통이지만,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더라면 더 좋은 녀석과 교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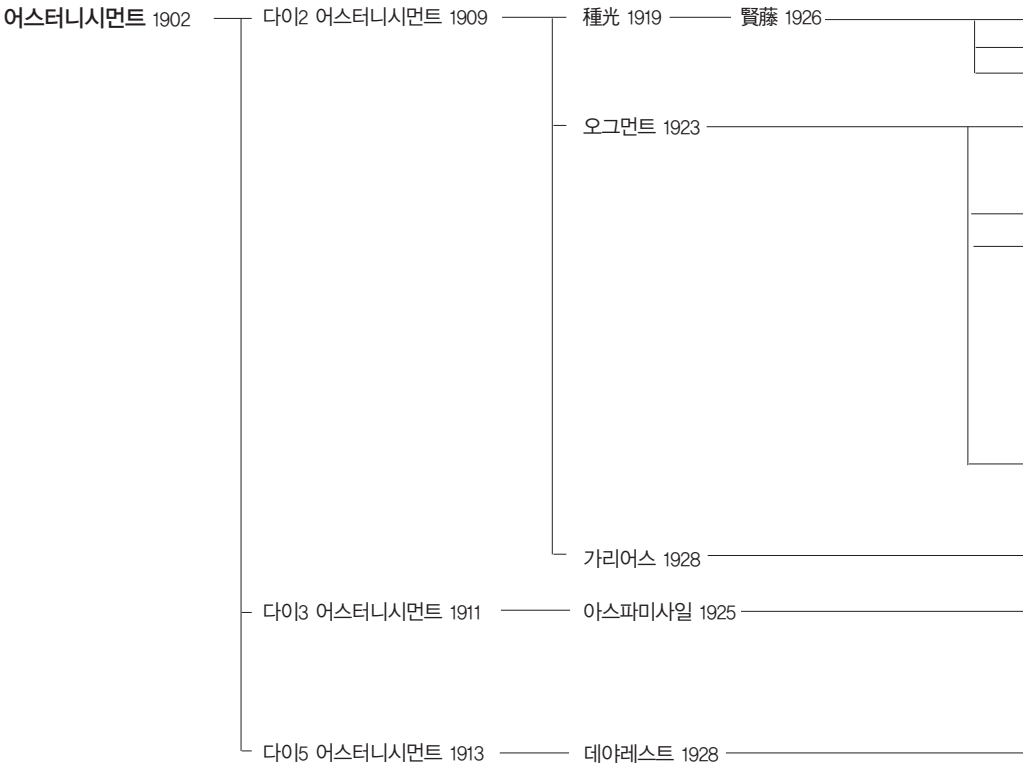
태어난 말들을 모두 살펴보면, 정말로 축복받은 목장입니다. 경주마 생산이란, 희망을 품고 혈통의 여러 방법을 계산하여 교배하는 것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배합(配合)에서, 또는 계산대로 되지 않았던 배합에서 엄청난 혈통의 요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혈통 배합이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자연의 섭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난소(卵巢)의 질병으로 인해 교배가 되지 않았던 유아톱레이디가 02년에 건강이 회복되어 아그네스카미카제와의 교배가 가능하였습니다. 03년에 토싱블리자드 밑에서 무사탄생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경마장을 바쁘게 드나들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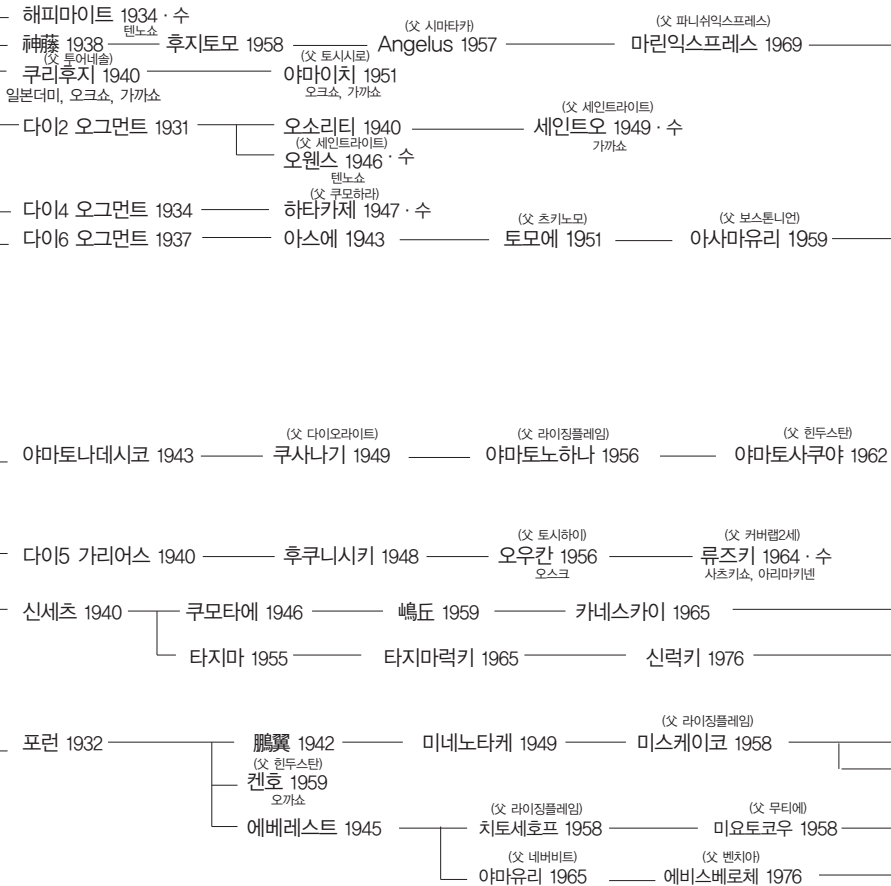
1) 트롯스타(Trot Star)와 오기후시미요시(荻伏三好)목장

안타깝게 스프린터GI 3연패의 꿈이 사라진 트롯스타(Trot Star)... 하지만, 그 꿈은 같은 계통의 쇼난컵이 대신합니다. 어스터니시먼트(Astonishment)는 이 맵으로도 알 수 있지만 제2, 제3, 제5 ... 크게 3개의 계통으로 나뉩니다. 제3이외에는 각각 거물급



이름들이 배열되어 있으며 특히, 트롯스타(Trot Star)의 등장으로 제3의 계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트롯스타(Trot Star)의 생산자는 오기후시미요시(荻伏三好)목장입니다. 이 목장은 딸 부부와 함께 2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부친인 요시오(吉男) 씨가 대표입니다. 그는 40년 목장 경력으로, 7살 때 부친이 사망하여 어린나이에 가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아들 요시오(吉男) 씨를 키우면서 목장을 꾸려왔습니다. 그런 어머니도 17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목장 일을 도맡음과 동시에,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꾸려나가야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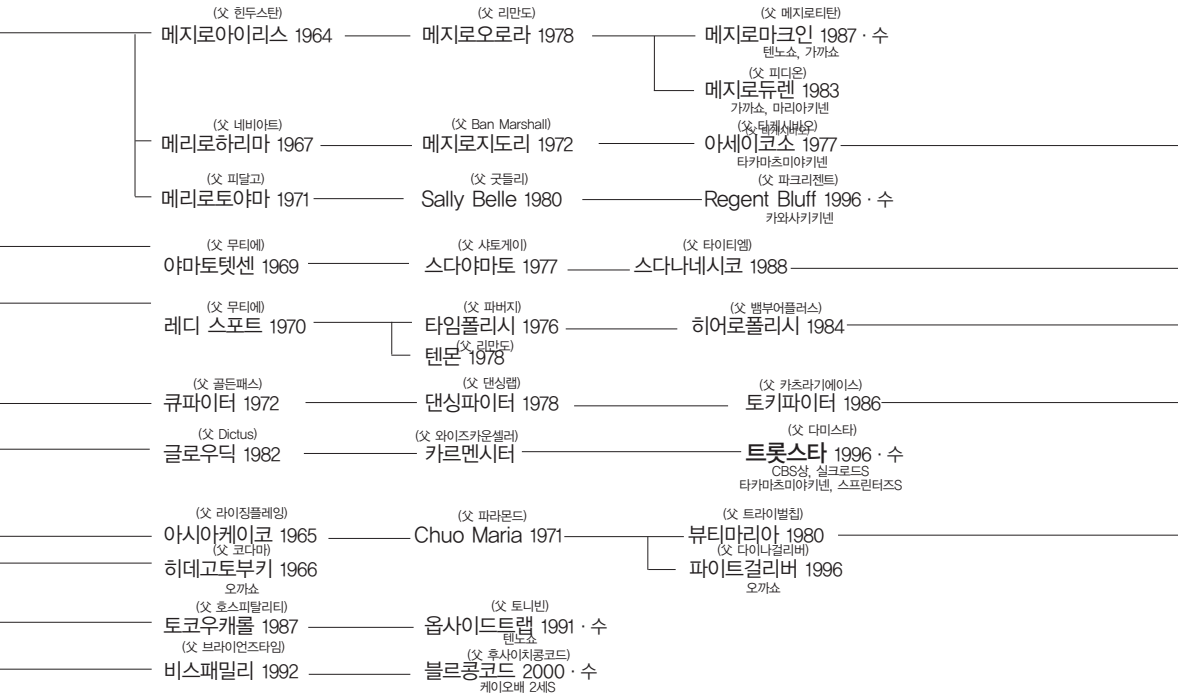
논밭과 우유생산의 겸업농가에서 경주마 생산으로의 전환을 도모했던 것은 요시오 씨입니다. 요시오 씨는 기초 암말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혈통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경기의 승수(勝數)가 많은 말을 고르면서 「좋은 말을 찾기 위해 저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었죠.」라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1928년, 샤다이(社台)목장이 미국에서 수입해 온 소네라(Sonera)에 주목하고, 배속에 토피오(1967년 개선문상)의 씨가 들어 있던 힌도라인(Hindo Line, 우라와 浦和 · 오까쇼)을 구입합니다. 이 라인은 당시, 오까쇼(桜花賞) 나스노고토부키, 사츠키쇼(皁月賞) 니혼피로에이스, 히가시소네라오, 네이티브러너 등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힌도라인(Hindo Line)의 피는 힌도무린(父 무린), 엔젤레스포트(父 선데이사일런스)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1978

그리고 더비마 하쿠쇼우의 일족으로, 일본단파상(日本短波賞) 등에서 승리한 하쿠에이호우의 친누이 미요노유키, 더비마인 타니노



헬로모어의 손윗누이 마프아나가 있습니다. 게다가, 타마모크로스, 미야노포피가 활약하기 전에, 그의 손윗누이 샨토댄서를 입수합니다.「번식 암말은 목장의 생명」이라는 말을 기본방침으로 삼아 더 좋은 번식을 위해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일본에 들어 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가, 활약하고 있던 계통과 기대치가 높은 계통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마음 한 구석에는「훌륭한 국내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현시켜 줄 만한 암말이 오기후시미요시(荻伏三好)목장에 들어옵니다. 미요시(三好)목장의 목장주 타카노 미노루(高野 稔)씨로부터「후지사와 카즈오(藤沢和雄)마사에 있던 카르멘티어를 맡아줬으면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코이와이(小岩井)의 어스트니시먼트(Astonishment) 혈통... 국내산의 훌륭한 암말이 오키로 되었던 것입니다.

좀처럼 다혈질 성격의 말이었기 때문에, 타카노(高野)마주가 원하던 씨수말과 교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이 기회에 교배하지 못하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찬스를 놓치게 된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때 요시오씨 머릿속에 번쩍이던 말 1두가 떠오릅니다. 바로 다미스터였죠. 다미스터는 미스터프로

스펙터(Mr. Prospector)의 자마로, 유럽에서의 자마 켈틱스윙(Celtic Swing)의 선전으로 더욱 주목 받기 시작한 씨수말(일본에서는 첫 연도)이기도 하여 마주에게 강한 추천을 받습니다. 오기후시미요시(荻伏三好)목장의 생산자들에게는 희망이 걸린 선택과 결단이었죠.「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안 되라는 법은 없다. 우연의 만남에서 얻어내는 뜻밖의 행운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작업이 어려운 것!... 그러기에 재미있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트롯스타(Trot Star)의 알맹이라면 2000M정도까지는 버텨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01년은 어스트니시먼트(Astonishment) 혈통의 해였습니다. 트롯스타(Trot Star)를 필두로, 플라워컵(Flower Cup)의 타임페어레이디, 메구로키넨(目黒記念)의 핫시크리트, 케이오배 스프링컵(京王杯SC)에서는 사일런트헌터, 그리고 그레이트전을 획득합니다.

(父 럭키소블린)  
쇼난그레이스 1989

(父 사쿠라바쿠신오)  
쇼난컵 1998  
타카마츠미야기넨

鬮 (父 현팅호크)  
핫시크리트 1996  
메구로키넨, 스테이아즈스

(父 선데이사일런스)  
사일런트헌터 1993  
케이오배SC

(父 메지로마크인)  
타임페어레이디 1998

(父 다이아걸리버)  
나리타타이세이 1989

## 2) 오프사이드트랩(Offside Trap), 엘콘도르파사(EI Condor Pasa)와 마주- 와타나베 류(渡邊 隆)

그래서 저는 이 계통의 또 하나의 혈통, 제5 어스트니시먼트(Astonishment) 혈통을 주목하기로 하였습니다. 암말계에 클래식 활약마가 다소 있었습니다. 98년 텐노쇼 가을의 강력한 우승후보인 사일런스스즈카에게 이번이 일어난다고 해도, 한쪽에 오프사이드트랩(Offside Trap)이 있었습니다. 마주는 엘콘도르파사(EI Condor Pasa, 98년 개선문상 2위, 98년 JC)로 유명한 와타나베 류(渡邊 隆)씨입니다.

해외 쪽에 관심이 많다는 이미지가 강한 와타나베 씨가, 왜 오프사이드트랩(Offside Trap)의 마주인 것일까요? 와타나베(渡邊)씨는 이 오프사이드트랩에게 흐르고 있는... 일본에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모티브 중 하나입니다.

사카이(酒井)목장의 암말 중에서 제가 처음 만났던 말이 치토세호프였습니다. 그 말에게 받은 첫인상은 너무나도 강했으며, 61년 오크스에서 우승하면서도 1주일 후 또다시 더비에 도전했었죠.

당시, 같은 마주의 치토네미노르가 더비 노선인 NHK배에서 승리하여 유력한 우승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치토세미노르가 더비 직전에 몸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오크스에서 압승한 치토세호프에게 도전장을 내어주게 됩니다. 암말이면서도 4코너를 돌고, 직선 언덕 중간에서 선두에 섭니다. 마지막 골문 앞에서는 하쿠쇼우와 메지로오과「머리 한 가닥」차이의 접전을 벌이면서, 뒤에선 몸통 하나 차이로 뒤쫓던 치토세호프가 3위로 끝인합니다.

지금은 조금 유치한 말이긴 하지만, 「여장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치토세호프는 경주족(競走族)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으며, 그 자손들도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덕에 그 인상도(印象度)는 한층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와타나베(渡邊)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마주로서 첫 스타트하게 된 것은 지방경마이며,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중앙(中央)에 대한 열망도 강하게 어필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혈통적으로 증명될 만한 말도 없었으며, 받아 줄만한 마사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생산자들의 의견과 여러 명마(名馬)들의 혈통(血統)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혈통적 근거가 있는 암말이야 말로 최고의 경주마를 생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마퀸(67년 마이니치왕관, 세키야키넨 関屋記念)과 블랙바토(68년 퀸컵) 등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신참이던 와타나베(渡邊)씨에게는 처참한 결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에비나 타케고로(蛭名武五郎) 조교사가 우라카와(浦河)의 사카이(酒井)목장과의 인연을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치토세호프는 사카이목장의 생산마(生産馬)입니다.

「바로 찾아뵈었죠. 하쿠쇼우가 승리한 사진들이 자랑하듯 여기저기 걸려있는 것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라며 와타나베(渡邊)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혹독한 중앙(中央)경마에서 맨 처음 달리게 한 것은 치토세호프의 딸 미요토코우였습니다. 그리고 사카이목장에는, 다이신볼가드가 69년에 우승한 더비에서 3위를 기록한 이즈미토코우(하쿠에이호우의 동생)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그의 모계명혈론(母계名血論)에 따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와타나베씨가 혈통표를 볼 때, 당연히 시선을 먼저 두는 곳이 아래 쪽(모계)부터입니다. 어미가 좀~~ 그렇다 할지언정, 3대 전에 눈에 띄는 모계가 있는지 까지 중요시 합니다. 심한 표현일수도 있겠지만「씨수말에 “이상한 녀석”이 끼어 있지 않은 계통은 안 된다.」라고 하더군요. 와타나베 씨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실적이 좋은 씨수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암말에게는 반드시 좋은 놈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론은 배합생산과 경주성적을 비교하는 작업에서 더욱 확신을 가진 것이죠. 「혈통이 좋고 나쁜은 어미에게... 그리고 스피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는다고 믿고 있는데요. 어쨌든, 족보도 없는 녀석은 가치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나중에 씨수말로 쓸 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와타나베 씨가 해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치토세호프에서 닛토우치도리의 손자 등을 손에 넣은 시기였습니다. 명혈(名血)이라고 불리는 암말 계통에 대한 열망이 많았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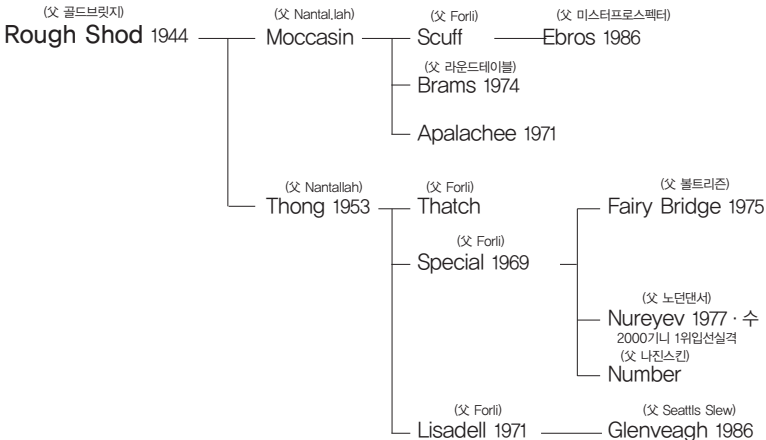
「실은, “화려한 일족”이라는 것도 손에 쥐고 싶었지만, 저희 쪽에서 “주십시오.”라고 해도 상대 쪽 입장에서는 간단히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 결국, 국내

에 기회가 없다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요.」

지금의 경마는 스피드 진보가 눈부실 정도로 빠릅니다. 해외에서 레벨 높은 암말들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죠. 지금과 같은 스피드경마 시대에서 경주마를 수입할 때에는 와타나베 씨 나뭇대로의 3가지의 철칙이 있습니다.

①부상이 잘 나지 않는 말 ②스피드가 빠른 말 ③불량주루에 약하지 않는 말, 적어도 이 3가지는 최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마장(특히, 영국)은 한 해에 열리는 경기 개최 수가 정말 적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주경마장(主競馬場)에서 약 40일 정도(1회 개최에 8일×5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더트경주는 말할 것도 없고, 잔디 코스의 사용빈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의 유지관리 방법도 유럽과 많은 차이를 보이죠. 게다가, 비가 많아서 습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잔디를 오래 방치하는 것도 어렵고, 뿌리 썩음을 방지하는 대책 관리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디를 짧게 베어버리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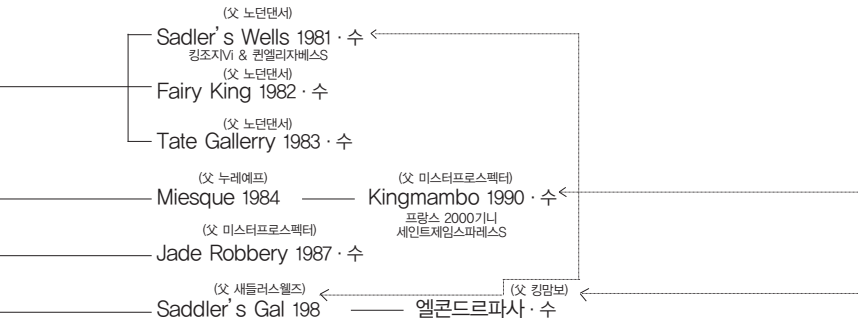


로 인해 바닥은 잘 굳어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앞의 3가지 조건은 최저 필수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중 하나인 스피드에 관해서는 유럽에서도(특히, 영국) 이와 같은 스피드 능력을 가진 계통이 승점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98년에 오크스에서 우승한 하이라이즈의父는, 골절 때문에 클래식에 출전하지 못했던 3세 챔프 하이에스테이트입니다. 99년 오크스에서는 페어리킹의 아들, 그리고 2000년 우승 신다르의父 그랜드로직은 댄지그(Danzig)의 손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엘콘도르파사(El Condor Pasa)의 복잡한 혈통과 일본 생산자들과의 깊은 인연을 알 수 있도록 일족(一族)의 계통을 모두 실었습니다. 암말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들의 이름도 확인해 보십시오.





### 위닝티켓과 후지하라(藤原)목장

우선, 로치계라고 불리는 암말계의 모태가 되는 크레이다로치(Craigdarroch)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26년에 수입된 영국의 자마로, 모계(母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세인트사이먼(St. Simon)의 누이(姉)에 이릅니다.

후지하라(藤原)목장의 「생산마명부(生産馬名簿)」에는 후지하라(藤原)목장 출신의 대상승마일람(大賞勝馬一覽)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닝티켓, 사쿠라스타오, 사쿠라유타카오 등등, 스타 호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 몇 두에게는 강한 인상과 추억을 남아 있습니다.

크레이다로치 1922 ————— 昭英1927 — 玄齋1932 ————— 초키세츠1937 —————



(父 세프트)  
세프트잔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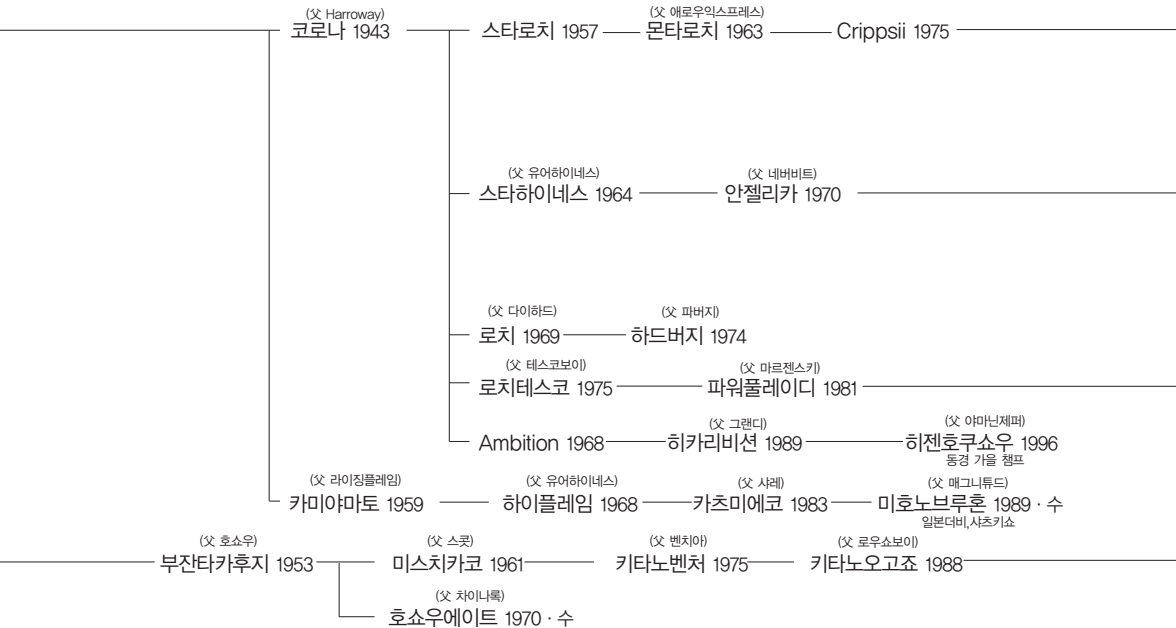
우선, 스타로치(Star Loch, 父 하로웨이 Harroway 母 코로나)는 1960년 오크스 마이며, 그 해가 저물 때쯤의 아리마기념(有馬記念)에서도 4세 암말(지금은 3세)로서 역사상 단 1두의 우승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마에 입문했을 당시, 로치(Loch)계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스타로치의 경기를 직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사츠키쇼(皇月賞) 우승마인 하드버지(Hard Berge)로, 사츠키쇼(皇月賞)의 최종조교가 끝나고 나서, 후쿠나가 요이치(福永洋一) 기수를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말한테 물어보세요.」라며 말하며 싱긋 웃더군요. 그 웃음만으로 지금의 컨디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혹시 나이 드신 기자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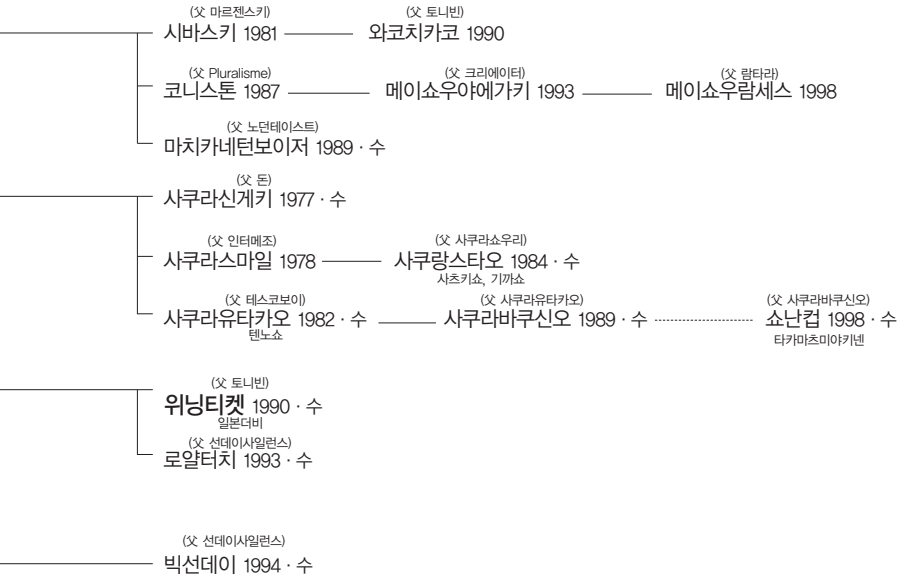
그리고 사쿠라스타오는 사츠키쇼(皇月賞) 후 긴 휴식을 가진 뒤, 기까쇼(菊花賞)에 도전하여 우승하게 됩니다. 힘들 거라는 매스컴과 경마 관계자들의 예상을 뒤엎게 되



죠. 결국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결과 [제업염,독살]를 낳게 되지만, 정말로 훌륭했던 말이죠.

위닝티켓은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듯한 위세로 멋지게 골인하여 시바타 마사토(柴田政人) 기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들의 명마를 탄생시킨 후지하라(藤原)목장의 시작은 1902년입니다. 따라서 창업 100주년이던 2001년에는 21세기로의 새로운 출발의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긴 역사는, 코로나부터 시작한 크레이다로치(Craigdarroch)계와의 관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만큼의 암말들이 이 목장에서 번식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파워플레이디(Powerful Lady)입니다. 위닝티켓이나 로얄터치의 어미로서 잘 알려진 그 말은 02년도에 타바스코캣(Tabasco Cat)의 자식을 탄생시킵니다. 후지하라(藤原)씨는 「이 것으로 18년 연속 출산입니다. 상당한 기록이죠. 기네스북에 신청하려고도 생각했습



니다. 뱃속을 쉬게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매년 순조롭게 출산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오히려 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체(母體)가 건강했기에 더비마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첫 연도(1985년) 자마인 카준의 자식 에이프렐브라이드는 미출주마였으나, NAR 최우수 4세이상마가 된 마루부츠세카이오의 어미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번식암말의 생애출산기록(오래된 기록이라 조금 의심스럽지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 17두입니다. 탄생시킨 말 중에 오까쇼 우승마인 호스멘테스코 등의 이름 등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에는 아직 실현시키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으나, 많은 명마들을 배출함과 동시에 씨수말로서도 성공함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편, 후지하라(藤原)씨에게는 해외에서 수입한 번식암말도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17승을 기록, 캐나다에선 연도대표마와 일본 재팬컵(Japan Cup)에서 우승한 싱스필(Singspiel)의 모 글로리어스송과, 타이키셔틀(Taiki Shuttle) 등의 아버로도 잘 알려진 데빌스백(Devil's Bag)의 누이 마쁘띠뜨(Ma petite) 등등. 이들과 로치(Loch)계를 교배시켜 태어난 녀석을 해외 무대에 진출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1994년생 스톰캣(Storm Cat)의 딸 텐잔스툼(Tenzan Storm)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1997년 7월 보다쥬S(菩提樹 S)에서 데뷔 4번째 도전의 타이키셔틀(Taiki Shuttle)에게 첫 패배를 안겨 준 암말을... 이 경기 1,2위의 배합에서 02년 암말이 탄생한 사실도 덧붙여 두겠습니다.

목장주 후지하라(藤原)씨는 인연이 있었는지 씨수말 타이키셔틀(Taiki Shuttle)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 1) 빅토리아크라운과 치요다(千代田)목장

장사하는 사람들은「정말 아름답고 예쁜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우선 발음부터가 좋은 인상을 풍깁니다. 이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한 훌륭한 계통이 있는데, 바로 일본에서의 뷰티풀드림머(Beautiful Dreamer)입니다. 표를 보시면 그의 훌륭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조사할 당시, 경마계의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맨 처음에 이 목장을 말해 주더군요. 바로 치요다(千代田)목장(경영자는 이이다 타다시(飯田正), 마사코(政子)씨)입니다.

치바(千葉)의 이와야마(岩山)라는 곳이 있습니다만, 목장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지명(地名)에 있는 이 목장은 1945년에 개장(開場)하였습니다. 그 자리엔 일본 경마의 초창기부터 많은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공헌을 한 S.아이작 씨가 소유하고 있던 장소입니다.

치요다(千代田)목장과 뷰티풀드림머(Beautiful Dreamer)계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 월드하야부사(도쿄·후지모토 토미오(藤本富良) 마사 소속)부터입니다. 후지모토(藤本)씨는 트레이너로서도 골든웨이브, 히카루메이지, 아사덴코우 등의 더비마를 배출하여 활약한 한편, 오래된 인습을 그대로 계승해 온 경마사회를 시대에 걸맞게 재구성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후지모토(藤本)씨는, 경마 선배로서 자식처럼 여기던 치요다(千代田)목장에게 조언을 해 줍니다. 「몸 상태는 별로지만, 이런 말도 있다」며 저에게 소개한 말이 월드하야부사였습니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에 짤 수 있었다. 부상이 없었다면 가질 수 없었겠지!」라며 이이다(飯田)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뷰티풀드림머다 라는 강한 인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매력을 알았던 것은 빅토리아크라운이 활약(14전6승, 최우수 2세암말, 최우수 3세암말)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빅토리아는 강했습니다. 클래식 경주를 앞두고 부상을 당한 것이 조금 아쉽지만요. 「무사했

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이내 감출 수 없습니다.

마침 같은 시기에 빅토리아크라운의 언니들의 자매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요다(千代田)목장에서는 암말 1두의 혈통에 의지하지 않고, 후지하라(藤原)목장의 로치(Loch)계 번식암말과도 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풀드리머(Beautiful Dreamer) 계의 쓰리닥터, 탈렌티드걸, 브레이크맨 등을 유럽에서 들여가, 그의 자식 고쿠토줄리안 등의 출주조건을 달고 외국산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합에 있어서는 국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해외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은 자녀분인 세이고(正剛)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뷰티풀드리머(Beautiful Dreamer)계가 확실히 훌륭한 라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통은 일본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꾸준히 배합을 했던 거구요. 일본에서 활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 뿐, 해외에서 뛰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제가 납득할 만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산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국내에 들여 온 것입니다. 스피드에 뛰어났다는 것이 씨수말로서의 크나큰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워닝(앵글스테이지)이라든지, 마키아벨리언(코쿠토줄리안)이라든지 말이죠. 기쁘다고 해야 할지, 조금 아쉽다고 해야 할지... 일부로 교배시키러 갔던 씨수말 몇 두가 일본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수입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제 생각이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요다(千代田)목장의 기본세력(基本勢力)은 교배료를 아끼지 마라는 걸까요?」

해외의 피를 적극적으로 갈구했던 이이다(飯田) 씨는 생산자로서의 관계이든 마주와의 관계이든 간에 자기와 관련이 있는 말의 경주는 어디에 있더라도 꼭 보러 가는 분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열적인 분이죠.

마지막으로, 치요다(千代田)목장에는 후지하라(藤原)목장에서 온 로치(Loch)계 크레이다로치(Craigdarroch), 1908년에 수입된 에스서디(Esther Dee)계, 마이신잔 등이 있는 뿌리로, 잇토 등 「화려한 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일리계의 혈통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뷰티풀드림어 1903

種義[다이2 뷰티풀드림어] 1912

어스트럴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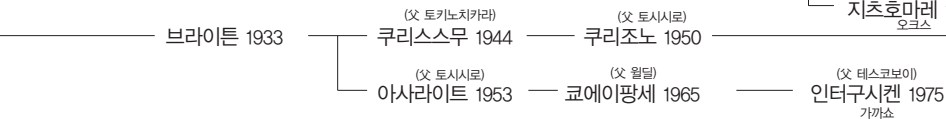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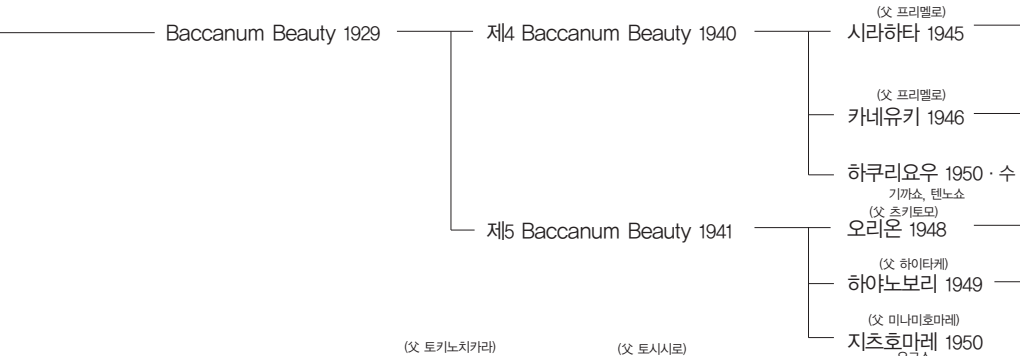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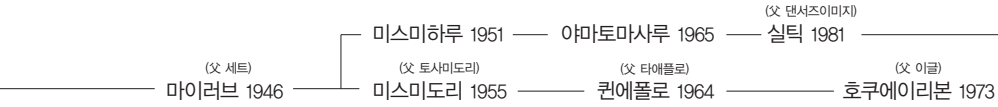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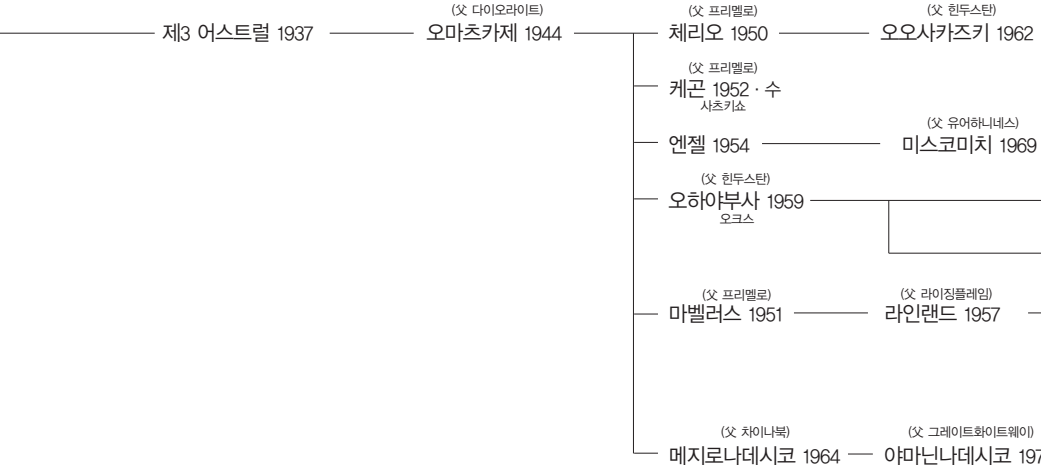

雪義 1931

다이3 뷰티풀드림어 1917


(父 상모어)  
카부토야마 1930 · 수

(父 상모어)  
가부야나 1932 · 수

(父 상모어)  
럭키모어 1936 · 수



(父 카우아이킹)  
마이티엔젤 1980

(父 밀조지)  
슈거마마 1986

(父 프린스오브비스)  
Gifted Crown 1996 · 수  
홍경 기을니, 코쿠라 여름J

(父 보우프린스)  
윙비 1966

(父 짐후렌치)  
쇼나골드 1979

(父 엘로우갓)  
그리골드 1986

(父 다이하드)  
월드하이부사 1967

(父 피소룡)  
미소오하이부사 1973

(父 리버존)  
치요다마사코 1977

(父 Tulyartos)  
하이후부키 1963

(父 아버지)  
치요다후지 1973

(父 브레이베스트로만)  
브레이브만 1977

(父 마키아벨리안)  
코쿠토줄리안 1992 · 수

(父 인디아나)  
타케후프 1970 · 수  
일벌더비, 기까쇼, 텐노쇼

(父 타이트스팟)  
브라보그린 1994 · 수

(父 아마니스키)  
아마닌사레이드 1963

(父 아버지)  
빅토리크라운 1979

(父 타고와이스)  
리딩로울 1985

(父 선데이사일런스)  
아마닌리스펙트 1997 · 수  
하코다테카넨

(父 피소룡)  
Novia Bonita 1981

(父 마르첸스키)  
레오더반 1988  
기까쇼

(父 매그니튜드)  
엘프스 1982

(父 리브리어)  
리버걸 1991

(父 덴싱브레이브)  
티엘오션 1998  
기까쇼, 아카비쇼

카츠후후지 1958

타이거후지 1971

(父 무린)  
후지노무린 1982

(父 브라비오)  
슈퍼세븐 1986

(父 카노)  
센키노 1968

(父 투우쇼보이)  
타쿠노치도리 1984

(父 로얄스키)  
타쿠노걸 1991

(父 쿠모하타)  
메이지히카리 1952 · 수  
기까쇼, 텐노쇼, 아리마카넨

(父 라이징볼레임)  
오테몬 1955 · 수  
텐노쇼

(父 Tuk's Reliance)  
카즈요시 1954 · 수  
사츠키쇼

(父 힌두스틴)  
신잔 1961 · 수  
3관마, 텐노쇼, 아리마카넨

(父 소로나웨이)  
혼마루퀸 1966

(父 벤치아)  
형키다이아 1976

(父 모닝후로릭)  
타마모해피 1983

(父 커맨더인칭)  
다카모히비키 1996 · 수  
고구라대상전

(父 토사미도리)  
그라운드푸드 1958

(父 걸림)  
타마미 1967  
오가쇼

(父 Rodrigo de Triano)  
미야기로드리고 1994 · 수

후쿠시마카넨  
(父 선프린스)

카무라사키 1980

(父 노어택션)

로브데코르테 1988

(父 토로메오)

다이와텍사스 1985 · 수

(父 선프린스)  
쓰리도터 1982

(父 리포)  
닛포테이오 1983 · 수

(텐노쇼(가을)  
미일C.S  
아스나카넨)

(父 리만드)  
탈렌티드걸 1984

엘리자베스여왕배

(父 선데이사일런스)

신코우싱글러 1995 · 수

(父 메지로라이언)  
원브레이즈 1997 · 수

후쿠시마카넨, 카부야마카넨

(父 댄싱브레이브)  
쵸텐브레이브 1997 · 수

요미우리마일러즈C  
업슨c

## 2)티엠오션(TM Ocean)과 카와고에(川越)목장

최근, 뷰티풀드림머(Beautiful Dreamer)계에서 굉장한 녀석이 1두 등장합니다. 카와고에(川越)목장에서는 티엠오션(TM Ocean)이 태어난 것으로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1932년부터의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목장입니다. 초대와 2대까지는 아랍종과 소를 주로 하였으며, 더러브렛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금의 카와고에 토시키(川越敏樹)씨인 3대가 되어서입니다.

아버지에게 「네가 이 목장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세뇌를 받으며 자란 카와고에 토시키(川越敏樹)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목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977년 오일쇼크의 해, 주위에서는 말을 포기하고 꽃이나 딸기를 키우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목장 출신으로는, 칸포(関西)오크스에서 승리한 히메올, 그리고 지방경마의 대상경주에서 우승하여 겨울에는 미나미칸사또이(南関東西)를 정복함과 동시에 다이오라이트(Diolite)기념까지 제패한 유머에이스 등이 있습니다. 이때 생산자상(生産者賞)으로 마두관음(馬頭觀音)이 생겼습니다.

JRA에서는, 처음으로 클래식 경주에서 달린 1988년산 애프터미(After Me)였습니다. 당시 우승마로는 토카이테이오(Tokai Teio), 사츠키쇼(皐月賞)의 돈지리입니다. 터비에서는 18착이였으나 참석이 가능했던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경주 승리 제 1호는 퍼스널리티원이며, 1996년 니가타(新潟) 3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합니다. 암말계는 에이싱마미, 에이싱플라워, 러브리토어, 미스 뉴재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목장과 뷰티풀드림머(Beautiful Dreamer)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는 같은 종(種)에 이르지만, 여기부터는 티엠오션(TM Ocean)과는 다른 혈통이 되는 오마츠카제 혈통이 됩니다.

「티엠오션(TM Ocean)의 母 리버갈이 저의 목장에 있어 기초암말 제 1호라고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라며 카와고에(川越) 씨는 말합니다. 뷰티풀드림머(Beautiful Dreamer)계, 그것도 오까쇼 우승마 엘프스의 딸이 어떻게 이 목장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카와고에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01년에 세상을 떠난 히사츠네 히사오(久恒久夫) 조교사입니다.

올드경마 팬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대충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엘프스의 조교사로, 엘프스의 마주로부터 카와고에(川越) 씨의 생산마 구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프스를 생산했던 호쿠에이(北英)목장으로 1954년에 수입된 메달리온의 딸을 기초암말로 하려했으나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시라오키계도 생각해 봤으나 자본이 없어 체력 만들기를 우선으로 하려던 찰나에 히사츠네 씨로부터 「엘프스가 아직 어리니깐, 그의 자마를 나눠 줄까요」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버갈 인거죠.

그의 자식의 부마는 카와고에(川越) 씨가 평소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리브리어였습니다. 부모마 모두 리덩사이어가 된 적도 있는 리버맨과 GI 11승의 달리아(Dahlia)입니다. 이만한 배합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리버맨같은父 리브리어의 날씬한 점을 물려받은 것 같아 단거리에 적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교배 상대로는 씩씩하면서 무게 있는 녀석으로 할 생각이었죠.

「영국에 갔을 때, 느긋하면서도 근엄한 인상의 댄싱브레이브가 있었습니다. 구경삼아 한 번 갔을 때에는 이미 일본으로의 수입이 결정되어 검역에 들어갔던 터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 제 꿈을 실현시켰죠.」

실적이 있는 암말 우선이었기에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리버갈... 첫 번째 실패, 두 번째에 발정 성공... 바로 티엠오션(TM Ocean)이 탄생이죠. 그 다음 모계(母계)를 스피드가 우수한 피, 클래식 디스턴스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상대와 교배하기만 하면 제 꿈이 실현된다는 자신감으로 벅차 있었습니다.

「엘프스의 딸은 2두 밖에 없습니다. 벌써 1두는 1998년산 라스트타이쿤이 자식이며, 제 목장에서는 암말이 탄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분명 이 혈통은 다음 후대를 잇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엘프스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 그것만이,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시기와 유행성 유산이 떠돌고 있을 때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히사츠네 씨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카와고에(川越) 씨는 단호하면서도 다짐하듯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 히시미라클의 마주 아베 마사이치로(阿部雅一郎)

「히시」라는 이름으로 삼관 경주에서 달린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 몇 년 사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여왕배 등에서 히시야마존, 키사라기상 등의 2대 히시마사루와 히시레이호우, 히시피나클, 히시리호 등 외국산 이름들뿐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는 않던가요?

당시 그것을 조사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1976년의 후츄우(府中) 3세 스테이크스에서 마르젠스키(Maruzensky)와 대접전을 펼친 히시스피드이쥬. 제가 실황을 담당하고 있던 레이스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국내산이 거물 포 입말을 물리칠 것인가!」라며 골 앞에서 외쳐버렸을 정도로 이슬아슬했던 경기였습니다. 착차는 겨우 코 정도였으므로 사진으로 판정. 마르젠스키(Maruzensky)에게 있어서는 현역시절에 다시없을 대접전이었습니다. 당시, 히시스피드의 아버가 히시마사히데이며, 다시 히시마사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산이니 외국산이니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쳐도 히시 그룹은, 지금까지 클래식경주와는 좀처럼 인연이 없었습니다. 실은 02년 기까쇼(菊花賞)의 히시미라클이 처음이었습니다. 히시미라클은 코이와이(小岩井)목장이 1907년에 들여 온 암말 1두, 즉 헬렌서프(Helen Serf)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베마사이치로(阿部雅一郎) 씨는 히시미라클과의 만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미라클은 홋카이도 트레이닝세일에서 구입한 것 중 1두입니다. 작은 몸집으로 좋은 기록도 없었으나, 그냥 걸음걸이가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사에서도 구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650만엔! 한 방에 구입하게 되었죠. 이 세일 당시의 우승후보는父 펜타이어, 母 짐퀸(지금의 바스티)이었습니다만, 이쪽도 단 한 번의 흥정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미라클을 생산한 오오즈카(大塚)목장이 혈통적인 백본(Bakbone)을 가진 역사 깊

은 곳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팜플렛 설명에 아카네텐류와 오사이치조지의 이름이 실려 있어, 나름 괜찮을 거라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父 사커보이(Soccer Boy)에 관해서는, 마일러로서의 좋은 성적은 갖추고 있지만 장거리 적성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미라클을 생산한 오오츠키(大塚)목장에서는 헬렌서프(Helen Serf)의 피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봤었죠.

그 전에 우선, 오오츠키(大塚)목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개설은 1902년으로 1세기를 족히 넘을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 되어 있는 헬렌서프(Helen Serf)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텐노쇼(天皇賞)·기카쇼(菊花賞)·아리마(有馬)기념 등에서 승리한 메이지히카루, 다카라츠키키넨(宝塚記念)의 에이트크라운, 나오키, 토도로키히호우 등도 있습니다. 오오츠키신타로(大塚信太郎) 씨가 헬렌서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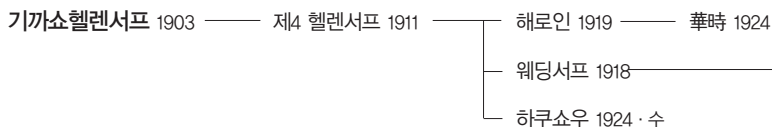
「저희랑 인연이 된 것은, 플레이가이드퀸(1949년)부터 이겠네요. 상당히 강한 인상이 남아있던 아카네텐류의 母 미치야사(1973년)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오사이치조지를 배출할 정도였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라클의 母 순사쿠요시코(1992년)는 그럭저럭 달려 주었고, 체형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분명, 좋은 혈통을 만들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가끔 괜찮은 녀석이 나오는 사커보이를 교배상대로 골라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양이면 좀 더 큰 녀석이 나오길 바랐었는데요…….

「목장에 있어 번식암말을 결정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레이트급 말이 나올 것이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입니다. 운 좋게도 저희에게는 좋은 활약을 해 줄 녀석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2대, 3대씩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적으로 환산해 보면, 1세대가 약 6년으로, 3세대는 18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시간과의 전쟁이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연 방목을 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야간방목을 하죠. 즉, 동물로서의 본능을 그대로 살리며, 스스로가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에서 터득케 하는 거죠. 미라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시 마주 아베(阿部) 씨의 이야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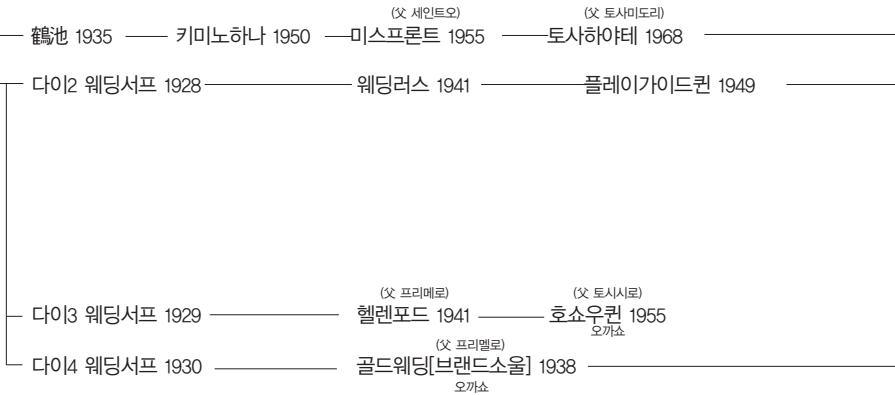
「몸집이 크고 엉덩이가 볼록한 것을 좋아하는 사야마(佐山) 조교사는 작은 체구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입했던 히시미라클이 들어 갈 마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여 경우 승낙을 얻어냈죠. 2세 여름 코쿠라(小倉)에서 잠시나마 뛰게 했지만, 장점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가을 교토에서 거리 1800M 정도에서 전중판에 이름을 올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커보이(Soccer Boy)의 장거리 능력이 눈에 띌 무렵이 되자, 반 년 정도를 방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재도전, 첫 승리는 타니노김렛이 더비마가 되던 날 중앙경마장(中央競馬場)이었습니다. 그리고 2승째는 한신(阪神) 2200M 특별전이었습니다. 2분12초6의 승리기록... 이 기록은 다음날 있었던 다카라즈카키넨(宝塚記念)의 단츠프레임이 2분12초9 이었으니깐 0.3초 빠른 셈이죠. 레이스 선택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우승하면 기까쇼(菊花賞)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언뜻 떠오른 곤 했습니다. 타니미즈(谷水) 씨에게 『김렛은 기까쇼(菊花賞)? 텐노쇼(天皇賞)? 어디로 할꺼야?』라고 묻자, 『우린 여태까지 기까쇼에서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까쇼!』라고 하더군요. 어쩐다 큰일났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김렛이 부상??」



「클래식 등록은... 데뷔하고 나서부터의 성적을 보니 “등록” “클래식”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지지 않았습디다. 김렛이 긴급사태인 지금... 추가등록을 하여 고베신문배 우승도 생각해 보았지만, 우승은커녕 6착... 그래서 결국, 추첨으로 출전이 가능해졌으나... 그래서 그 날은 교토에 가지 않았습디다. 다음날 북해도에 갈 예정이었기에... 운이 좋았다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우승까지 해 버릴 줄은 몰랐습디다. 교토에 갔었더라면 과연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첫 부분에 언급하였습디지만, 아베(阿部) 씨는 외국산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미국산에 강한 흥미를 갖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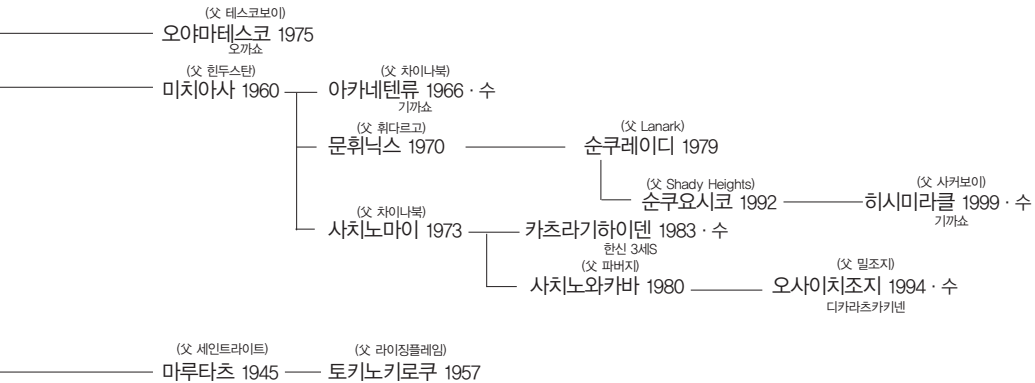
「아버지(아베 마사노부)가 프랑스에서 말을 가져 온 적이 있었습디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역시 미국산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본에서는 마음에 드는 말을 손에 쥐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디다. 결국, 미국 트레이닝세일 쪽이 훨씬 간단하죠. 1991년 바렛세일, 아마 제 2회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야마(佐山) 조교사가 동행했습디다. 일본인으로서의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사야마(佐山) 씨가 아마존이 괜찮네 하니깐 샀던 걸로 기억납디다. 실은, 아마존은 전년도 킨랜드세일에서 본 적이 있었습디다. 가격은 당시의 2배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아마존처럼父 시에트리컬(Theatrical)의 체형을 닮은 녀석을 구입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라  
서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시선을 돌려보았지요. 씨수말 중에서도 분명  
괜찮은 녀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어, 판타스틱라이트나 싱스필(Singspiel)  
과 같은 녀석 말이죠. 그래서 뉴마켓에도 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미국과 달라서 시계  
를 풀거나 하는 일 따위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는 뭔가가 다른 기준이 필요할지도 모  
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베(阿部) 씨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암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존의 어미인 케이티즈입니다. 그 이유는, 종마(種馬)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 2두씩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소유하려  
는 사람은 많지만, 좀처럼 양보하려는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번식암말은 기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혈통의 정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  
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미가 생산한 자식을 경매에 붙일 경우, 그 자식이 얼  
마나 가치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물론 교환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이구요.」



아베 씨의 꿈은 경마 혈통의 심오함과 싸우면서 끝없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디만, 일본 기후풍토 환경에서 긴 시간에 걸쳐 길러져 온 암말은 그 밖에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그 중 몇 두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의 큰 경주에서 승리한 말과 최근의 활약마를 덧붙여 소개하겠습니다.

웨트트세이르계	뱀브비긴
에스서디계	츠르마루보이, 네하이시저
에나몰드계	체크메이트
킨드라계	아에노무테키
실버배튼계	카치도키류우, 히사코볼바, 다이나나오슈, 트럭오, 골든웨이브, 니시노하나구루마
스타일파치계	다이타크리바, 그랜드신잔
세레타계	다이타크야마토, 테츠반자이, 구리페로
소네라계	니훈피로에이스, 나츠노고토부키, 메지로브라이트
타이란츠퀸계	도키노미노루, 그린그라스
후라스트레토계	쿠모노하나, 오토키츠, 호우요우보이, 미나가와만나, 텐메이, 우메노화이바
후릿트판시계	센트라이트, 토사미도리, 노스가스트
프로폰치스계	발도마인, 토우엠펜라, 아이네스후진, 하쿠타이세, 레가시월드
星旗계	가네토시가바나, 타카구라야마, 하쿠치카라
星若계	텐포인트
보니난시계	하이레코드
로즈호킹스계	카리스마산오펜라

(父 Rodrigo de Triano)  
미야기로드리고 1994 · 수

후쿠시마키넨 (父 선프린스)      (父 노어텍센)      (父 토로메오)  
카이무라사키 1980      로브데코르테 1988      다이와텍사스 1985 · 수

(父 선프린스)  
쓰리도터 1982

(父 리폰)  
닛포테이오 1983 · 수

(텐노스(가을) 마일CS 아스나키넨)      (父 선프린스)  
탈렌티드걸 1984      신코우싱글러 1995 · 수  
엘리자베스여왕배

(父 메지로라이언)  
윈브레이즈 1997 · 수

후쿠마키넨, 카부야마키넨  
(父 덴심브레이브)  
쥬텐브레이브 1997 · 수  
요마우리마일러즈C  
업슨C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곳입니다. 하지만「작은 고추가 맵다」고 할 정도로  
의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키이치 씨는 젊은 나이에 비해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친이 빨리 돌아  
가시면서 10대의 나이(1963년)에 목장을 물려받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열심히 목장을 운영하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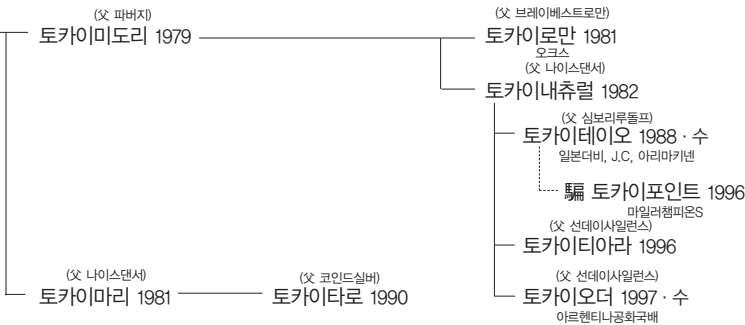
「다른 것 다 해도 이런 일은 절대로~」라든지, 「씨수말 중 90% 이상은 쓸데없는 녀  
석 이라고 생각해야지~」라는 말을 툭툭 내뱉곤 합니다.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하지만, 암말은 달라요. 암말은 성적이 나빠도 형제들만 착실한 녀석들이라면 어  
느 정도대접은 받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암말은 경주 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힘들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토카이테이오(Tokai Teio) 시절에도, 심보리루돌프(Symboli Rudolf)의 상대로  
오크스마 토카이로만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현역기간을 좀 늘리자는 이유로 토카이  
내추럴(Tokai Natural)이 나갔습니다. 미출주마라는지 미승리마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가 전혀 다르죠.」

그러한 경우로 토카이테이오(Tokai Teio)가 탄생한 것입니다.

「상당히 스마트한 녀석이 나오기에... 예전에 파소롱(Partholon)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파소롱을 빼닮은 녀석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러브렛 혈통맵」제 3탄이라는 계획을 세운지 3년 이상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암말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생각한지는 10년 전 94년판을 출판하면서였죠. 하지만, 매년 새로운 씨수말이 등장하고, 어디를 시작으로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한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책을 검토해 보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상당수 있네요. 「안 되는 놈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만든 책입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저에게 많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코스모힐즈의 코마치 슈조(小町修三)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5년 후, 10년 후가 지나도 저의 꿈은 변하지 않으니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혈통맵의 혈통적인 부분과 스펠링, 연도 등의 작업을 도와주신 타카야나기 신지(高柳誠二) 씨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에 많은 시간을 내어주신 목장 관계자와 마주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참고자료》

<http://www.k-ba.com>

『유명한 암말(名牝)의 계보』 오카다 코이치로(岡田光一郎)

『세계의 명마』 하라다 토시하루(原田俊治)

『신세계의 명마』 하라다 토시하루(原田俊治)

『일본의 명마』 더리브렛 혈통센터

『미국의 경마』 윌리엄·P·로버트슨,

번역- 스즈키 토요오(鈴木豊雄), 사토 나가히데(佐藤長秀)

『우준(優駿)』

『주간경마 북』

Champion Horses Maurizio Bongianni

『스티드 북』 일본경종마등록협회(日本輕種馬登録協會)

## 《자료 제공에 협조해 주신 분들》

JRA(일본중앙경마회) 홍보부

NAR(지방경마전국협회) 홍보실

## 코바야시 코세이(小林 皓正)

1937년 후쿠시마(福島)현 아이즈(会津) 태생.

중앙대학 졸업 후, 아나운서가 됨. 라디오와 TV에서 40년 넘게 경마 중계를 담당.

1961년 하쿠쇼우Ⅱ에서 2002년 타니노무김렛까지 43두의 더비마와 만남.

그리고 가요 프로그램 사회를 맡기도 함.

1974년 아나운서 프리 선언. 칸토(關東)U국TV「중앙경마 와이드 중계」

「중앙경마 하이라이트」등의 사회를 02년 3월까지 담당.

마권을 구입하지 않는 손님에게도 경마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방송 중에

우승마의 혈통이나 기수, 조교사 성적 등을 언급하며 폭 넓은 지식을 피로(披露).

밝은 성격과 유머로 시청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아나운서.

그리고 「주간경마 북」에서는 「코바야시 코세이의 원더랜드」를 연재 중. 경마가 주된

화제이지만, 키워드는 「말」. 사람과 말의 관계를 중시.

저서로는

「경마 원더랜드」

「93년판 더러브렛 혈통맵」

「94년판 더러브렛 혈통맵」

## 新 · 혈통MAP

비매품

---

저 자 : 코바야시 코세이

번 역 : 조경길      감 수 : 석영일

발 행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  
<http://www.studbook.co.kr>

인 쇄 : 리드릭 (02) 2269-1919  
2010년 3월 발행

---

**한국마사회** 427-71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TEL : (02) 509-1821